

พระราชพงศาวดารกรุงธนบุรี
และ
จดหมายเหตุรายวันทัพสมัยกรุงธนบุรี
ประชุมพงศาวดาร เล่ม 40

تون부리왕조 연대기 및 톤부리시대 군대의 일일 기록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40 권



ประชุมพงศาวดาร เล่ม ๔๐
(ประชุมพงศาวดาร ภาคที่ ๖๕-๖๖)

พระราชพงศาวดารกรุงธนบุรี
จดหมายเหตุรายวันทัฬหสมัยกรุงธนบุรี



พิมพ์ครั้งที่หนึ่ง ๒,๐๐๐ - เล่ม

หอสมุด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๑๒
สาขาวัดไชยชุมพลชนะสงคราม
จังหวัดกาญจนบุรี

องค์การค้ำของครูสภา
ศึกษาภัณฑ์พาณิชย์
ถนนราชดำเนินกลาง
จัดพิมพ์จำหน่าย

1840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40 권
— 기존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65-66 편 —

톤부리 왕조 연대기

톤부리 시대 군대의 일일 기록

초판 2,000 부
불기 2512 년 [서기 1969 년]

태국 교원평의회 출판·판매기관
씩사판 파닛(ศึกษาภัณฑ์พาณิชย์)
랏차담넌끌랑 거리

인쇄·판매

[1840]

[도서관 날인: 태국 국립도서관·미술국. 별도 소장 표시는 깐짜나부리주 왓 차이쭈몬
차나송크람 분관입니다. 불기 2530 년 4 월 15 일, 즉 1987 년 4 월 15 일]

도서관 관리 표기:

- 서고 번호
 - 분류 번호: 959.3 / 1247
 - 등록 번호: []
-

총서 편집자 서문

태국의 역사와 고고학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책들 가운데, 『역사 연대기 자료집』은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총서이다. 중요한 내용을 담은 옛 기록들과 해당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의 설명을 상세하게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 총서는 불기 2451 년[1908 년]에 제 1 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이후 계속 출판되어 불기 2484 년[1941 년]에는 제 73 편에 이르렀으니, 그 기간은 30 여 년에 달한다. 현재도 다른 편들이 뒤이어 여러 차례 간행되고 있다.

대부분은 한 편을 한 권으로 펴냈다. 다만 제 6 편과 제 67 편은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한 권씩 출판하였다.

이 『역사 연대기 자료집』은 오래전에 간행된 책이므로, 이미 인쇄된 책들이 흩어져 있어 구해 읽기가—어려워졌다. 또한 이 총서를 한꺼번에 다시 출판하는 데 자금을 댈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그 때문에 시중에서 이 총서의 가격은 계속 올라, 오늘날에는 한 질의 가격이 10,000 바트에 이르고 있다.

교원평의회 출판위원회는 이 좋은 책을 적절한 가격으로 모아 출판하여, 학술에 관심 있는 학생과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구입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번 출판을 추진하였다.

『역사 연대기 자료집』이 처음 생겨난 계기는 싸왕 왓타나 왕비, 곧 훗날의 왕대비[สมเด็จพระพันวัสสาอัยยิกาเจ้า]에게서 비롯되었다.

왕비는 불기 2451 년[1908 년], 몸짜오 다나야워닛(หม่อมเจ้าदनัยวรณัฐ)의 장례에서 공덕을 쌓기 위해 와치라얀 도서관 위원회에 책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이 공덕이 공공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도서관 위원들은 당시 쭈랄롱꼰 국왕의 관심에 따라 연대기 등 옛 역사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쭈랄롱꼰 국왕—과 와치라우트 국왕이 이전보다 이러한 연구에 더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로 대조하고 확인할 책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옛 연대기나 전승 기록 대부분은 아직 인쇄되지 않았다. 인쇄된 것 가운데서도 판매된 책이 모두 소진된 경우가 있었으며, 간신히 구할 수 있는 판본도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대조·검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연대기와 옛 기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널리 생겨났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불기 2451 년[1908 년]에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1 편을 간행하였고, 이후 다른 편들도 차례로 출판하였다.

이 총서에 수록된 자료 대부분을 모은 담롱 라차누팜 왕자(สมเด็จพระเจ้าบรมวงศ์เธอ กรมพระยาดำรงราชานุภาพ)는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5 편에서 그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에는 이 총서가 네 권만 출판되어 있었다.

“옛 역사와 고고학에 관한 책을 집필할 때, 나는—『역사 연대기 자료집』을 거의 언제나 꺼내어 대조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이 책들이 참으로 유용하다고 느낀다.

만약 『역사 연대기 자료집』이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옛 역사에 관한 책을 쓰는 일은 훨씬 더디고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이 『역사 연대기 자료집』은 여러 권에 걸쳐 많은 자료를 담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얻는 도움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를 총서 전체로 다시 인쇄한 사람이 아직 없었고, 구해 읽기도 어려웠다. 이에 교원평의회에서 이번에 간행하게 되었다.

이번 출판에서는 교원평의회 『태국어 총서』와 같은 판형을 사용하였다. 각 권의 분량은 대략 20-25 인쇄장[원문: ๓๓, 인쇄용 종이를 접어 묶은 단위]으로 정하였다.

기존 『역사 연대기 자료집』은 각 권의 크기와 분량이 일정하지 않아, 두꺼운 권도 있고 얇은 권도 있었다. 따라서 교원평의회에서 펴내는 한 권에 기존 자료집의 여러 편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다. 반대로 기존 자료집의 한 편을 교원평의회 판형에 맞추어 두 권이나 세 권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자료를 찾아보는 데 편리하도록—교원평의회에서 간행하는 『역사 연대기 자료집』의 각 권에는, 기존 자료집의 몇 번째 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표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1 권
— 기존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1 편, 앞부분 —

이와 같은 방식이다.

내용	본문 쪽수
서문	n
편찬 경위	1
왕조 연대기	1
톤부리왕이 왓 피차이에서 군대를 일으켜 버마군을 돌파하고 나콘나옥으로 향하다	2
나콘나옥에서 뿌라찐부리 방향으로 진군하다	5
뿌라찐부리를 지나 방향을 바꾸어 촌부리로 내려가다	8
촌부리를 지나 라용으로 향하다	8
라용의 지방 관리들이 해칠 음모를 꾸미다	9
라용의 관리들이 흩어져 달아나 방플라소이와 반 끌랭에 각각 세력을 세우다	10
사람을 보내 찬타부리의 프라야를 설득하다	11
루앙 피차이 라차를 보내 프라야 라차셋티를 설득하다	14
군대를 이끌고 반 끌랭의 쿤 램 믐송을 토벌하다	15
방플라소이의 나이 통유 녹렉을 토벌하기 위해 회군하다	17
라용으로 진군하여 머물다	19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승려를 보내 군대를 안내하다	20
찬타부리로 곧장 진군하다	21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쿤 램 믐송을 넘겨주어 처벌받게 하기를 거부하다	23
군대를 이끌고 찬타부리를 점령하다	24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푸타이맛으로 달아나다	25
찬타부리에서 수군을 이끌고 들어와 포쌌똥의 버마군을 토벌하다	26
포쌌똥 동쪽 전방 진영의 군대가 패하다	28
프라 나이꽁이 나와 충성을 맹세하다	28
쭈리야트 아마린 국왕의 유해를 화장하다	29
사람을 보내 롭부리를 설득하다	29
군대를 내려보내 톤부리에 주둔하다	30
만 명이 넘는 백성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다	30
타와이의 군대가 들어와 방꽁 진영을 포위하다	31
가까운 지방 도시들을 평정하다	32
불교를 진흥하다	32
핏사눌록을 토벌하러 진군하였으나 철수하다	34

내용	본문 쪽수
끄롬 므 텡피뵤이 나콘랏차시마로 가다	34
나콘랏차시마에서 소요가 일어나다	35
끄롬 므 텡피뵤이 피마이로 가다	36
프라 나이콩을 설득하자 그가 피마이로 달아나다	37
톤부리군이 끄롬 므 텡피뵤을 급히 추격하여 붙잡다	37
톤부리왕이 즉위식을 거행하다	38
쌀값이 오르다	38
몸짜오 우본과 몸짜오 침이 처벌받다	39
나콘시탐마랏을 토벌하다	40
나라쭈리야왕을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로 임명하다	45
싸왕부리를 토벌하다	46
뜨랑까누의 말레이인과 자카르타 사람들이 수석총 2,200 정을 바치다	47
루앙 꼬싸 ‘양’이 핏사눌록에서 패하여 동북쪽으로 달아나다	47
수도의 고위 승려들을 북부로 보내 승려들을 지도하도록 명하다	51
북부 도시들을 다스릴 관리들을 임명하다	52
치앙마이의 버마군이 은밀히 진군하여 싸완칼록을 공격하다	53
버마군이 패하여 돌아가다	53
국왕이 본대를 이끌고 치앙마이의 버마군을 토벌하러 가다	55
본대가 치앙마이에서 철수하다	56
푸타이맛과 크메르를 토벌하다	58
푸타이맛의 통치자 프라야 라차셋티가 패하여 달아나다	59
프라야 피뵤을 프라야 라차셋티로 임명하다	60
캄보디아왕 옹 우타이가 툽나이로 달아나다	60
국왕이 본대를 이끌고 캄보디아로 가다	60
치앙마이의 버마군을 토벌하다	63
버마군 지휘관 포쑈플라와 마윽완이 치앙마이에서 패하여 달아나다	63
프라야 짜반을 프라야 위치안쁘라깐으로 임명하여 치앙마이를 다스리게 하다	63
프라야 짜반을 프라야 위치안쁘라깐으로 임명하여 치앙마이를 다스리게 하다	66
프라야 람퐁을 프라야 아이야왕으로 임명하여 하리퐁차이를 다스리게 하다	67
프라야 까윽라에게 람뽕을 다스리도록 명하다	67
프라야 위치안쁘라깐이 손녀를 바쳤으나 국왕이 받지 않다	68
프라야 까윽라가 손녀를 바치다	69

내용	본문 쪽수
본대가 내려와 턴에 도착하다	70
버마군이 매라마오 관문을 통해 침입하다	70
본대가 내려와 딱에 도착하다	70
국왕의 배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그 나무가 쓰러지다	71
본대가 톤부리로 돌아오다	76
왕자 짜오파 끄롬 쿤 인타라피탁에게 군대를 이끌고 랏차부리에서 버마군을 맞아 싸우도록 명하다	76
프라야 피차이 아이싸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콘차이시의 버마군을 몰아내도록 명하다	78
국왕이 본대를 이끌고 랏차부리로 가다	79
마하싸와랏 대포 주조에 관한 기록	80
군사들에게 왕의 훈시를 내리다	87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에게 국왕을 대신하여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다	93
버마군이 북부를 침공하다	95
국왕이 본대를 이끌고 올라가 버마군에 맞서다	95
식량 부족으로 꾃사눌록이 버마군에게 함락되다	104
버마군이 서둘러 아바로 돌아가다	104
태국군이 버마군을 추격하여 공격하다	104
마하호셋의 불교 예언	106
프라야 짜끄리 ‘두앙’과 짜오프라야 쑤라씨 ‘분마’를 승진시키다	106
프라야 탐마 ‘분룻’이 내려와 톤부리 동쪽에서 농사를 짓다	110
왕국 반파이가 공물과 함께 총 1,400 정을 바치다	113
나콘시탐마랏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다	114
수도 안팎의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왕실 재산을 나누어 주다	115
끄롬 프라 텡파맛의 유해에 공양을 올리고 공덕 의식을 행하다	116
왓 방이르아녹, 곧 왓 인타라람을 보수하다	116
대포를 주조하도록 명하다	117
군대를 보내 프라야 낭룽을 토벌하고 쿵·빠삭·앗따쁘 도시까지 진군하다	117
짜오프라야 짜끄리 ‘두앙’을 쏜땃 프라 짜오 까삿쑈으로 임명하다	118
국왕을 본뜬 불상을 만들도록 명하다	120
보시의 과보에 관하여 승려들에게 묻다	121
위앙짠을 토벌하다	122

내용	본문 쪽수
에메랄드 불상을 톤부리로 모셔 오다	123
몬족이 반란을 모의하다	123
치앙쑤를 우두머리로 한 몬족 반란 세력을 제거하다	123
크메르를 토벌하다	125
나이 분낙 등의 반란군이 톤부리를 약탈하다	126
톤부리왕이 출가하다	129
프라야 쑤리야아파이 ‘분므앙’가 나콘랏차시마에서 군대를 이끌고 오다	129
국왕의 조카 끄롬 쿤 아누락쑹크람이 군사를 지휘하여 프라야 쑤리야아파이 ‘분므앙’와 싸우다	130
솜땃 프라 짜오 까삿쑤 ‘두앙’이 크메르에서 급히 회군하다	131
톤부리왕을 처형하다	131
관리 40 여 명을 처형하다	132
프라야 탐마 ‘분룻’과 프라야 위칫나리에게 톤부리 동쪽 강변에 새 왕궁을 건설하도록 명하다	133
궁중 내정 부서의 죄를 조사하여 처벌하다	133
부왕 짜오파 끄롬 쿤 인타라피탁과 짜오프라야 나콘랏차시마를 싸라부리 근처 카오너이에서 포위하여 붙잡고, 톤부리로 데려와 처형하다	134
새 국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다	134
아바에서 일어난 사건	136
왕명 공문 사본	137
제 1 호: 프라야 욤마랏에게 보냄. 인력과 병력을 모아 톤부리로 내려와 도성의 해자를 파도록 명함	137
제 2 호: 프라야 나콘차이썬 등을 수신자로 하여, 내려와 도성 해자 굴착 작업을 감독하도록 명함	137
제 3 호: 프라야 쑤턴피핏에게 보냄. 내려와 도성 해자 굴착 작업을 감독하도록 명함	139
제 4 호: 프라야 쑤판부리 등을 수신자로 하여, 내려와 도성 해자 굴착 작업을 감독하도록 명함	140

불기 2316 년, 뱀의 해의 왕명 공문

내용	본문 쪽수
제 5 호: 프라야 욘마랏 등을 수신자로 하여, 군대를 준비하고 동쪽으로 진군하여 버마군을 저지하도록 명함	141
왕명 공문 사본	145
제 1 호: 짜오프라야 싸완칼록에게 보냄	145
제 2 호: 간짜나부리와 씨싸왓에 보냄. 이주해 오는 문족 병력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명함	146
제 3 호: 짜오프라야 씨탐마티랏이 싸무하나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알림	147
제 4 호: 짜오프라야 싸완칼록에게 보냄.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수도로 내려와야 한다고 알림	147
제 5 호: 프라 씨싸왓에게 보냄. 버마의 정세를 조사하도록 명함	149
제 6 호: 캄팽웻과 나콘싸완에 보냄. 국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명함	150
제 7 호: 므앙 썽 등을 수신자로 하여, 병력을 준비하고 반 라행에 집결하도록 명함	151
제 8 호: 짜오프라야 나콘랏차시마 등을 수신자로 하여, 징발 인력을 신속히 편성해 딱의 반 라행에 있는 군대로 보내 국왕을 맞이하도록 명함	153
제 9 호: 도시의 책임자와 관리들에게 보냄. 제 8 호 왕명 공문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도록 명함	155
왕실 코끼리 장부	156
버마군이 몰아 가져간 코끼리 38 마리	156
끄롬 쿤 아누락송크람에게 하사한 코끼리 10 마리	157
군대에 하사한 부상당하거나 불구가 된 코끼리	157
나콘시탐마랏과 캄보디아에 보낸 코끼리	158
짜오프라야 싸완칼록의 유산인 코끼리 22 마리	158
짜오프라야 짜끄리 ‘뭇’의 유산	159
짜오프라야 싸완의 유산으로, 프라야 싸완에게 넘긴 코끼리	160
왕실 코끼리 장부	160
지방 도시들에 있는 코끼리	160
싸이부리로 데려간 코끼리	161
프라야 짜끄리 ‘두앙’과 프라야 탐마 ‘분룻’의 군대에 팔려 간 코끼리	162
주제별 찾아보기	163

내용	본문 쪽수
톤부리 시대 군대의 일일 기록 — 불기 2314 년 푸타이맛과 크메르 토벌 당시 수군을 준비하다	204 204
지휘관들의 배에는 직책에 따른 문양을 그리고, 국왕의 배 선수에는 가루다를 그리다	204
각 부대의 전선·병력·무기 수량	205
선봉 지휘관이 푸타이맛의 통치자에게 보낸 서신	210
푸타이맛의 통치자 프라야 라차셋티가 전투를 지연시키다	211
아싸 부대가 진영을 무너뜨리고 푸타이맛에 진입하다	213
푸타이맛이 함락되고 통치자가 배를 타고 달아나다	215
명령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하다	216
푸타이맛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219
프라야 피엣을 프라야 라차셋티로 임명하고 푸타이맛 하구의 도시를 맡기다	219
국왕이 본대를 이끌고 크메르 토벌에 나서다	220
왕명을 내리다	220
크메르왕이 베트남 영역의 룩나이로 달아나다	222
웅 람 라차를 캄보디아왕으로 임명하다	224
본대가 푸타이맛으로 돌아가다	225
군주가 될 사람의 자질에 관하여 왕이 말씀하다	228
승려들 앞에서 왕이 서약하고 맹세하다	229
빠삐이 충성을 맹세하다	231
베트남군과의 전투에 관하여 왕이 지침을 내리다	241
프라야 욘마랏 등이 크메르로 향한 육군의 진군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다	243
프라야 욘마랏과 프라야 꼬싸를 캄보디아에 남겨 국정을 돕게 하다	246
파 탈라하가 계속 파 탈라하의 직위를 맡도록 명하다	246
프라야 빠라차치프가 왕실의 쌀을 구입하다	248
캄보디아에 무기와 식량을 하사하여 돕다	254
본대가 톤부리로 돌아오다	255
다섯 짜오프라야에게 궁중의 베트남인들을 하사하다	256
베트남인 프라야 라차셋티가 충성을 맹세하다	257
크메르 토벌에 나선 선봉군의 명세	257
푸타이맛에 머문 본대에 속한 일부 왕족과 관리의 명단	258
『쥘라웃타까라윙』 산문본 — 앞부분	

내용	본문 쪽수
예경문	260
제 1 장	261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다	261
불사리가 작은 크기가 된 까닭	263
수코타이의 씨탐마쏘까랏왕에 관한 이야기	264
씨탐마쏘까랏왕이 카오루앙 동굴에서 계율을 지키며 머문 이야기	265
나가 여인이 씨탐마쏘까랏왕을 섬긴 이야기	267
나가 여인이 천상에서 로힛이라는 배아를 토해 내다	273
로힛 배아가 프라 루앙 왕자로 태어나다	274
노부부가 프라 루앙 왕자를 길러 주다	276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65 편

톤부리 왕조 연대기

판 째타누맛 ‘쩜’ 판본

[ฉบับพันจันทนุมาศ (เจิม)]

제 65 편 서문

아유타야 시대부터 시작되는 옛 시암 왕조 연대기 가운데, 현재 미술국이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간행된 것과 아직 간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루앙 빠라셋 판본의 왕조 연대기

이 판본에는 편찬 경위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길상하도다. 소력 1042 년, 원숭이의 해, 제 5 월 상현 12 일 수요일에 국왕께서 은혜로운 명을 내리셨다.

왕실 점성관이 이전부터 기록해 둔 사건 기록과, 문서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는 사건 기록, 그리고 왕조 연대기에 실린 사건들을 한곳에 모으되,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현재에 이르도록 하라.”

이를 보면 이 연대기는 나라이 국왕이 불기 2223 년[서기 1680 년]에 편찬하도록 명한 것이다.

기록은 쥐의 해 소력 686 년, 곧 불기 1867 년[서기 1324 년]에 프라 짜오 파냉청 불상을 조성한 일에서 시작한다.

이어 호랑이의 해 소력 712 년, 곧 불기 1893 년[서기 1350 년]에 끄룽텡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를 처음 세운 일을 기록한다.

그 뒤 용의 해 소력 866 년, 곧 불기 2047 년[서기 1504 년], 나레쑤안 대왕의 치세 말기까지 이어진다.

이 판본은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1 편에 수록되어 있다.

[번역자 주: 마지막 문장은 원문에 적힌 연대와 왕명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불기 2047 년과 ‘나레쑤안 대왕의 치세 말기’라는 표현은 서로 맞지 않으므로, 원문상의 오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소력 1136 년에 필사한 왕조 연대기

소력 1136 년은 불기 2317 년[서기 1774 년]에 해당하며, 톤부리왕 재위 제 7 년이다.

이 판본은 한 권만 남아 있다. 톤부리 시대에 작성한 왕실 판본이며, 마하 짜끄라팻 국왕의 치세 말기를 다룬다.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4 편에 수록되어 있다.

문장은 간결하며, 그 오래된 문체는 루앙 뿌라췌 판본과 비슷하다.

셋째, 소력 1145 년에 필사한 왕조 연대기

소력 1145 년은 불기 2326 년[서기 1783 년]에 해당하며, 라마 1 세 재위 제 2 년이다.

두 권이 남아 있다. 하나는 마하 짜끄라팻 국왕의 치세를 다루고, 다른 하나는 마하 탐마라차티랏 국왕의 치세를 다루는 개별 판본이다.

이때에는 아직 국왕의 명에 따른 교정이나 내용의 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대목에는 해당 부분의 기록이 없다고만 밝히고, 기존 판본의 내용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이 판본들을 불기 2338 년[서기 1795 년]에 교정·편찬한 판본과 대조해 보면—판 짚타누맛 ‘쩜’ 판본이 그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력 1145 년에 필사한 이 판본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옛 문체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책이다. 현재 인쇄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출판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넷째, 두 권으로 인쇄된 왕조 연대기, 또는 브래들리 박사 판본

이 판본은 끄룽텝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의 건국에서 시작하여 랏따나꼬췌 시대까지 이어진다. 기록은 소력 1154 년, 불기 2335 년[서기 1792 년]에 끝나며, 이는 라마 1 세 재위 제 11 년이다.

언제 교정하거나 편찬하였는지를 밝히는 편찬 경위는 없다. 다만 첫 권 표지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프라 씨 쏘턴 위한이 일부 대목의 교정과 대조를 도왔으며, 이미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쿤 루앙 하 왓의 증언』에 실린 내용이 여러 곳에 섞여 들어가 있다. 따라서 브래들리 박사가 인쇄하기 전에, 적어도 라마 4 세 시대에 한 차례 교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국왕 친필 판본의 왕조 연대기

이 판본은 꺄롱텡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의 건국에서 시작하여 랏따나꼬썬 시대까지 이어지며, 소력 1152 년, 불기 2333 년[서기 1790 년]에 끝난다.

외교 사절로 방문한 존 보링 경에게 몽꿋 국왕이 내려 준 친서에 따르면, 국왕은 불기 2398 년[서기 1855 년]부터 꺄롬 루앙 왕싸티랏싸닛과 함께 왕조 연대기를 교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라마 4 세의 친서 모음』 제 4 집 또는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62 편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의 교정 작업은 국왕 자신의 재위 마지막 해까지 이어졌으며, 그 결과가 불기 2455 년[서기 1912 년]에 출판된 국왕 친필 판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푸싸말라’라는 단어에 있다. 이전에는 이를 ‘말라푸싸’라고 불렀다. 그런데 라마 4 세 재위 마지막 해인 불기 2411 년[서기 1868 년] 초의 왕명 기록에는 ‘말라푸싸’라고 부르지 말고, 순서를 바꾸어 ‘푸싸말라’라고 부르도록 명한 내용이 나온다.

국왕 친필 판본도 ‘푸싸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보링 경에게 교정을 시작한 판본을 한 차례 내려 준 뒤에도, 국왕이 자신의 재위 마지막 해까지 계속 내용을 보완하며 교정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위를 밝힌 기록이 없는 것은 아쉽다. 이후의 교정 작업이 국왕의 뜻에 맞게 완결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섯째, 프라 짜꺄라팻디퐁 ‘짖’ 판본의 아유타야 왕조 연대기

이 판본의 내용은 대부분 브래들리 박사가 인쇄한 판본과 일치한다. 다만 나라이 국왕의 치세 말기부터 이어지는 내용에는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부분만을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8 편에 수록하였으며, 이후 불기 2502 년[서기 1959 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별도의 한 권으로 출판하였다.

일곱째, 판 잔타누맛 ‘짬’ 판본의 왕조 연대기

이 판본은 태국식 접이식 필사책인 ‘싸뭇 타이’ 22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에 일부 누락된 권이 있다.

내용은 끄룽텝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의 건국에서 시작하여 톤부리왕의 치세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이어 랏따나꼬썸 초기의 기록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현존 판본이 끝난다. 그러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유타야 부분은 이미 『역사 연대기 자료집』 제 64 편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에 수록한 톤부리 부분은 제 65 편에 해당한다.

이 판본에는 편찬 경위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길상하도다. 소력 1157 년, 토끼의 해, 제 7 주기의 해에 위대한 법을 받드는 국왕께서 끄룽텝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를 다스리시며 두셋 마하쁘라삿 궁전의 왕좌에 앉아 왕조 연대기를 교정하셨다.”

소력 1157 년은 불기 2338 년 [서기 1795 년]이며, 라마 1 세 재위 제 14 년이다.

또한 프라 짜오 쓰아[‘호랑이왕’]의 치세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편찬 설명이 있다.

“여기까지는 프라 펫라차와 프라 짜오 쓰아의 이야기를 이전에 작성한 것이다. 이제 국왕께서 짜오프라야 피핏피차이에게 나라이왕, 프라 펫라차, 프라 짜오 쓰아, 보롬마꼿왕, 쑤리야 아마린왕의 이야기를 각 치세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명하셨다.”

이 표현은 이전에 교정하여 편찬한 아유타야 부분이 프라 짜오 쓰아의 치세 마지막까지만 이어져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왕이 짜오프라야 피핏피차이에게 추가 집필을 명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존에 작성한 부분에 합쳐 고치지는 않고 따로 남겨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왕조 연대기가 어떻게 교정되고 편찬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원래의 기록이 어디까지 있었고, 이후 얼마만큼 추가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에 가까운 추정을 하기 어렵다.

판 짬타누맛 ‘썸’ 판본에는 브래들리 박사 판본 및 국왕 친필 판본과 다른 내용이 여러 곳에 있어, 시암 역사를 대조하고 조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독자들도 이를 반기리라 생각한다.

이번 출판에서 대조에 사용한 왕실 판본은 완전하지 않으므로, 일부 누락이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정돈된 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누락되었는지도 밝혔으며, 다른 책에 실린 내용 가운데 서로 모순되거나 뒷받침하는 부분을 적절히 각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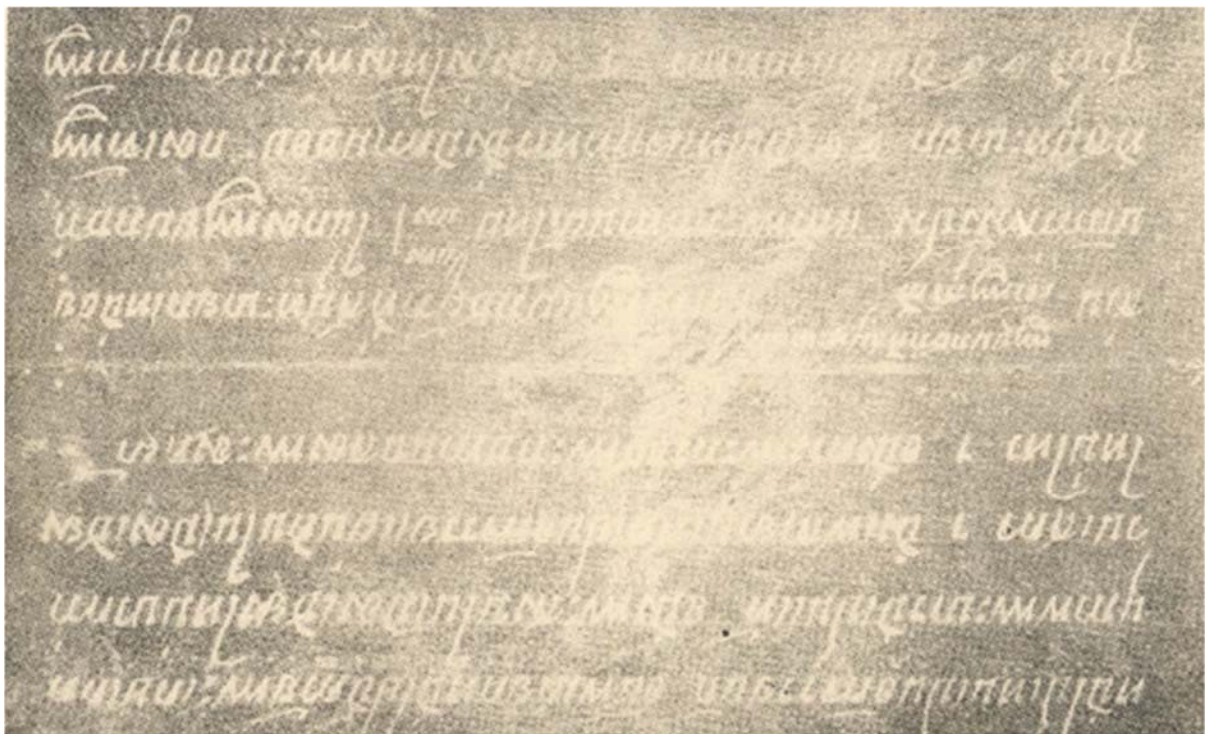
왕조 연대기 외에도 현존하는 불기 2316-2317 년[서기 1773-1774 년]의 왕명 공문 사본과 불기 2319-2320 년[서기 1776-1777 년]의 왕실 코끼리 장부를 모아 수록하였다. 이 자료들은 연대기를 보완하는 여러 증거가 된다.

또한 인명과 주요 사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 뒤에 주제별 찾아보기를 마련하였다.

태국 미술국

불기 2503 년 11 월 16 일[서기 1960 년 11 월 16 일]

원본 필사책의 필체 견본



[원본 ‘짜뭇 타이’의 필체를 촬영한 도판이다. 도판 속 글씨는 흐리고 겹쳐 보여 이 이미지로는 전체를 확실하게 판독하기 어렵다.]

톤부리 왕조 연대기- 판 잔타누맛 ‘점’ 판본

편찬 경위

길상하도다. 소력 1157 년, 토끼의 해, 제 7 주기의 해, 곧 불기 2338 년[서기 1795 년]에 위대한 법을 받드는 국왕께서 끄룽텝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를 다스리시며 두셋 마하쁘라삿 궁전의 왕좌에 앉아 왕조 연대기를 교정하셨다.

[원문 각주: 불기 2338 년은 랏따나꼬썬 왕조 라마 1 세 재위 제 14 년이다.]

왕조 연대기

개띠해 제 8 주기의 해, 소력 1128 년, 곧 불기 2309 년[서기 1766 년], 제 2 월 상현 7 일 토요일이었다.

아직 수도가 함락되기 전, 장차 깨달음을 얻을 보살의 싹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위덕을 지닌 국왕께서는 아유타야가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도시를 다스리는 자들과 백성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까닭에 재난이 닥칠 것이며, 승려와 바라문, 불교가 쇠퇴하고 사라질 것을 염려하셨다.

이에 태국인과 중국인 군사 약 1,000 여 명을 모았다. 이들은 여러 무기로 무장하였다. 주요 지휘관으로는 프라 치앙응언, 루앙 프롬쎄나, 루앙 피차이라차, 루앙 라차쎄나, 쿤 아파이팍디, 므 라차싸네하가 있었다.

그들은 왓 피차이로 나아가 진을 쳤다. 그곳은 길상한 장소였다.

국왕의 공덕과 불교를 수호하는 신들의 도움으로 큰비가 쏟아졌으며, 이는 승리를 알리는 길조가 되었다.

그 뒤 군대를 이끌고 왓 피차이를 출발하여 적군의 진영을 돌파하고—

원문 각주

다른 판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승려와 바라문, 불교가 쇠퇴하여 사라질 것을 염려하였다. 그는 본래 이름이 썬이며, 수레를 이용한 장사를 하던 사람으로 나라에 공을 세웠고, 딱의 지방 통치를 대행하고 있었다.”

이 삽입 내용은 아유타야 함락 직전의 사건을 다룬 다른 왕조 연대기 판본과도 연결된다. 해당 자료는 흰색 ‘싸뭇 타이’에 연필로 적은 제2 호 판본으로, 톤부리왕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함께 들어 있으며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로는 이 책 끝부분에 실린 왓 마이의 주지 마하호셋의 불교 예언이 있다.

—버마군의 진영을 돌파하여 토요일 저녁 무렵 밖으로 나왔다.

버마군과 힘껏 싸웠으며, 버마군은 그의 위세를 막아 내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에 군사들을 이끌고 무사히 반 카오마오 길을 따라 나아가 싸오한에 도착하였다.

밤이 깊어 두 번째 야경이 지난 무렵, 수도에서 불이 일어났다. 불은 타싸이에서 큰길을 따라 왓 차타탄까지 번졌으며, 불빛이 하늘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광경을 바라본 그는 승려와 바라문, 왕족, 관리, 백성과 불교를 생각하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을 약하게 하거나 힘쓰려는 뜻을 꺾지 않았다. 수도와 불교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세웠다. 신들은 그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노력할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튿날인 소력 1128 년 개띠해, 제 2 월 상현 8 일 일요일에 군대를 움직여 반 포쌈항에 이르렀다. 버마군이 뒤쫓아 왔으므로 중국인과 태국인 군사들에게 대비하도록 명하였다.

버마군이 도착하자 병력을 이끌고 힘껏 싸웠다. 버마군은 패하여 흩어졌으며, 많은 무기를 노획하였다.

그 뒤 반 프란녹에서 숙영하였다.

군사들이 식량을 구하러 주변으로 나갔다가 방강에서 오는 버마군을 만났다. 버마군은 그들을 뒤쫓아 숙영지까지 이르렀다.

이에 그는 말을 타고 기병 네 명과 함께 먼저 나가 버마군을 맞아 싸웠다. 나머지 병력은 총을 쏘며 양쪽 측면으로 나아가 협공하였다.

버마 기병 30 명이 무너져 물러나자, 뒤에 있던 보병 2,000 명도 흩어졌다.

군사들은 이처럼 놀라운 공덕의 힘을 보고 그를 왕이 될 만한 군주로 높이 받들었다.

[원문 각주: 반 포쌈항이라는 지명은 다른 판본에서 ‘반 포싸오 항’, 또 다른 판본에서는 ‘반 포쌍항’으로 적혀 있다.]

이튿날, 제 2 월 상현 9 일 월요일에 쿤 참난 프라이손과 코끼리 부대의 지휘관이 충성을 맹세하였다.

수코끼리 다섯 마리와 암코끼리 한 마리, 모두 여섯 마리를 바치고 그를 방동으로 안내하였다.

그는 그곳에 머물며 마을의 쿤·문·판 등 지방 책임자들을 불러 올바르게 타이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위덕을 믿지 않았다. 저항하며 해칠 뜻을 품고 병력을 모아 공격할 기회를 노렸다.

그 사실을 알았으나 원한을 품지는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는 것이며, 모두가 평안하게 지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군사들을 보내 올바른 도리에 따라 세 차례 설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하였다. 그는 그것이 그들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라고 말하였다.

개띠해 제 2 월 상현 10 일 화요일에 그는 말을 타고 군사 20 명을 이끌어 돌진하였다.

방동의 지방 책임자들은 1,000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나와 맞서 싸웠다. 앞뒤에서 총을 쏘아 그를 해치려 하였으나, 그의 위덕으로 어느 누구도 그를 맞히지 못하였다.

그는 말을 몰아 병력을 이끌고 공격하였다. 군사들에게 진영 안으로 올라가도록 하여 진영을 함락시켰다. 이어 방동의 병사들을 쫓아 돌격하고 칼로 공격하자, 그들은 진영을 버리고 흩어져 달아났다.

이 전투에서 수코끼리와 암코끼리 일곱 마리를 얻었으며, 은과 금, 곡식도 많이 확보하였다.

제 2 월 상현 11 일 수요일에 병력을 이끌고 나콘나옥으로 향하는 길목의 농마이쑹에 머물렀다.

이틀 동안 이동하며 숙영하여 반 나렝에 이르렀다. 반 나렝을 떠난 뒤 하루 만에 뿌라쨌부리에 도착하였다. 관문을 지나 동쪽에서 잠시 쉬며 음식을 지었다. 이후 병력을 들판 너머로 이동시켰다.

오후 늦은 무렵, 프라 치앙웅언과 쿤 피핏 와티가 몸이 지쳐 뒤흔들음을 알게 되었다.

[‘쿤 피핏 와티’는 원문에 적힌 관직명을 음역한 것으로, 정확한 독음은 추가 대조가 필요하다.]

이에 루앙 프롬썰나와 몽라우 캄보디아왕의 시종 세 명을 보내 말을 타고 돌아가 프라 치앙응언 일행을 재촉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제 2 월 상현 12 일 목요일에는 병사들을 숲으로 들어가게 하고, 농남의 거처에서 쉬었다. 음식을 지어 먹은 뒤 오후가 되어서야 프라 치앙응언이 도착하였다.

그는 크게 노하여 프라 치앙응언에게 매 30 대를 치도록 명하였다. 이어 그의 행동이 군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형을 명하였다. 그러나 각 부대 지휘관들이 그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청하였다.

오후 늦게 버마군이 지쳐 뒤흔진 사람들을 쫓아 죽이며 길을 따라 다가왔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나이 분미를 말에 태워 약 200 쉐 거리만큼 거슬러 가서 적을 정찰하도록 하였다.

나이 분미는 쪼로 하구에서 올라오는 버마군을 만났다. 육군과 수군이 함께 와서 강변으로 상륙하고 있었다. 깃발과 징소리를 보고 틀림없는 버마군임을 확인한 뒤 돌아와 자세히 보고하였다.

그는 길 양쪽에 대포와 소총을 매복시켜 두도록 명하였다. 식량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먼저 보내고, 자신은 군사 약 100 명과 함께 남아 버마군을 기다렸다.

오후가 더 지나 버마군이 도착하자, 그는—루앙 참난 프라이쑤, 프라 치앙응언, 나이 분미, 나이 퉁디, 나이 썸 및 병사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버마군을 유인하였다.

진영 밖 약 여섯에서 일곱 쉐 거리에 크고 작은 화포를 배치해 두었다.

버마군이 갈대밭을 향하여 대열을 이루고 계속 나아오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일제히 대포와 소총을 쏘도록 명하였다.

많은 버마군이 쓰러져 죽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다시 다가오자, 그는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다시 일제 사격을 명하였다. 또다시 많은 버마군이 쓰러졌다.

버마군이 증원 병력을 보내 다시 공격하자 세 번째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버마군은 흩어져 달아났다.

그는 북을 울리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도록 명하였다. 흩어진 버마군은 다시 모여 공격할 수 없었다.

이에 군대를 이동시키고 차례로 숙영하며 반 통랑, 따판통, 방플라소이를 거쳐 반 나끌르아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나이 끌람이라는 인물이 소규모 병력을 거느리고 통행을 막으며 공격할 뜻을 품고 있었다.

그는 모든 무장을 갖춘 코끼리에 올라, 붉은색 장총을 들고 용맹한 병사들과 함께 나이 끌람의 병력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의 공덕과 위세에 나이 끌람과 병사들은 두려워하며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어 절하며 복종하고, 그의 아래에서 일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나이 끌람은 그를 알맞은 거처로 안내하였다. 그는 재물을 하사하고, 올바르게 공정하게 처신하도록 타일렀다.

이튿날, 제 2 월 상현 14 일 토요일에 나이 끌람이 병사 1,000 명을 이끌고 그를 파타야까지 안내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다음 날 줌티엔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하룻밤 숙영하였다.

그 뒤 통카이피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사따힙에 머물렀다. 이어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숙영하고, 다음 날 힌동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는 남까오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라용의 통치 대행자와 관리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를 맞이하고, 곡식을 실은 수레 한 대를 바쳤다.

그는 뿌라두에 이르러 라용 통치 대행자에게 수석총 한 정을 하사하였다. 이후 왓 룸으로 가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식량을 운반하게 하고, 진영을 세우며 해자를 파도록 명하였다.

이때 나이 분룻 캔온과 찬타부리의 프라야의 동생 나이 분마가 찾아와 그의 아래에서 일하기를 청하였다.

그들은 은밀히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쿤 람 므쑹, 나이 통유 녹렉, 쿤 찰므앙 두앙, **루앙 폰쎄하**와 라용의 관리들이—서로 모의하여 병사 약 1,500 명을 모았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하려 합니다.”

[원문 각주: ‘루앙 폰쎄하’는 다른 판본에서 ‘루앙 폰싸네하’로 적혀 있다.]

그는 라용의 통치 대행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승려와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왕국을 일으켜 번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자비롭지 못한 마음으로 음모를 꾸미고 해치려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어떠한가?”

라용의 통치 대행자는 답하지 못하였다. 그는 그 태도를 보고 진상을 알아차렸다.

이에 루앙 프롬쎄나에게 그를 붙잡아 두도록 명하였다. 또한 모든 무기를 준비하고, 코끼리와 말, 대포와 소총을 배치하며, 요충지를 지키게 하였다.

밤이 되어 저녁 한 시각 남짓 지난 무렵, 반란군 병사들이 몰래 접근하여 진영의 두 면을 포위하였다. 그들은 크고 작은 화포를 쏘며 거세게 공격하였다.

그는 쿤 썸과 프링쎄아에게 병사들을 배치하여 각 위치를 지키게 하였다.

이어 자신은 태국인과 중국인 병사들을 이끌고 수석총을 들었다. 프라 치앙응언 타이나, 루앙 참난 프라이쎄, 루앙 프롬쎄나, 나이 분미, 나이 썸, 나이 쓰리쑹크람, 나이 낙, 타마롱 옴 등 태국인 병사들과, 루앙 피핏, 루앙 피차이, 쿤 찰므앙 쓰아라이, 므 톱, 루앙 프롬 등의 중국인 병사들이—칼과 장창을 들고 함께 나아갔다.

그는 진영 둘레를 직접 살피며 적군이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때 쿤 찰므앙 두앙과 병사 약 30 명이 왓 너언의 다리를 몰래 건너 왕의 진영에서 불과 네다섯 와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였다.

그는 일제 사격을 명하였다. 쿤 찰므앙과 많은 병사가 총에 맞아 다리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이어 병사들을 돌격시켜 적군을 베고 찢으며 진영을 무너뜨렸다. 반란군은 쓰러져 죽거나 패하여 달아났다.

병사들이 약 50-60 썸 거리까지 추격하자, 그는 승리의 신호를 울려 모든 병사를 진영으로 불러 모으도록 명하였다.

병사들은 적군의 진영에 불을 놓은 뒤 많은 무기와 은, 금, 의복, 곡식, 가족들을 확보하여 왕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는 라용에 머물며 군사들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병력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약 일곱에서 여덟 날이 지나자 태국인과 중국인 장수들을 모두 모아 다음과 같이 의논하였다.

“우리가 이번 일을 하는 것은 탐욕이나 부정한 뜻 때문이 아니다. 승려와 바라문, 모든 백성에게 이익을 주고 영예를 오래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찬타부리는 라용과 반 끌랭의 주민들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올바른 도리로 가서 협상하고,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복종하게 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승려와 백성에게 고통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장수들이 함께 의논한 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나이 분미, 나이 분룻 켄온, 그리고 찬타부리 프라야의 동생 나이 분마, 이 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이 의견에 동의하여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베트남인 나이 프억과 크메르인 나이 낙마도 자원하여 왕의 사절 세 사람을 배로 안내하였다.

그들은 라용의 하구를 떠나 돛을 올렸으며, 약 나흘 뒤 찬타부리 하구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아침 찬타부리의 프라야를 만나 올바른 도리에 따라 협상하였다.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는 관리들에게 명하여 사절들을 정성껏 대접하게 하고, 자신도 함께 복종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열흘 뒤 직접 나가 그를 맞이하고, 군대가 찬타부리에 들어오면 버마군에 맞설 일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찬타부리의 프라야는—노를 젓는 병사 20 명과 무기를 갖춘 전선 한 척을 마련하여 사절들과 함께 하구까지 내려와, 정박해 있던 배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배웅하였다.

그 뒤 찬타부리의 프라야와 왕의 사절들, 나이 프억과 나이 낙마는 신령의 사당으로 올라가 서로 맹세하였다.

그러나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속임수를 품고 다시 물었다.

“우리는 이미 우호를 맹세하였으니 서로 숨기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좋고 나쁜 사정을 내게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사절들은 이렇게 답하였다.

“우리는 이미 당신과 우호를 맺었으므로, 목숨을 잃더라도 맹세를 지켜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왕께서는 속임수가 없는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뜻은 참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비·연민·함께 기뻐함·평정이라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에 머물며, 장차 부처가 될 공덕을 이어 가려 하십니다. 먼저 해칠 뜻을 품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 절하십시오.”

사절들은 이렇게 말한 뒤 찬타부리 하구를 떠났다. 하루 낮과 하룻밤을 항해하여 라용 하구에 도착하였으며, 올라가 모든 사정을 보고하였다.

그는 그들의 보고를 모두 듣고 마음에 새겨 두었다.

약 열흘이 지나 약속한 때가 되었으나—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약속한 기한이 되었으나, 그는 찾아오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시켜 버 약 네 수레 분량을 배에 실어 라용으로 보내 바쳤다.

그러던 어느 날, 시종이자 방라몽의 임시 통치자인 나이 분므앙이 백성 스무 명을 거느리고 찾아왔다. 그는 버마군이 자신에게 서신을 주어 찬타부리로 보내면서, 금과 은으로 만든 공물 나무를 마련하여 포삼톤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프라·루앙·쿤·믄의 관원들과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믿지 않았다.

“버마 편에 속한 자가 계락을 꾸며 우리를 뒤따라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를 우리 군대 안에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도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으니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이 분룻 켄온도 그를 데려가 처형하겠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그는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살려 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버마군이 수도를 포위했을 때, 누가 처음부터 버마 편에 들고 싶었겠는가. 때가 그렇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그리한 것이다.

방라몽을 맡은 나이 분므앙은 예전부터 나를 섬기던 사람이니, 아직 나라의 일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라몽의 통치자와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서로 친분이 있다. 그에게 이 버마의 서신을 찬타부리의 프라야에게 가져가게 하겠다. 그러면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약속대로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맞이하여 함께 나라의 일을 도울 것이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직한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어 말했다.

“버마군이 톤부리에 진을 치고 수도를 포위하고 있을 때, 수도에서는 프라야 라차셋티에게 서신을 보낸 일이 있다. 프라야 라차셋티는 식량을 운반하는 군대를 보내 강어귀까지 왔으나, 버마군이 길목을 막고 있어 위험한 탓에 수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식량이 떨어져 되돌아갔다.

그러므로 푸타이맛은 이미 수도를 위해 공을 세운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공식 서신을 보내 프라야 라차셋티에게 병사를 이끌고 와서 톤부리에 주둔한 버마군을 함께 치도록 요청하겠다. 이는 앞으로도 그에게 공이 될 것이다.”

모든 지휘관이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에 그는 공식 서신을 작성하여 푸타이맛으로 보내도록 명령했다.

그가 라용에 머물고 있던 음력 넷째 달 상현 4일 일요일, 라용에서 돌아났던 적대 세력들이 거둬 몰래 들어와 소와 물소, 코끼리와 말을 훔쳐 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저들을 변방의 백성이라 생각하여 자비를 베풀고 돌보려 하였으며, 해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저들은 복종하지 않고 다시 나쁜 일을 꾀하는구나. 이처럼 불성실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그들의 업보일 것이다.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라용을 떠나 반쁘라쎄, 반카이, 반카, 반끌람, 반끌랭으로 나아갔다. 그곳에는 쿤 람 므쑹이 머물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그는 전쟁에 사용할 왕실 복장을 갖추고 병사들을 이끌어 돌격하였다.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며, 크고 작은 총포를 쏘아 적들을 흩어 달아나게 했다. 쿤 람 므쑹은 도망쳐 찬타부리의 프라야에게 몸을 의탁했다.

그의 병사들 가운데 므쑹, 방히아의 나이 분미, 나이 탠, 버마인 나이 므앙, 의원 나이 쏬, 나이 쏬의 아들 나이 분미 등이 붙잡혔다.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들이 전에 훔쳐 두었던 많은 코끼리와 말, 소와 물소, 수레도 되찾았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라용으로 돌아왔다. 병사들을 돌보고 크고 작은 총포와 여러 무기를 모았으며, 숲속으로 흩어져 피난한 백성들을 설득하여 많은 사람을 다시 모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찬타부리의 프라야를 기다렸다.

음력 넷째 달 상현 14일 일요일, 프라 피차이와 나이 분미가 푸타이맛의 강어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공식 서신과 서양식 왕실 의복을 가지고 올라가 프라야 라차셋티에게 전달하고, 받은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을 설명하였다.

프라야 라차셋티는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계절에는 바람 때문에 제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력 여덟째 달이나 아홉째 달, 열째 달에 이르면 반드시 병사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나라의 일을 돕겠습니다.”

이어 음력 넷째 달 상현 15 일 일요일, 사절들이 답서와 공물을 가지고 라용의 강어귀로 돌아왔다. 나이 분미는 중국인 군인 옹 까이썩과 공물을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와 알현하였다.

원문 주: 앞의 날짜를 다른 판본에서는 ‘하현 14 일’이라고 적었다. 사절들이 돌아온 날짜는 편집 주석에서 ‘음력 넷째 달 하현 5 일 토요일’이어야 한다고 바로잡고 있다.

그는 각 부대의 지휘관을 모두 모이게 한 뒤 말했다.

“우리가 지금 목숨까지 바쳐 싸우려 하는 것은 의지할 곳 없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땅이 평온하고 풍요로워져 불교가 자리 잡게 하려면, 무엇보다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촌부리에 있는 나이 통유 녹력은 악행을 저지르며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을 해치고 억압하고 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의탁하려는 사람들도 찾아오지 못한다. 나이 통유 녹력이 길목마다 가로막아 모든 사람의 왕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서 나이 통유 녹력을 가르치고 다스려, 먼저 올바른 도리에 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승려들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휘관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음력 여섯째 달 상현 5 일 금요일, 그는 병사들을 출동시키고 육로로 나아가 반농문에 머물렀다. 정찰병을 보내 살피게 하니 나이 통유 녹력이 그곳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병사들과 무기, 크고 작은 총포를 모두 준비하게 한 뒤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도시에서 약 100 쉼 떨어진 왓 루앙에 머물렀다.

그는 나이 통유 녹력과 친분이 있던 나이 분룻 켄온과 반카이의 나이 친에게 가서 올바른 이치로 타이르라고 명령했다. 나이 통유 녹력은 순순히 복종하였다. 나이 분룻과 나이 친은 그를 데리고 왓 루앙으로 돌아와 알현하게 했다.

나이 통유 녹력은 충성을 맹세한 뒤 그를 촌부리로 모셨다. 그는 중국식 누각에 머물렀다.

이후 나이 통유 녹력이 왕이 탄 코끼리를 인도하고, 시종 나이 분미가 코끼리 뒤쪽의 조련사를 맡아 촌부리를 둘러보았다. 나이 통유 녹력은 지방 관원들을 데려와 경의를 표하게 했다.

그는 나이 통유 녹색에게 ‘프라야 아누랏차부리 시 마하사뭇’이라는 관직을 내렸다. 다른 관원들도 촌부리의 직제와 위계에 맞추어 임명하였다.

그에게 은으로 장식한 칼 한 자루, 붉은 바탕에 큰 무늬가 있고 가장자리를 금으로 두른 단추가 달린 켄카프 직물 옷 한 벌, 보석으로 장식한 금 허리띠 하나를 하사하고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그대는 전에 저질렀던 불의하고 부정한 행동을 버리고, 그대의 지위에 걸맞게 성실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 그러면 앞으로도 명예가 이어지고, 훗날의 복덕이 될 것이다.”

이어 가난하고 곤궁하여 쌀과 식량이 부족한 승려와 백성들을 돕도록 돈 두 창을 내주었다. 그리고 프라야 아누랏차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따뜻하게 받아들여 먹이고 돌보아, 병력으로 삼도록 하라. 마음을 함께하여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시기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두지 말라. 아무런 사고 없이 내 진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 보내라.

불교를 보살피고, 백성들이 각자의 고장에서 생업을 꾸릴 수 있도록 하라. 도둑이나 악한 자가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그는 또한 장례를 맡은 사람들에게 돈과 식량을 주고,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찾아 화장하게 했다. 승려들이 장례 때 행하는 방쑤꾼 의식을 위해 천도 하사하였다.

촌부리의 많은 거지와 떠돌이들에게도 돈과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저승의 아귀들에게 회향하며, 장차 위없는 깨달음과 일체지에 이르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금요일, 그는 다시 라용으로 돌아왔다.

한편 자신이 나와 맞이하겠다고 맹세했던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불성실한 쿤 람 문쑹이 해를 끼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다.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진지와 성문, 망루와 방어 시설을 정비하고, 병사들과 무기 및 크고 작은 총포를 모두 준비했다. 그런 다음 승려 네 명을 보내 그를 도시 안으로 초청하고, 들어오면 붙잡으려는 계락을 꾸몄다.

그러나 네 승려는 제때 만나지 못했다. 그가 먼저 촌부리로 떠났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라용에 머물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라용으로 돌아오자 승려들은 아침에 들어와,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전하라고 한 말을 모두 아뢰었다.

그는 깊고 예리한 분별력으로 생각한 끝에, 중생들의 업보가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휘관들에게 물었다.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승려들을 보내 우리를 맞이하게 한 일에, 좋지 않은 뜻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지휘관들은 함께 의논한 뒤 모두 같은 의견을 아뢰었다.

“저희는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해를 끼칠 뜻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가는 것이 옳겠는가, 가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지휘관들은 모두 가야 한다고 아뢰었다.

“가시면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해를 끼치려 할 경우, 그를 다스려 악한 성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충성을 지키고 있다면, 가르침을 내려 올바른 도리에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려와 백성들이 모두 평안해지고, 불교도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 목성과 관련된 길한 때가 되자 그는 모든 병사에게 무장을 갖추고 라용을 떠나도록 명령했다. 네 승려가 길을 안내하였다.

닷새 동안 이동하며 밤을 보내고 반플로이웬에 도착했다. 월요일에는 찬타부리 가까이로 진군했다.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루앙 빨랏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 하나를 보내 군대를 인도하게 했다. 이는 본대를 도시 남쪽으로 돌아가게 한 뒤 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병사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공격하려는 계략이었다.

그는 이를 알아차리고 시종 나이 분미에게 말을 타고 달려가, 선봉대가 루앙 빨랏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대신 큰길로 돌아와 타창 성문으로 곧장 향하게 했다.

그는 찬타부리 외곽의 왓 깨우에 머물렀다. 병사들에게 왓 깨우의 위하라를 둘러싸고 진을 치게 하고, 자신도 그곳에 머물렀다.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병사들을 각자의 방어 위치에 배치한 뒤, 나루를 맡은 쿤 프롬마티반과 나이 람, 외래인 나이 깨우, 타마롱 프롬, 외래인 나이 맥을 보내 그를 맞이하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우리를 도시 안으로 초대할 것은 관례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윗사람더러 아랫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찬타부리의 프라야에게도 불길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들어갈 수 없다. 찬타부리의 프라야에게 먼저 이곳으로 나와 우리를 만나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일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적인 쿤 람 므쑹이 찬타부리의 프라야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분노와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쿤 람 므쑹을 보내 우리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밝히게 한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들어갈 것이다.

나는 찬타부리의 프라야를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동생처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보복할 뜻은 없다. 그에게 우리를 향한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나는 이 자비로운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는 쿤 프롬마티반에게 상을 내렸다.

쿤 프롬마티반은 경의를 표하고 물러나 찬타부리의 프라야에게 돌아가, 받은 말을 빠짐없이 전했다.

이에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타마롱 프롬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 하나를 시켜 음식을 가지고 나가, 길을 안내했던 네 승려에게 건네게 했다. 네 승려는 그 음식을 가지고 나와 그에게 바쳤다.

승려들은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한다고 전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찬타부리에는 이제 심부름시킬 재가자가 없는가? 어찌하여 승려들만 보내는가?”

이어 승려들에게 말했다.

“이 일은 이미 쿤 프롬마티반에게 전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 찬타부리의 프라야에게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쿤 람 문쑹은 나의 적이며, 찬타부리의 프라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아직 젊어 그릇된 생각에 빠지고, 저 악한 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아끼던 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진실한 우호 관계를 지키려 한다면, 쿤 람 문쑹을 밖으로 보내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해야 합니다.”

승려들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 찬타부리의 프라야에게 이 말을 전했다.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다시 루앙 팸랏을 보내 다음과 같이 아뢰게 했다.

“찬타부리의 프라야가 충성과 화합의 뜻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쿤 람 문쑹을 밖으로 보내고자 하나, 그가 왕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적이었으므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이미 진실한 충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쿤 람 문쑹이 도시를 지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방비를 더욱 튼튼하게 하라. 나는 반드시 공격하여 빼앗을 것이다.”

그는 모든 병사에게 밥을 지어 먹도록 하고, 남은 음식은 버리며 밥술과 국술을 모두 깨뜨리라고 명령했다.

“오늘 밤 반드시 찬타부리를 함락시켜야 한다. 내일 아침 먹을 쌀은 도시 안에서 구하라. 그러지 못하면 모두 함께 죽을 것이다.”

쫄라삭까랏 1129 년, 돼지해인 불기 2310 년, 곧 1767 년 음력 일곱째 달 상현 7 일 일요일, 제 3 야경이 되었다. 토성의 기운이 약해져 장애가 없는 길한 때였다.

그는 군대를 움직여 북동쪽으로 향하게 했다. 태국인과 중국인 병사들을 각 성문으로 은밀히 보내 배치하고, 신호를 내릴 때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며 함성을 지르도록 했다.

그는 왕실 코끼리 팡 키리꾼차라를 타고 큰 성문을 들이받아 부수려 했다. 성문과 성벽 위의 방어 시설을 지키던 병사들은 크고 작은 총포를 빗발치듯 쏘았다. 그러나 아군 병사 가운데 맞은 사람은 없었다.

총알이 왕이 탄 코끼리의 배 아래로 지나가자, 코끼리 조련사는 코끼리를 제어하여 뒤로 물러나게 했다. 왕은 노하여 칼을 들어 조련사를 처벌하려 했다. 조련사가 용서를 빌자, 그는 긴 창으로 팡 키리꾼차라를 찢어 다시 몰아붙였다.

코끼리는 성문을 들이받아 무너뜨렸다. 코끼리 앞에 있던 병사들이 그 틈으로 들어가, 미리 정해 둔 신호대로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타창 성문과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은 놀라 흩어져 도시 밖으로 달아났다. 찬타부리의 프라야도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푸타이맛의 강어귀로 도망쳤다.

태국인과 중국인 병사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가족들을 확보하고, 금과 은, 재물과 곡식, 여러 종류의 총포와 탄약, 무기를 대량으로 거두었다.

그는 찬타부리에 머물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공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 관직과 포상을 내렸다.

원문 주: 찬타부리의 프라야는 훗날 불기 2314 년, 곧 1771 년에 푸타이맛에서 붙잡혔으나 처형되지는 않았다.

쫄라삭까랏 1129 년 돼지해의 어느 월요일, 그는 천 명이 넘는 병사를 거느리고 육로로 출정했다. 그의 큰 복덕으로 비가 이레 낮과 이레 밤 동안 내렸다.

그는 프라 피차이와 루앙 라차나린에게 지휘를 맡겨, 배 선 척이 넘는 수군과 병사들을 출동시켰다. 본대는 육로로 반통야이에 이르렀고, 그는 배에 올라 적을 하룻밤 동안 포위했다.

상인들과 정크선의 선주들은 여전히 복종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각 부대 지휘관에게 정크선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전투는 약 반나절 동안 계속되었다. 정크선의 상인들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본대에 패하였다. 그 결과 많은 물품과 금은보화를 얻었다.

정크선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중국인 찌암은 복종하고 충성을 바쳤다. 그는 딸을 데려와 왕에게 바쳤다.

그 무렵 왕은 찬타부리로 돌아와 머물렀다. 그곳에서 전선을 건조하여 백 척이 넘는 배를 마련했다.

쫄라삭까랏 1129 년 돼지해, 불기 2310 년인 1767 년, 왕은 수도가 이미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승려와 바라문, 왕족과 대신, 관리와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불교도 쇠퇴하고 훼손되었다.

버마군이 프라 나이퐁을 도시의 통치자로 세워 둔 데다가, 수도에 속해 있던 크고 작은 지방의 통치자들도 사람들을 모아 오만하게 굴며 각자 우두머리를 자처하였다. 저마다 명령을 받들도록 하며 세력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도적과 여러 기근이 생겨났으며,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에 그는 많은 병사와 무기를 준비하여 찬타부리를 떠나 수도로 진군하였다.

같은 돼지해 쫄라삭까랏 1129 년, 불기 2310 년의 어느 날, 아침 두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촌부리에 도착했다.

그는 프라야 아누랏차, 루앙 폰, 쿤 인치앙의 죄를 법에 따라 심판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도적질을 하고 상인들의 정크선을 공격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왕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였다.

그는 각자의 지위와 공적에 합당한 사람을 임시 통치자와 지방 관원으로 임명하여 촌부리를 지키게 했다.

이후 같은 해에 병사들을 이끌고 사뭇쁘라칸의 강어귀에 이르렀다. 다음 날 새벽에는 급히 톤부리로 진군하여 공격하게 했다.

한 야경 남짓 지났을 때, 톤부리를 지키던 관원들은 달아나 포삼톤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지휘관인 수끼에게 상황을 알렸다.

수끼는 버마인과 몬족, 태국인 병사들로 수군을 편성하고, 몽야를 지휘관으로 삼아 파니앗에서 길목을 막게 했다.

그날 밤, 화약과 초석을 실은 프라야 깔라홈의 배가 침몰했다. 왕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잘못을 저지른 프라야 깔라홈과 여러 군사 관원들을 처벌했다.

원문 주: 『옛 수도 사람들의 증언』에는 아유타야가 불기 2310 년인 1767 년에 버마군에게 함락되기 전, 프라야 폰라텡이 북부의 타끄라판 방면으로 보낸 군대 가운데 ‘루앙 깔라홈’이라는 지휘관이 있었다고 한다.여기의 인물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며, 톤부리 시대 말기의 프라야 팻차분 파이와 관련된 인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밤중에 서둘러 군대를 출발시키라고 명령했다. 포삼톤의 몽야 부대는 태국군이 수도에 도착한 것을 알고 달아났다.

다음 날 상현 12 일, 아침 세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포삼톤의 동쪽 진영을 공격했다. 버마군은 무너져 다른 진영으로 달아났다.

그는 사다리를 만들어, 프라 나이퐁이 있는 서쪽 진영을 공격하게 했다. 프라야 피핏과 프라야 피차이의 부대를 선봉으로 삼아 왓 끌랑에 진을 치게 했다. 적의 진영에서 일곱 켄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그의 위세에 적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프라 나이퐁 수끼의 진영에서 빠져나와 달아났다.

프라 나이퐁 수끼는 놀라 두려워하며, 짜오프라야 시탐마티랏의 지위에 있던 프라 티베트 보리락을 보내 경의를 표하고 충성을 바치게 했다. 모두 왕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며, 관저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하였다.

그는 병사들에게 백성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곳에서 왕족과 대신들이 의지할 곳 없이 몹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프라 나이퐁과 크고 작은 대신들에게 많은 재물과 여러 종류의 옷을 나누어 주었다.

이어 쑤리얏 아마린 왕의 시신을 모셔 포삼톤으로 운구하고 화장하였다. 그 뒤 대신들과 앞서의 프라 나이퐁에게 관직을 내려 계속 맡게 했다.

또한 중국인들을 보내 톱부리를 설득하여 복종하게 했다. 일이 이루어지자, 고통을 겪던 왕족들과 왕실 일가를 맞아 톱부리로 데려와 돌보게 했다.

쥘라삭까랏 1130 년, 쥐해인 1768 년, 그는 기근과 도적,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았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처참한 아귀나 귀신과 같았다. 그는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끼고, 왕위를 지키는 일에 마음이 지쳐 찬타부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승려와 바라문, 대신과 백성들이 함께 간절히 청하였다.

왕은 이러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차 위없는 깨달음과 일체지에 이르는 인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고 톱부리의 궁전에 계속 머물렀다.

그때부터 그는 중생과 불교를 향한 자비와 노력을 기울이느라, 잠을 자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지낼 틈도 없었다.

왕족과 승려, 대신과 백성, 거지와 떠돌이, 온 시암 땅의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하사품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 수는 만 명이 넘었다.

태국인과 중국인 군인 및 문관들에게는 한 사람당 쌀 한 통씩을 꾸준히 지급했다. 이는 한 사람이 스무 날 동안 먹을 분량이었다.

당시에는 아직 농사지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식량이 몹시 귀했다. 정크선으로 들어온 쌀은 한 통에 세 바트인 경우도 있었고, 한 뭉툼인 경우도 있었으며, 다섯 바트인 경우도 있었다.

그는 지혜와 자비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려 목숨을 보전하게 했다. 옷과 장신구, 돈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이든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라도 와서 쌀과 생선과 식량을 풍족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 준다면, 설령 그 사람이 나의 팔 하나를 원한다 해도 잘라 내어 줄 수 있다.”

그의 자비로운 뜻은 이처럼 진실하였다.

쫄라삭까랏 1130 년 귀해, 불기 2311 년인 1768 년, 버마의 지휘관 포망은 수군과 육군을 합쳐 이천 명이 넘는 병사를 이끌고 다시 침입했다. 그는 중국인들의 방궁 진영을 포위하여, 함락이 가까울 정도로 몰아붙였다.

왕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더없이 길한 기회를 만난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약 스무 척의 배와 병사들을 준비하게 하고, 무기를 갖춘 왕실 배 ‘쭈완 마하피차이 나와’에 올랐다.

길한 때가 되자 마음을 굳히고, 그날 밤 군대를 거느려 수로로 빠르게 나아갔다. 마치 백조의 왕이 황금빛 백조들을 이끌고 나는 듯하였다.

버마의 수군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왕은 이를 보고 왕실 배와 모든 군선을 급히 돌려 추격하며, 총포와 탄약을 퍼부었다.

버마군이 쓰러져 패주하며 본대로 올라가자, 그는 큰 대포를 쏘게 했다. 버마군은 놀라 무너졌고, 많은 병사가 태국군에게 베이거나 찢려 강물 속에서 죽었다.

일부는 육지로 달아나 몸을 숨겼으나 공포에 떨었다. 먼 변방까지 달아날 수 있었던 사람은 매우 적었다.

태국군은 많은 무기와 전선, 추격용 배를 거두었다. 왕의 명성과 위세는 널리 퍼졌다. 마치 네 발 달린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는 사자의 왕과 같았다.

그 무렵 큰 지방과 작은 지방에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적질을 하며, 왕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었던 불성실하고 불의한 자들도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여러 공물을 가지고 와 바쳤다. 왕은 각자의 처지와 공로에 합당하게 금은과 옷, 관직을 내려 주었다. 충성의 물을 마시고 맹세하게 한 뒤, 악한 성질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에 따르도록 가르쳤다.

그때 상인들은 평안하게 장사하며 풍족한 식량을 누렸고, 여러 종류의 선행과 공덕을 쌓을 수 있었다.

승려들에게도 필요한 물품이 넉넉히 갖추어져 건강하게 생활하며, 출가자의 의무에 따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해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불교가 온전하고 번성하려면 네 부류의 불교 공동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승려들은 여전히 네 가지 청정한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는 승왕과 고위 승려들을 임명하여 모든 승려를 엄하게 지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심을 내어 군인과 민간 관원들에게 품삯을 주고 위하라와 승려들의 거처를 짓게 하였다. 승방은 이백 채가 넘었으며, 많은 왕실 재물이 들어갔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전하였다.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가다듬어 수행하시고, 네 가지 청정한 계율과 율장의 규정을 온전히 지켜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복과 음식, 거처와 약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이 부족하다면, 제가 신도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님들께서 불교의 계율을 온전히 지키신다면, 설령 제 살을 보시해 달라고 하셔도 저는 살과 피를 내어 보시할 수 있습니다.”

그해 그는 불교가 번성하고 오래 지속되려면, 삼장경을 배우는 경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불교 업무를 맡은 관청에 명령하여 삼장경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승려들의 명부를 작성하게 했다. 그 수가 많았다.

그는 그들에게 고운 천으로 만든 삼의를 공양하고, 공부한 정도에 따라 승려와 사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날마다 왕실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였다. 포살일에는 계율을 지켰으며, 모든 빈민을 위해 정기적인 구호 식량을 마련하였다.

그해 그는 크고 작은 군대를 거느리고 핏사눌록을 평정하기 위해 북쪽으로 출정했다. 꺼이차이 지역에 이르자 핏사눌록의 프라야가 일을 꾸며 루앙 꼬싸, 곧 양에게 병사들을 맡겨 맞서게 했다.

왕은 모든 병사를 이끌고 적과 싸웠다. 적은 총탄을 빗발치듯 쏘았다. 그 가운데 한 발이 왕의 왼쪽 다리에 맞아 살갓을 스쳐 지나갔다. 이에 그는 군대를 물려 톤부리로 돌아오게 하였다.

한편, 수도가 함락되기 전 뿌라쑤부리에서 버마군에게 패했던 끄롬몬 텡피뵈은 피난민들을 데리고 나콘랏차시마 관할의 콕프라야 관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프라 피몬송크람과 도시의 통치자인 루앙 나린은 약 육천에서 칠천 명을 이끌고 찬특 관문을 통해 올라갔다.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는 그들을 급습하여 모두 흩어지게 하고, 가족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끄롬몬 텡피뵈은 루앙 마하피차이와 나이 통감을 시켜 서양식 모자 하나, 중국식 비단옷 하나, 몸에 두르는 천 두 장을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에게 보내 주었다.

약 열나흘에서 보름이 지난 뒤, 루앙 폰이 나와 아뢰었다.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가 크메르인 사백 명을 징발하여, 전하를 붙잡아 수도로 보내려 합니다.”

끄롬몬 텡피뵈은 달아날 계획을 세웠으나, 몸 뿌라양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돈 다섯 창과 천 열 묶음을 요청하여 열두 마을의 촌장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렇게 사백사십 명을 모았다.

개해인 쯔라삭까랏 1128 년, 불기 2309 년, 곧 1766 년 음력 여덟째 달 상현 14 일, 끄롬몬 텡피뵈은 몸 뿌라양과 루앙 마하피차이, 루앙 뿌랍에게 백성 서른 명 남짓을 맡겨 보내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게 했다.

다음 날은 불교 의례일이었다. 나콘랏차시마의 프라야가 왓 분에 공덕을 쌓으러 나올 예정이었으므로, 그들은 포위하여 그를 붙잡아 죽였다.

그러나 프라야의 동생인 루앙 팽은 말을 타고 달아났다.

그들은 약속한 신호대로 대포를 쏜 뒤, 가족들을 모아 끄롬몬 텡피뵈을 맞아들였다.

닷새쯤 지나 루앙 팽은 프라 피마이를 설득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나콘랏차시마를 포위했다. 나콘랏차시마에서는 병사들을 방어 시설에 배치하여 나흘 동안 맞서 싸웠다.

루앙 팽의 군대는 왓 피압의 방어 진지를 돌파했다. 몸 다라, 몸 타라, 프라 피차이라차, 루앙 마하피차이를 붙잡았고, 많은 관원과 부대 지휘관을 죽였다.

나이 갠은 끄롬몬 텡피핏의 아들인 몸 우본을 아내로 삼았고, 나이 윤은 썸과 함을 아내로 삼았다.

루앙 팽은 끄롬몬 텡피핏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프라 피마이가 그를 데리고 피마일로 갔다.

끄롬몬 텡피핏과 프라 피마이는 뜻을 같이하였다. 이에 프라 피마이를 프라야 시쭈라웁으로 삼고, 그의 맏아들 나이 썸을 프라야 마하몬뜨리로 임명했다. 프라야 마하몬뜨리의 동생인 프라야 너이는 프라야 워라웁싸티랏으로 삼았다.

그 뒤 프라야 시쭈라웁과 프라야 마하몬뜨리, 프라야 워라웁싸티랏은 함께 루앙 팽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마침 루앙 팽이 공덕을 쌓기 위해 연극 공연을 열었다. 세 사람은 무예에 능한 사람 열 명가량과 백성 천 명을 데리고 나콘랏차시마로 내려왔다.

세 프라야는 루앙 팽과 함께 앉아 공연을 보았다. 때가 되자 프라야 시쭈라웁은 루앙 팽을 베고, 프라야 마하몬뜨리는 나이 갠을 베었으며, 프라야 워라웁싸티랏은 나이 윤을 베었다. 세 사람은 모두 죽었다.

피마이의 병사들도 나콘랏차시마의 지휘관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후 프라야 시쭈라웁은 프라야 워라웁싸티랏을 반쪼허에 머물게 하여 나콘랏차시마를 지키도록 했다. 자신은 프라야 마하몬뜨리와 함께 피마일로 돌아갔다.

그들은 수도에 남아 임시로 지키고 있던 프라 나이꽁과 몽야도 피마일로 데려오게 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거느려 올라갔다.

끄롬몬 텡피핏은 프라야 워라웁싸티랏에게 한쪽 길에서 군대를 맞아 막게 했다. 왕은 프라 라차린과 프라 마하몬뜨리에게 그를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왕 자신은 군대를 이끌고 반쪼허 방면으로 공격하였다. 프라야 시쭈라웁과 프라야 마하몬뜨리를 붙잡아 처형하게 했다. 끄롬몬 텡피핏은 왕족에게 적용하는 관례에 따라 백단향 몽둥이로 처형하도록 했다.

프라야 위라왕싸티랏은 패하여 씨엠립으로 돌아났다.

왕은 프라 라차린과 프라 마하몬뜨리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씨엠립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도시를 함락시켰으나, 프라야 위라왕싸티랏은 다시 달아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프라 라차린과 프라 마하몬뜨리는 군대를 거두어 톤부리로 돌아왔다.

왕은 그들의 공에 따라 프라 라차린을 프라야 아파이론나릿으로, 프라 마하몬뜨리를 프라야 아누치라차로 승진시켰다. 두 사람에게 좌우의 왕실 경호 업무를 맡겼다.

쥐해의 어느 화요일, 저녁 무렵부터 한 시각쯤 지난 때에 달이 빛을 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다른 화요일, 음력 넷째 달 상현 1 일, 한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은 관원들을 불러 알현하게 했다.

그는 중국인 썽이 불상을 매입한 일에 관하여 밝히면서, 자신의 통치가 정직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불교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평정의 마음인 우뻑카와 사무량심을 세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때 오랫동안 땅이 흔들리는 기이한 지진이 일어났다.

원문 주: 이 날은 왕의 즉위식 날이다. 『연대기 총집』 제 8 부에 실린 점성가의 기록과 왓 보롬니왓의 프라 아마라피락킷, 곧 꺾의 점성 기록과 일치한다. 반면 『연대기 총집』 제 39 부 75 쪽의 기록과, 시종 나이 쭈안이 불기 2314 년인 1771 년에 지은 왕의 공적을 찬양하는 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쭈라삭까랏 1130 년, 어느 토요일의 제 2 야경에 다시 지진이 일어났다.

원문 주: 두 번째 지진은 음력 넷째 달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넷째 달의 기록 뒤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셋째 달의 기록 앞에 배치되어 있다. 지진에 관한 내용을 한데 모으려 하여 월별 순서대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음력 여섯째 달의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라오 지역의 톰삭에서 사람들이 왕의 보호를 청하러 왔다. 코끼리 한 마리와 말 네 마리를 바쳤다.

음력 셋째 달의 어느 일요일, 쌀값이 한 궤안에 두 창까지 올라 백성들이 곤궁해졌다. 왕은 높고 낮은 모든 관원에게 건기 벼농사를 짓게 했다.

음력 넷째 달 상현 3 일 월요일, 캄보디아와 푸타이맛 강어귀의 정세에 관한 보고가 들어왔다.

왕은 항만과 대외 업무를 맡은 관청에 명령하여 프라쁘라당의 강어귀와 타췌, 매끌룽에 진영을 만들게 했다.

그 무렵 프라야 아누치라차를 짜오프라야 욀마랏으로 승진시켰다.

원문 주: 실제로는 '프라야 욀마랏'에 임명되었거나, 욀마랏의 직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짜오프라야의 지위까지 오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뒤의 기록에서도 계속 '프라야 욀마랏'이라고만 부른다.

음력 넷째 달에는 쥐들이 극성을 부려 창고의 쌀을 먹고 여러 물품을 갉아 망가뜨렸다.

이에 왕은 관원과 백성들에게 쥐를 잡아 도성 치안을 맡은 관청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 뒤 쥐떼는 잠잠해졌다.

쭈라삭까랏 1131 년, 소해인 불기 2312 년, 곧 1769 년의 어느 월요일, 끄롬몬 텡피핏의 자녀인 몸짜오 우본과 짜오파 췌의 자녀인 몸짜오 침, 그리고 궁중의 여자 배우 네 명이 서양인 시종 두 명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심문한 결과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에 왕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본받지 못하도록 공개적인 형벌을 명령하였다. 남녀 모두 팔과 머리를 자르고 가슴을 갈라 처형하도록 했다.

원문 주: 점성가의 기록에는 쭈라삭까랏 1137 년, 월요일 음력 열째 달 상현 10 일에 “궁중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적혀 있다. 끝자리의 7 이 1 로 잘못 옮겨져 1131 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편집자는 점성가의 기록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 기록의 표현은 궁중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지위에서 물러났다는 뜻일 뿐, 처형되었다는 뜻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어느 토요일, 음력 여덟째 달 상현 7 일, 왕은 나콘시탐마랏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짜오프라야 짜끄리, 프라야 욀마랏, 프라야 췌차부리, 프라야 아파이론나랏의 네 지휘관이 선봉을 맡아 육로로 출발했다. 병력은 오천 명이 넘었다.

그들은 차이야와 타캄을 지나 타막 진영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프라야 췌차부리와 프라야 시피핏이 전사했다.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아들 락사마나도 나콘시탐마랏 군대에 붙잡혀 끌려갔다. 선봉대는 군대를 물려 차이야로 돌아와 머물렀다.

프라야 욀마랏은 보고를 보내, 짜오프라야 짜끄리가 반역할 뜻을 품고 나라의 일에 진심을 다하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왕은 지혜롭게 살피, 작전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험뜯게 된 것임을 알아차렸다.

“이 일은 내 복덕과 책임에 달려 있다. 대신들만 보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문 주: 라마 3 세 시대의 왕실 계보 기록에서는 이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이름을 ‘뭇’이라고 한다. 여기의 프라야 욘마랏은 훗날 라마 1 세 시대의 부왕인 마하 쑤라싱하났이며, 프라야 아파이론나릿은 훗날의 라마 1 세, 프라 쏘타웃파 쥘라룩이다.

이에 왕은 만 명이 넘는 병사를 거느리고 수로로 직접 출정했다.

그는 왕실 배 ‘마하피차이 쑤완나와’에 올랐다. 배는 길이 열한 와, 입구의 폭이 세 쪽 남짓이었으며, 노를 젓는 사람 스물여덟 명이 배치되었다. 군대는 모든 무기를 갖추었다.

어느 일요일, 음력 여덟째 달 상현 9 일 아침 세 시각 무렵에 방탈루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폭풍이 일어나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쳤다.

병사들을 태운 배 가운데 본대와 선봉의 일부가 흩어져 만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다.

왕은 뻔파, 곧 지역 수호신을 위한 사당을 세우게 하고, 제물을 내려 신에게 제사를 올리도록 했다.

그는 전생과 현생에 쌓은 자신의 공덕을 의지하여 진실의 서원을 세웠다. 그 공덕의 힘으로 바람과 파도가 기적처럼 잔잔해졌다.

그날 그는 다시 출발하였다. 작은 배를 타고 뒤따르던 관원들도 편안하게 항해하였으며 아무런 위험을 겪지 않았다.

소해 음력 아홉째 달에 타캄에 도착했을 때, 남쪽 하늘에 꼬리를 가진 별이 나타났다.

음력 열째 달 하현 6 일, 아침 세 시각에 왕은 나콘시탐마랏을 공격했다. 그의 큰 복덕과 위세에 나콘시탐마랏의 병사와 백성, 대신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더는 맞서지 못하고 패하여 달아났다.

그때 군관과 병사들은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가 온갖 장식을 갖추어 풀어 둔 수코끼리 ‘플라이 펫’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코끼리를 붙잡아 왕에게 바쳤다.

왕은 코끼리에 올라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례를 행하고, 플라이 펫을 타고 나콘시탐마랏으로 들어갔다.

아군 가운데서는 친위 군관 나이 펫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을 뿐이었다.

왕은 왕족과 궁중 여성, 많은 금은보화와 의복, 장신구를 확보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육군과 수군의 병사들은 아직 제때 도착하지 못했는데도, 왕의 공덕과 위력으로 기이하게 승리를 이루었다고 기록하였다.

육군과 수군이 모두 도착하자 왕은 죄를 따져 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가 왕자와 왕녀, 재물을 데리고 탱파로 달아났으므로, 짜오프라야 짜끄리와 짜오프라야 피차이라차에게 육군과 수군을 서둘러 이끌고 뒤쫓아가서 그를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를 붙잡지 못한다면 목숨을 빼앗는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음력 여섯째 달 하현 11 일 금요일, 저녁 두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수로로 이동했다. 여러 곳에서 밤을 보내며 나아가 송클라에 도착하였다.

물이 줄어들어 왕실 배가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큰 복덕으로 물이 불어나 수로를 가득 채웠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떼도 나타나 모든 관원의 눈에 분명히 보였다. 왕은 위엄을 갖추어 나아갔으며, 이는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수군을 지휘한 짜오프라야 짜끄리와 육군을 지휘한 짜오프라야 피차이라차는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를 뒤쫓아 탱파에 이르렀다.

그들은 중국인과 외라인들을 붙잡아 물어본 끝에,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가 빠따니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짜오프라야 짜끄리와 짜오프라야 피차이라차는 빠따니의 프라야에게 서신을 보냈다. 빠따니의 프라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와 프라야 팻탈룽, 프라야 송클라, 짜오 팻, 짜오 끌랑 및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짜오프라야 짜끄리에게 보냈다.

그는 모든 포로를 전선에 태워 송클라로 데려와 왕에게 바쳤다.

이후 음력 열두째 달 하현 12 일 금요일, 왕은 나콘시탐마랏에 도착했다.

음력 둘째 달 하현 2 일 금요일, 밤 일곱 시각에 나콘시탐마랏의 나이까이 지역에서 불이 났다.

왕은 법령을 공포하여 태국인과 중국인 병사들이 소와 물소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승려와 바라문 및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했다.

이 원정에 따라온 친위 군관과 병사들은 많은 연극 공연을 준비했다. 왕은 즐겁게 공연하게 하고, 왕 앞에서 판돈을 걸도록 하였다. 판마다 쉼 창이나 백 창을 내주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원문 주: 이 내용은 『삼인장 법전』의 「새로 제정한 왕실 법령」 제 26 조를 참조할 것.

그는 신심을 내어 불교 업무를 맡은 관청에 명령하고, 나콘시탐마랏 안팎의 비구와 사미들을 모두 초청했다.

각 승려에게 쌀 한 통과 돈 한 바트를 하사하였다. 하의나 가사가 부족한 승려에게는 삼의를 공양했다.

모든 포살일에는 거지와 떠돌이들에게 한 사람당 한 쌀릉씩 나누어 주었다.

또한 관원들에게 품삯을 주고 우보솿과 위하라, 경전 학습과 설법을 위한 건물, 회랑과 승방을 복구하게 했다. 많은 왕실 재물이 들어갔다.

그는 성대한 행사를 마련하여 성스러운 사리탑을 기념하고 예경하게 했다.

원문 주: 이 내용은 『삼인장 법전』의 「새로 제정한 왕실 법령」 제 25 조를 참조할 것.

이어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의 죄를 심의하게 했다. 대신들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의논하였다.

그러나 왕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를 구금하여 수도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다시 의논하도록 했다.

왕은 자신의 조카인 짜오 나라쭈라윙을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로 세웠다. 프라야 라차쭈파와 프라 시끄라일랏을 남겨 두어 정무를 돕게 했다.

또한 왕실 학자들에게 삼장경을 정리하여 배에 싣고 수도로 가져오게 했다. 모든 경전을 필사하고 나면, 앞서처럼 다시 나콘시탐마랏으로 돌려보낼 예정이었다.

피난하여 나콘시탐마랏에 머물고 있던 프라 아짠 시도 제자들과 함께 수도로 초청하도록 했다.

쭈라삭까랏 1131 년, 소해인 불기 2312 년, 곧 1769 년, 왕은 군대를 거두어 톤부리로 돌아왔다.

그는 프라 아짠 시를 승왕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서기관들에게 품삯을 주고 삼장경 전부를 필사하게 하였다. 많은 왕실 재물이 들어갔다.

나콘시탐마랏의 통치자에게는 죄를 용서하고, 충성의 물을 마시며 맹세하도록 했다.

그때부터 불교는 다시 점차 회복되었다.

왕의 지혜와 위세도 더욱 커져 갔다. 그리하여 쯔라삭까랏 1132 년, 호랑이해인 불기 2313 년, 곧 1770 년에 이르렀다.

쯔라삭까랏 1132 년 음력 다섯째 달 하현 8 일 수요일, 왕은 북쪽의 불성실하고 불의한 자들을 평정하기 위해 출정할 준비를 했다.

이 악한 자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돌아다니며 쌀과 생선, 식량을 약탈하고 여러 고장의 집들을 불태웠다.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과 궁핍을 겪었다.

이에 왕은 짜오프라야 피차이라차에게 오천 명을 맡겨 서쪽으로 진군하게 하고, 프라야 음마랏에게도 오천 명을 맡겼다. 두 부대를 합쳐 만 명이었으며, 모든 무기를 갖추었다.

쯔라삭까랏 1132 년 호랑이해, 불기 2313 년인 1770 년 음력 여덟째 달 하현 14 일 토요일, 아침 한 시각이 조금 지난 때를 크게 길한 출정 시각으로 정하였다.

왕은 톤부리를 떠나 수로로 나아갔다. 왕실 배에 올라 병사들과 군사 관원들을 거느렸으며, 그 수는 약 만 이천 명이었다.

당시 쌀은 한 켤안에 세 창이나 할 만큼 비쌌다. 그러나 왕의 큰 복덕으로 남쪽에서 쌀을 실은 배들이 들어왔다. 군대에 지급하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승려와 바라문, 거지와 떠돌이, 모든 관원의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보시하였다.

뜨렝까누와 자카르타의 외래인들은 총과 화승총 이천이백 정을 가져와 바쳤다.

왕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중 나콘싸완에서 이틀 밤을 보냈다. 이어 찰라완으로 올라가 하룻밤 머물렀다.

다음 날인 음력 아홉째 달 하현 2 일 토요일, 그는 팡의 강어귀에 마련한 임시 거처로 이동했다. 약 한 야경 동안 공격한 끝에 핏사눌록을 함락시켰다.

루앙 꼬싸 양은 항복할 뜻이 없어 도시를 빠져나와 톡 지역에 진을 치고 맞서려 했다. 그러나 다시 달아났다.

원문 주: 톡은 핏사눌록의 북동쪽에 있다.

음력 아홉째 달 하현 4 일 토요일, 왕은 프라 친나라차와 프라 친나시, 프라 시쌌싸다무니 불상에 예경하였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깊은 신심을 나타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천나라차 불상에 둘러 공양하였다.

육군을 기다리며 동쪽에서 아홉 날 동안 머문 뒤, 프라야 욥마랏이 도착하자 식량과 술을 충분히 마련하여 하사했다. 그리고 육군이 서둘러 싸왕부리를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수군을 거느리고 올라가겠다. 지금은 물이 아직 적고 강둑이 높으니, 저 악한 자들이 기회를 틈타 숨어서 총을 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육군이 작은 강을 건너고 사흘이 지나면 물이 더 불어날 것이다.”

그의 큰 복덕으로 사흘 뒤 물이 불어났다. 어떤 곳에서는 강둑 높이까지 이르렀고, 어떤 곳에서는 강둑을 넘었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때부터 육군과 수군의 모든 병사는 이 일을 보고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왕의 위엄을 의지하여 전투에 나서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 왕의 복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여겨,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음력 아홉째 달 하현 7 일 일요일, 아침 두 시각에 본대는 핏사눌록에서 수로를 따라 출발했다.

사흘 동안 여러 곳에서 밤을 보내며 나아가던 중, 선봉대의 보고서를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났다.

“광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일을 꾀하던 르안은 달아났습니다. 저희가 계속 뒤쫓고 있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급히 이동하여 핫쑹 진영의 거처에 도착했다. 그리고 각 부대 지휘관에게 사람들을 나누어 보내, 광의 르안과 암컷 흰 코끼리를 뒤쫓게 했다.

음력 아홉째 달 하현 13 일 일요일, 프라야 인타라쨛의 부대에 속한 루앙 쾃차이 따쁘라쨛에서 암컷 코끼리 ‘망콘 쨍차쑤’를 붙잡아 왕에게 바쳤다. 왕은 그에 합당한 포상을 내렸다.

음력 열째 달 상현 10 일 목요일, 왕은 본대를 거느리고 수로로 남뭇 지역에 갔다.

그는 안쪽과 바깥쪽 길목에 초소를 세우고 순찰대를 편성하게 했다. 광의 르안의 행방을 조사하여 반드시 붙잡도록 명령한 뒤, 핫쑹 진영의 거처로 돌아왔다.

음력 열째 달 하현 4 일 토요일에는 태국인과 중국인 육군 및 수군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을 공포하게 했다.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소와 물소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부대장과 지휘관 가운데 총을 얻거나, 크고 작은 암수 코끼리와 상아를 확보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왕에게 보내 바치도록 했다.

호랑이해 음력 열한째 달 상현 1 일 목요일, 왕은 햇쑥 진영의 거처에 머물고 있었다.

빠따니 사람들이 왕의 보호를 청하러 와 금과 은으로 만든 공물 나무를 바쳤다. 자카르타 사람들은 총 열 정을 바쳤다.

불기 2313 년인 1770 년 음력 열한째 달 상현 6 일 화요일, 왕은 북쪽 승려들을 모두 왕 앞에 모이게 했다. 크고 작은 군사 관원과 문관들도 함께 알현하였다.

왕은 다음과 같이 의논하였다.

“북쪽에 있는 승려들은 팡의 르안과 한패이다. 총을 들고 싸우며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행위는 네 가지 바라이죄에 해당하여 승려의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이다. 불교에 최악이 되는 자들이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또한 북쪽과 남쪽의 승려들이 뒤섞여 있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알 수 없다. 올바른 승려들에게는 예경과 공양을 올려 그 공덕을 돌려야 한다.

승려들은 사실대로 말하라. 예전에 네 가지 바라이죄를 범한 적이 있다면, 옷을 내려 주어 환속시킨 뒤 나라의 일을 맡기겠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물속에서 세 끌린의 나피까가 지나는 동안 잠수하게 하겠다. 시험을 이기면 지식과 덕에 합당하게 북쪽 승단의 책임자로 임명하겠다.

시험에 지면 왕의 형벌을 내리고 손목에 표시를 새겨, 다시는 출가하지 못하게 하겠다. 시험 결과가 비기면 삼의를 내려 새로 출가하도록 하겠다.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되돌아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승려들이 잠수할 때에는 막을 두른 의례용 공간과 천장을 마련하고, 신에게 올릴 제물을 모두 갖추게 했다.

왕은 자신의 공덕이 모든 승려를 보호하도록 서원을 세웠다.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은 비구라면, 내가 쌓은 깨달음의 공덕과 신성한 신들의 힘이 그를 보호하게 하소서. 물시계의 잠수 시험에서 패하지 않게 하소서.

바라이죄를 범하여 계율을 더럽힌 비구라면, 물시계 시험에서 목숨을 잃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하소서.”

왕의 복덕으로 계율이 청정한 승려들은 시험을 이겼고 아무런 위험도 겪지 않았다. 계율을 더럽힌 승려들은 시험에 패하여, 모든 사람의 눈에 분명히 드러났다.

이 잠수 시험에서는 이긴 사람도 있었고, 비긴 사람도 있었으며, 진 사람도 있었다. 대신들은 각자의 공과 죄에 맞추어 왕의 명령대로 처리하였다.

환속한 승려들이 벗어 놓은 삼의는 태워 재로 만든 뒤, 팡의 마하탓 사리탑에 바르는 데 사용했다.

왕은 삼의 천 벌을 만들게 하여 북쪽 승려들을 다시 출가시켰다.

또한 톤부리에서 승단의 고위 승려들과 일반 승려 씬 명을 모셔 오도록 했다. 이들이 각 지방에서 승려들의 수계를 진행하고 북쪽 승려들을 가르치게 했다.

프라 피몬탐은 팡에, 프라 탐마쩌디는 통양에, 프라 탐마라차와 프라 텡까위는 싸완칼룩에, 프라 탐마우돔은 피차이에, 프라 포티윙은 핏사눌룩에 머물게 했다.

음력 열한째 달 하현 10 일 금요일, 왕은 싸왕부리로 가서 사리탑을 위한 행사를 사흘 동안 열었다. 사찰과 사리탑도 예전처럼 온전하게 복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양의 불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사흘 동안 열고, 다시 싸완칼룩의 사리탑을 예경하러 갔다.

음력 열한째 달 하현 1 일 금요일에는 핏사눌룩의 불상을 위한 행사를 사흘 동안 열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관원들에게는 각 지방의 규모와 위계에 맞추어 임시 통치자와 통치자의 직책을 맡겼다.

짜오프라야 피차이라차는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으로 삼았다. 프라야 욤마랏은 짜오프라야 쑤라시로 삼아 핏사눌룩을 맡겼다.

프라 시하라차데초는 피차이의 임시 통치자로, 프라 타이나른 쑤코타이의 임시 통치자로 임명했다. 짜오프라야 아누랏푸톤에게는 나콘싸완을 맡겼다.

원문 주: 짜오프라야 싸완칼록의 자세한 이력은 『실빠곤』 제 2 권에 있다. 짜오프라야 쑤라시는 훗날 라마 1 세 시대의 부왕 마하 쑤라싱하낫이다. 프라 시하라차데초는 프라야 피차이 답학이며, 이에 대해서는 불기 2468 년인 1925 년의 『사마키짜른 및 태국 과학 전파』 제 11 권을 참조할 것.

그는 프라야 아파이론나릿을 프라야 욤마랏으로 삼고, 사무하나옥의 직무를 맡겼다.

그런 다음 톤부리로 돌아왔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원문 주: 여기의 프라야 욤마랏은 훗날의 라마 1 세, 프라 푼타웃파 쥘라룩이다.

쥘라삭까랏 1132 년, 호랑이해인 불기 2313 년, 왕은 본대를 거느리고 치앙마이를 공격하기 위해 북쪽으로 출정하려 했다.

치앙마이의 버마군이 남쪽으로 내려와 싸완칼록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다.

왕은 핏사눌록과 쑤코타이, 피차이에 명령서를 보내 군대를 출동시켜 돕게 했다. 버마군은 패하여 포위를 풀고 달아났다.

이 일을 계기로 왕은 태국인과 중국인, 외래인과 서양인을 모두 합쳐 만 오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했다. 크고 작은 총포와 모든 무기를 갖추었다.

왕은 왕실 배 ‘끄랍’을 타고 수로로 올라가, 피차이 동쪽의 핫싸이 거처에 머물렀다.

원문 주: 점성가의 기록에는 “쥘라삭까랏 1132 년, 버마군이 싸왕부리로 쳐들어왔다가 패하여 돌아갔다”라고 적혀 있다. 본대는 싸왕부리를 평정할 당시 버마군을 몰아냈을 뿐, 왕이 직접 치앙마일로 갔던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피차이에서는 라오인 쏘막과 그 일행이 왕을 섬기겠다고 지원하였다. 왕은 그를 프라야 시쑤라왕으로 임명했다.

이어 짜오프라야 짜끄리와 짜오프라야 마하라차에게 왕실 배와 모든 관원의 배를 피차이에 남아 지키게 했다.

왕은 본대를 거느리고 육로로 나아갔다. 여러 날 동안 곳곳에서 밤을 보내며 이동한 끝에 꾸르앙에 도착하여, 만텡 진영의 거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때는 건기여서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길을 안내하던 사람이 아뢰었다.

“이쪽 산기슭에서 앞쪽의 폰 산기슭으로 내려가는 세 켄가랑의 길에는 물이 몹시 부족합니다.”

왕은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맡을 일이다. 오늘 밤에는 두 야경 동안 시간을 재도록 하라. 밤 다섯 시각이 되면 반드시 비가 내리게 하겠다.”

그는 짜오프라야 싸라쁘라싯에게 뽀따, 곧 수호신의 사당을 세우게 하고 제물을 갖추어 의례를 치르게 했다.

준비가 끝나자 왕은 전생과 현생에 쌓은 자신의 공덕을 의지하여, 모든 병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진실의 서원을 세웠다.

그날 하늘에는 구름이 없었고 날씨도 맑고 평온했다.

원문 주: 이 부분에 나오는 관직과 인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왕의 서원과 공덕, 신들의 힘으로 밤 네 시각 여덟 났이 되었을 때 갑자기 큰비가 쏟아졌다. 물이 불어나 나뭇가지와 대나무를 휩쓸어 떠내려가게 했다.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아침이 되자 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동했다. 여러 곳에서 밤을 보내며 나아가 치앙마이 가까이에 이르렀다.

버마인과 라오인들은 군대를 편성하여 맞서 싸웠다. 선봉대가 버마군을 공격하자 적은 패하여 성벽까지 물러났다. 아군은 여러 진영을 세워 도시를 포위했다.

왕은 흠으로 쌓은 방벽 안의 진영에 머물렀다. 제 3 야경이 조금 지난 때에 모든 지휘관에게 공격하며 총을 쏘게 하여 적의 힘을 살피도록 했다.

버마군은 강하게 맞서 싸웠다. 동이 틀 무렵까지 공격했으나 적은 밖으로 물러나오지 않았다.

왕은 말했다.

“치앙마이는 내 숙부께서 전에 평정하시던 때부터, 한 번의 공격으로는 빼앗을 수 없고 두 번째 공격에서야 함락되던 곳이다.

힘을 다해 밀어붙여 빼앗으려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많은 병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적의 형편과 전력을 살피려는 것이기도 하였으니, 이제 분명히 알았다. 다음번에는 단번에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본대를 먼저 물려 하루 거리만큼 내려가게 했다. 다른 부대들도 차례로 철수하여 뒤따랐다.

버마군은 숲을 따라 우회하며 추격하고 총을 쏘았다. 아군 병사들은 놀라 흩어지며 물러났고, 좁은 산길에서 적을 맞아 기다리고 있던 본대까지 밀려 내려왔다.

왕은 이를 보고 직접 칼을 들었다. 병사들을 몰아 되돌아가게 하고, 버마군을 향해 돌격하여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게 했다.

버마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며 무너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왕은 무사히 톤부리로 돌아왔다.

원문 주: 『치앙마이 연대기』에는 프라 꼬싸의 군대가 올라와 성 가까이에 진을 쳤다고 한다. 핏사눌록에서 달아났던 루앙 꼬싸 양의 군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쭈라삭까랏 1132 년, 호랑이해인 불기 2313 년, 곧 1770 년, 왕은 옛 도성이 너무 작고 병사들이 많아,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군사 관원과 문관들에게 명령하여 통랑나무를 통째로 사용한 방책을 세우게 했다. 우선 임시 방어 시설을 마련하고, 나중에 성벽을 쌓을 계획이었다.

방책은 옛 성벽의 모퉁이에서 왓 방웬너이까지 이어지게 하고, 아래쪽으로 큰 강의 가장자리까지 연결하도록 했다.

이어 도성 둘레에 해자를 파고, 파낸 흙을 안쪽 방책의 가장자리를 따라 성벽의 방어 단처럼 쌓게 했다. 음력 첫째 달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쭈라삭까랏 1133 년, 토끼해인 불기 2314 년, 곧 1771 년 음력 열한째 달 하현 11 일 일요일, 아침 한 시각 다섯 분이 되었을 때 길한 출정 시각을 맞았다.

왕은 황금 정크선에 올라 본대를 거느리고 톤부리를 떠나 짜오프라야강의 강어귀로 향했다.

전선 이백 척과 정크선 백 척, 태국인과 중국인, 서양인 병사 만 오천 명이 넘는 군대가 모든 무기를 갖추었다.

왕의 큰 복덕으로 바다의 거센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졌다.

닷새 동안 항해한 뒤 찬타부리의 강어귀에 머물렀다. 그는 프라야 꼬싸를 지휘관으로 삼아 따풍쑈과 콩꼭을 공격하게 했다.

다시 옛새를 이동하여 음력 열두째 달 상현 8 일 목요일에 푸타이맛 강어귀에 도착했다. 왕은 남서쪽의 중국식 건물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선봉대의 프라야 피차이 아이싸완에게 서신을 작성하게 했다. 붙잡아 둔 베트남인 한 명에게 그 서신을 맡겨 프라야 라차셋티에게 가져가게 했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께서는 이번에 육군과 수군을 거느리고 오셨다. 프라 옹 람라차를 캄보디아의 왕으로 세우려 하신다. 또한 짜오 쭈이와 짜오 씨쌍, 옛 수도의 관원들이 어느 도시에 머물고 있는 모두 데려가려 하신다.

프라야 라차셋티가 충성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시의 방비를 충분히 갖추어라.

맞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왕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밖으로 나와 경의를 표하라. 왕께서 보호하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늑어서 직접 나올 수 없다면 작은 깃발과 큰 깃발을 갖추어, 한낮이 되기 전에 밖으로 나와 경의를 표하게 하라. 지체한다면 왕께서 노하여 모두 죽이실 것이다.”

프라야 라차셋티는 답서를 보내왔다.

“서신을 보내 주신 뜻이 매우 고맙습니다. 먼저 관원들을 불러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모두가 뜻을 모으면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프라야 라차셋티는 그 뒤 누구도 보내 답을 전하지 않았다.

왕은 끄롬 아잔에게 명령하여 도시를 공격할 용감한 사람들을 뽑게 했다. 지휘관과 병사를 합쳐 백열한 명이었다. 여기에 병사 이천사백 명을 추가했다.

왕은 공격할 시각과 방법을 정해 주었다. 제 2 야경에 병사들은 성벽을 넘어 들어가 불을 질렀다. 불길이 환하게 솟아올랐다.

도시 안에 있던 베트남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도시를 둘러싸고 진을 친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도 안으로 들어가 도우려 했으나, 베트남군이 방어 위치에서 계속 총을 쏘아 들어갈 수 없었다.

병사들의 기세도 점차 약해졌다.

원문 주: 왕이 푸타이맛, 곧 하띠옌을 평정하러 간 원정의 일지는 거의 온전히 남아 있다. 그 안에는 알아둘 만한 내용이 많다. 『연대기 총집』 제 66 부를 참조할 것.

그러나 왕의 큰 복덕으로 모든 병사는 왕이 직접 나아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용기가 크게 솟아 육군과 수군 모두 돌격했다.

방어하던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은 패하여 달아났다.

다음 날인 음력 열두째 달 상현 11 일 일요일 아침, 도시를 함락시켰다. 프라야 라차셋티는 배를 타고 달아났다.

음력 열두째 달 상현 11 일 월요일, 왕은 프라야 라차셋티의 궁으로 들어가 머물렀다.

그는 프라 얀쁘라삿, 프라 싸탐마짠, 아짠 찬의 세 사람에게 물었다.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가 진영을 돌파할 때, 적은 어느 쪽으로 달아났는가?”

세 사람의 답은 서로 맞지 않았다.

왕은 직접 그 병사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맞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적이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은 명령에 어긋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다시 싸웠다면 나라의 일에 손해를 끼쳤을 것이다.”

이에 그는 진영을 돌파한 공이 있던 지휘관과 병사들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포상으로 돈 삼백스물네 창을 하사했다. 또한 중국인과 베트남인 주민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에 귀속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예전처럼 각자의 고장에서 장사하게 했다.

왕은 대외 업무를 맡은 꼬싸티보디를 돕던 프라야 피윳을 프라야 라차셋티로 임명하여 푸타이맛의 임시 통치자로 삼았다.

원문 주: 달아났던 이전의 프라야 라차셋티는 나중에 다시 충성을 청하러 왔으며, 왕은 그가 예전처럼 도시를 다스리게 했다.

이어서 왕은 본대를 거느리고 푸타이맛 강어귀를 떠나 캄보디아로 향했다. 여러 곳에서 밤을 보내며 수로로 올라가 프놈펜에 이르렀다.

짜오프라야 짜끄리는 캄보디아에서 내려와 경의를 표하고 아뢰었다.

“프라 옹 우타이는 달아나 베트남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짜오프라야 짜끄리에게 그날 곧바로 뒤쫓으라고 명령했다.

오후 세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본대도 그 뒤를 따라 출발하였다. 약 한 야경을 이동하자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보고를 받았다.

“베트남의 군선들이 내려와 프라 옹 우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왕은 한 마을의 거처 앞에 왕실 배를 세우고 하룻밤 머물렀다.

아침에는 돌아와 콩까싸 수로의 입구에 이르렀다. 많은 가족과 배를 발견하였다.

왕은 프놈펜의 섬에 머물렀다. 프라 옹 람라차가 내려와 알현하였다.

원문 주: 왕의 친필 주석본 연대기는 여기의 짜끄리를 훗날의 라마 1 세라고 적었다. 그러나 여러 증거를 보면, 그 무렵 라마 1 세는 아직 프라야 움마랏이었다. 양해인 불기 2317 년, 곧 1774 년 말이나 불기 2318 년인 1775 년 초에 프라야 짜끄리로 승진했고, 그 지위를 유지하다가 불기 2320 년인 1777 년에 짜오프라야 짜끄리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의 인물은 짜끄리 못이다.

원본은 이 다음부터 한 부분이 빠져 있다. 누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대가 푸타이맛, 곧 하띠엔에 도착한 일.
2. 본대가 툰부리로 돌아온 일.
3. 나이 많은 베트남인 프라야 라차췌티가 복종하고 충성을 바친 일. 이에 대해서는 『연대기 총집』 제 39 부를 참조할 것.
4. 불기 2315 년, 곧 1772 년에 버마군이 처음으로 피차이를 공격한 일.
5. 불기 2316 년, 곧 1773 년에 왕실에 소속된 백성들과 지방에 소속된 백성들에게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을 손목에 새기게 한 일.
6. 버마군이 두 번째로 피차이를 공격한 일.
7. 불기 2317 년, 곧 1774 년 음력 열두째 달에 본대가 치앙마이의 버마군을 평정하기 위해 북쪽으로 출정한 일.

이 아래부터 다시 왕실 연대기의 본문이 이어진다.

불기 2317 년인 1774 년 음력 둘째 달 상현 12 일 금요일, 오후 두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은 람퐁 진영의 거처에 머물렀다.

왕은 프라야 짜반과 람퐁의 프라야, 라오인 쯔, 여러 쿤·믄 관원 및 함께 나라의 일을 수행해 온 사람들을 모두 불러 알현하게 했다.

그는 많은 지휘관과 병사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추어 옷 한 벌씩 하사하였다. 프라야 짜반과 람퐁의 프라야의 아내들에게도 입고 두를 천을 내려 주었다.

원문 주: 이들은 치앙마이의 주요 인물들이다.

음력 둘째 달 상현 12 일 토요일, 새벽이 되자 총과 가마, 왕자와 사위들을 모두 준비시켰다.

왕은 왕실 코끼리 ‘플라이 카첸타라’를 타고 본대를 거느려 람푼 진영을 떠나 치앙마이로 올라갔다.

352 쉐를 이동한 뒤 보끄 진영의 거처에서 낮 동안 쉬었다.

다시 보끄를 떠나 오후 세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치앙마이 강변의 진영에 도착했다. 그 거리는 176 쉐이었다.

왕은 군대를 멈추고 진영을 완전히 갖추도록 명령했다.

“내일 본대를 이끌고 올라가 베트남 쪽 길을 공격하여, 그곳의 적들을 남김없이 붙잡겠다.”

그날 한 야경이 조금 지난 때, 치앙마이의 통치자인 포쭈팔라와 마윽완은 본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왕의 위세와 복덕이 두려워 더는 맞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시를 빠져나가 달아났다—

그들은 창프악 성문을 통해 달아났다. 두려움에 서로 짓밟으며 빠져나가다가 성문 부근에서 이백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일부는 여전히 남아 싸우고 있었다.

타패 성문 맞은편을 둘러싸고 있던 짜오프라야 쭈라시의 부대는 진영을 뚫고 나아가 버마군의 진영 세 곳을 함락시켰다. 많은 버마 병사가 창에 찔리거나 칼에 베여 죽었다.

다음 날인 음력 둘째 달 상현 14 일 일요일 새벽, 왕은 왕실 코끼리 플라이 카첸타라를 타고 치앙마이 주위를 포위한 관원들의 진영을 둘러보았다.

그가 거처로 돌아오자 사무하나옥의 직무를 맡은 프라야 욘마랏과 모든 장수 및 부대 지휘관들이 함께 알현하였다.

왕이 물었다.

“버마군이 모두 달아난 것은 누구의 생각과 계책 때문인가?”

프라야 욘마랏과 모든 장수는 함께 아뢰었다.

“지금까지 저희가 버마군과 싸우는 동안에는 적이 달아나지 않고 계속 출전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본대를 거느리고 도착하시자 버마군이 달아났으니, 이는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적이 달아난 것은 분명 왕의 위세와 복덕 때문입니다.”

치앙마이의 승려들도 왕이 도착한 날 한 야경이 조금 지난 때에 도시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고 전하였다.

원문 주: 여기의 프라야 욘마랏은 훗날의 라마 1 세이다. 다만 사무하나옥의 직무는 불기 2317 년, 곧 1774 년 양해의 인장이 찍힌 명령서 초안에 따르면 짜오프라야 시탐마티랏이 대행하고 있었다.

왕은 프라야 욘마랏과 짜오프라야 쭈라시에게 자신이 입었던 비단옷을 하사하였다. 프라야 욘마랏이 누구보다도 고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라야 욘마랏의 부대에는 붉은 비단과 보랏빛 비단 쉰다섯 필을 주어,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짜오프라야 쭈라시의 부대에도 쉰다섯 필을 주어 병사들에게 나누게 했다.

한편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에게는 왕의 처벌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나라의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낮은 관직의 사람들에게만 일을 시킨 채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왕은 그를 구금하여 매 서른 대를 치게 했다. 프라·루앙·쿤·문의 관원들에게도 서른 대씩, 소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스무 대씩 치게 했다.

이어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의 부대가 치앙마이에서 확보한 물품을 빠짐없이 거두게 했다.

왕이 말했다.

“그 고장에는 버마군과 라오인이 천 명이나 남아 있다. 그대와 모든 지방 관원은 나라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겠는가?”

짜오프라야 싸완칼룩과 관원들은 할 수 있다고 아뢰었다. 만약 해내지 못하면 목숨을 빼앗는 처벌을 받겠다고 하였다.

원문 주: 불기 2317 년인 1774 년, 왕이 치앙마이의 버마군을 평정하러 갔을 때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은 툰부리에서 처벌받고 있었으며, 이 원정에 따라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명령서 초안이 있다. 『실빠꾼』 제 2 권을 참조할 것.

음력 둘째 달 상현 14 일 월요일, 왕은 치앙마이 진영의 거처에 머물며 모든 장수와 부대 지휘관에게 명령했다.

“옛 수도와 수도에 속한 지방에서 온 태국인들을 확보한 사람은 모두 보내 바쳐라. 숨겨 두었다가 조사하여 드러나면 법에 따라 벌하겠다.”

음력 둘째 달 하현 1 일 화요일, 지휘관들은 물품과 가족들을 왕에게 보냈다.

대포 백 문과 소형 총 이천 정, 합계 이천백 정을 얻었다. 송이라는 무기는 서른두 쌍, 말은 이백 마리였다. 태국인과 몬족은 사백 명이었고, 싸완칼록 출신 태국인 가족은 오백이 넘었다.

왕은 말했다.

“싸완칼록의 태국인 가족들은 나라를 배반하고 치앙마이의 버마군에게 달아나, 버마군을 이끌고 내려와 싸완칼록을 공격하였다. 그대로 두면 본보기가 되어 나라의 일에 해를 끼칠 것이다. 그들과 아내와 자식들 모두에게 처벌의 표식을 남겨라.”

그러나 고위 관원들은 함께 의논한 뒤, 이들을 코끼리 앞쪽에서 일하는 파뿐으로 삼도록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아뢰었다. 왕은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살려 주었다.

음력 둘째 달 하현 2 일 수요일 아침, 왕은 치앙마이의 왓 프라싱으로 가서 불상에 예경하였다. 이어 치앙마이 통치자 포마윙완의 집을 둘러보았다.

여러 라오인은 예전에는 음력 둘째 달이면 치앙마이의 강물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물이 한 쪽이나 더 높아 기이하다고 말했다.

음력 둘째 달 하현 3 일 목요일, 왕은 치앙마이 강변의 거처에 머물렀다.

그는 왕의 보호를 청하고 충성을 바치며 버마군과 싸워 공을 세운 라오인 통치자들에게 관직과 물품을 내려 주었다.

프라야 짜반에게는 장총과 짧은 총, 창과 옷을 하사하였다. 왕의 권한을 받아 치앙마이를 다스리는 프라야 위치안쁘라칸으로 삼았다.

프라야 짜반의 조카인 프라야 텡프라오에게는 장총과 옷을 주고, 치앙마이의 우빠랏, 곧 부통치자로 삼았다. 너이 포티에게는 장총과 옷을 주고 라차웡으로 임명했다.

람폰의 프라야에게는 장총과 짧은 총, 창과 옷을 하사했다. 왕의 권한을 받아 하리폰차이를 다스리는 프라야 아이야웡으로 삼았다.

그의 동생인 땸 떠에게는 장총과 옷을 주어 하리폰차이의 우빠랏으로 임명했다.

까윌라에게는 장총과 창, 옷을 주었다. 왕의 권한을 받아 람똥을 다스리는 프라야 까윌라로 삼았다.

까월라의 동생 너이 탐에게는 옷을 주고 람뽕의 우빠랏으로 임명했다. 나이 쏘과 그 동생들인 나이 두앙팁, 나이 물라, 나이 캄판, 나이 분마에게도 옷을 내리고 라차웡으로 삼았다.

또한 치앙마이와 하리폰차이, 람뽕, 프래, 턴, 반꺼, 덕렉, 반나의 각 고장에 프라·루앙·쎄·쿤·문 관원들을 배치하도록 했다.

각 직제와 부대에 따라 관원들을 임명하고, 치앙마이와 하리폰차이, 람뽕, 프래, 턴의 임시 통치자와 통치자를 예로부터 이어진 관례에 맞추어 세웠다.

원문 주: 원본은 ‘꺼’를 ‘꺼’의 다른 철자로 적었다. 이 판본은 원본의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음력 둘째 달 하현 4 일 금요일 아침, 왕은 본대를 거느리고 치앙마이 진영을 떠나 수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군대를 지휘하던 짜오프라야 짜끄리에게 치앙마이에 남아 정무를 정비하는 일을 돕게 했다. 또한 버마군을 추격하러 간 부대의 소식을 기다리고, 결과를 확인한 뒤 군대를 거두어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왕은 하리폰차이 진영의 거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곳의 사리탐에 예경하고, 많은 라오인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프라야 웡프라오와 너이 포티에게는 하리폰차이의 사리탐 앞에서 충성의 물을 마시고 맹세하도록 했다.

그날 프라야 위치안쁘라칸은 딸 한 명을 왕을 모시는 궁중 여성으로 바쳤다. 왕은 돈 한 창과 옷 한 벌을 내린 뒤, 그 여성을 프라야 위치안쁘라칸에게 돌려보내도록 했다.

원문 주: 프라야 욥마랏이 짜오프라야 짜끄리로 승진한 시점은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여기의 짜끄리는 사무하나옥인 짜끄리 못과는 다른 인물로 보인다.

원문 주: 왕이 여성을 받지 않은 것은 부모에게서 자식을 떼어 오는 일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뒤에 까월라가 딸을 바치는 대목에서도 같은 점을 볼 수 있다.

다음 날인 음력 둘째 달 하현 5 일 토요일, 왕은 람퐁을 떠나 매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음력 둘째 달 하현 6 일 일요일에는 매타를 떠나 매싼에서 머물렀다.

음력 둘째 달 하현 7 일 월요일에는 매싼을 떠나 향찰에서 머물렀다.

음력 둘째 달 하현 8 일 화요일에는 향찰을 떠나 매람뽕으로 이동했다. 오후 네 시각에 사리탐을 예경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꽃을 공양하였다.

그는 많은 라오인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이어 가족들 가운데 남자 세 명과 여자 열네 명, 함께 열일곱 명을 람빵의 사리탐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쳤다.

프라야 까윌라도 딸 한 명을 왕을 모시는 궁중 여성으로 바쳤다.

왕은 돈 한 창과 옷 한 벌을 하사한 뒤, 그 여성을 프라야 까윌라에게 돌려보내게 했다.

프라야 까윌라와 우빠랏은 아뢰었다.

“지금 저희와 저희 부모, 모든 친척과 형제들은 한마음으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벌이 될 것이라 여기시는 듯하나, 저희는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왕은 그들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여성을 함께 데려오도록 했다.

그는 프라야 까윌라의 아버지와 프라야 까윌라, 우빠랏 너이 탐, 라차윙 캄판과 캄라에게 람빵 사리탐 사원의 위하라에서 충성의 물을 마시게 했다.

왕은 람빵 진영의 거처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음력 둘째 달 하현 10 일 목요일, 그는 람빵을 떠나 후아이남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음력 둘째 달 하현 11 일 금요일에는 후아이남땀을 떠나 나양에서 머물렀다.

음력 둘째 달 하현 12 일 토요일, 오후 한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턴의 선착장 거처에 도착했다. 치앙마이에서 이동한 거리는 모두 4,214 쉼이었다.

음력 둘째 달 하현 15 일 화요일 아침, 그는 턴을 떠나 수로로 이동했다.

이틀을 향해하던 중 프라 치앙통이 보고를 보내왔다.

“버마군이 매라마오 관문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음력 셋째 달 상현 2 일 목요일, 왕은 딱의 거처에 도착했다. 그는 루앙 마하텝을 지휘관으로 삼고, 짜른 와이워라낫을 함께 보냈다. 부대를 위해 왕실 말 다섯 마리도 하사하였다.

군대의 편성을 마친 뒤, 저녁 두 야경 사이에 왕은 반딧불의 모래톱에 머물렀다.

그곳으로 보고가 들어왔다.

“매라마오 관문으로 들어온 버마군을 공격하여 물리쳤습니다.”

왕은 마하타이 소속의 나이 쿠안과 나이 웬에게 반라행으로 내려가, 프라야 캄팽위쯔의 부대가 서둘러 나가 스스로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몬족을 맞아들이도록 전하게 했다.

제 2 야정에 왕은 왕실 의전 부서의 큰 쥘이 모는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갔다. 루앙 락싸꼬싸도 뒤쪽에 함께 탔다.

그들은 정세를 살피러 왔다가 돌아가던 나이 쿠안의 배를 만났다. 나이 쿠안은 다시 올라와 아뢰었다.

“강가에 모닥불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버마인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 물었다.

“정말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가 분명히 들었다고 아뢰자, 왕은 의심을 품었다. 나이 쿠안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여 그곳으로 내려갔다.

모닥불이 보이자 왕실 배를 멈추고, 큰 쥘을 보내 몰래 살피게 했다.

확인해 보니 치앙마이에서 데려온 버마 포로들을 가둔 배였다. 프라 켓빤이 그들을 감독하며 밤을 보낼 선착장에 머물게 하고 있었다.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뒤, 왕은 다시 강을 내려갔다.

그때 왕실 배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가라앉았다. 왕은 모래톱으로 올라갔다.

원문 주: 나이 쿠안은 ‘나이 쿠안 루앗’, 곧 범들과 사리에 밝은 관원을 뜻한다.

왕은 그곳에서 배우 나이 추와 나이 켓이 불을 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이 추는 무늬 있는 천 한 장을 바쳐 왕의 발을 닦게 했다.

루앙 락싸꼬싸는 물에 젖은 왕의 옷 꾸러미를 가져와 펼쳐 보았다. 옷들은 모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러나 하의 한 벌만은 평소처럼 말라 있어 매우 기이하였다. 그는 이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육로로 이동하였으며, 루앙 락싸꼬싸와 나이 쿠안이 함께 따라왔다.

다음 날인 음력 셋째 달 상현 3 일 금요일 새벽, 왕은 반라행의 쭈안마무앙 거처에 도착했다.

그는 나이 쿠안의 공과 죄를 심의하라고 명령했다.

관원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왕께서 나이 쿠안에게 나라의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런데 그는 버마 포로들의 말소리를 듣고도 가까이 들어가 충분히 살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단지 버마인의 말소리를 들었다고 아뢰어 왕을 크게 의심하게 했으므로, 여섯 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길이 험하고 어려웠을 때 왕을 따라와 곁을 지킨 것은 공이다. 그의 공과 죄는 서로 상쇄된다.”

왕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우 나이 추는 어려운 때에 무너 있는 천을 바쳐 내 발을 닦게 했으니 공이 있다.”

이에 나이 추에게 돈 다섯 땀름을 하사했다.

음력 셋째 달 상현 4 일 토요일 아침, 왕은 쭈안마무앙 거처에서 그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에게 한 사람당 한 쌀릉씩 돈을 나누어 주었다.

원문 주: 『삼인장 법전』의 「새로 제정한 왕실 법령」 제 1 조를 참조할 것.

음력 셋째 달 상현 5 일 일요일, 아침 세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은 쭈안마무앙 거처에서 관원들을 알현하였다.

짜문 쌀라팻팍디가 아뢰었다.

“쿤 인타라끄라일랏과 피팻 악사인 나이 짜, 나이 니이차나가 서로 공모하여 왕의 규정에 어긋나게 쏫두앙 화폐를 몰래 주조하였습니다.”

심문하여 사실이 확인되자, 왕은 이들을 처형하고 반라행 앞에 시신을 꿰어 세워 두게 했다.

원문 주: 『삼인장 법전』의 「새로 제정한 왕실 법령」 제 8 조를 참조할 것.

왕은 또한 프라야 논을 불러 알현하게 하고 말했다.

“내가 딱에 도착하여 군대를 정비할 때, 모든 부대의 인원을 확인하려고 불렀으나 프라야 논은 알현하지 않았다.

프라야 피핏꼬싸도 버마군이 매라마오 관문으로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으니, 서둘러 알현하여 왕이 군대를 정비할 수 있게 하라고 알려 주었다.

그런데도 프라야 논은 알현하지 않고 반라행으로 내려갔다. 이는 버마군을 두려워하여 나라의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왕은 그에게 채찍 백 대를 치고, 차꼬를 채워 수도로 보내게 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채찍질을 하고, 재산을 모두 왕실에 몰수하였다.

이어 육로로 사흘, 배로 사흘 동안 끌고 다니며 죄를 공개한 뒤 처형하도록 했다.

음력 셋째 달 상현 7 일 화요일, 수도의 정무를 맡은 관원 바오 루앙 인타라텝을 고발하는 보고가 올라왔다.

“루앙 인타라텝이 딱의 창고에서 왕실 쌀을 받아 놓고도 군대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쌀을 프라야 논에게 팔고, 돈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되자, 왕은 그에게 채찍 백 대를 치고 쌀 열 떠를 배상하게 했다.

그를 부대의 백성들을 통솔하는 관리 아래에 두고, 아내와 자식들은 구금하도록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의 일을 수행하여 잘못을 만회하게 하고, 공을 세우면 예전처럼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주도록 했다.

원문 주: 이 인물은 불기 2314 년인 1771 년 푸타이맛 원정 때 프라야 뿌라차칩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 『연대기 총집』 제 66 부를 참조할 것.

왕은 또한 반라행이 적을 막을 수 있도록 화승총 백 정을 내려 두었다. 많은 몬족 프라야에게도 옷을 하사하였다.

왕의 보호를 청하러 온 태국인과 몬족은 모두 4,435 명이였다. 왕은 그들에게 쌀과 생선, 식량을 주고 배를 마련하여 수도로 내려보냈다.

음력 셋째 달 상현 8 일 수요일 아침, 왕은 왓 끌랑더이카에 가서 불상에 예경하였다.

그는 승려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스님들께서는 기억하십니까? 내가 반라행에 머물 때 유리 종을 높이 걸어 두고, 장차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과 일체지를 얻게 될 사람이라면 이 종이 꼭대기 매듭 부분에서만 깨지게 하여 달라고 진실의 서원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종이 그렇게 깨지면, 그 종으로 성스러운 사리를 봉안할 유리 사리탑의 받침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가 서원을 세우고 종을 치자, 종은 꼭대기 매듭 부분에서만 깨졌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일을 분명히 보았다.

승려들은 왕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아뢰었다.

음력 셋째 달 상현 9 일 목요일 아침, 왕은 반라행을 떠나 수로로 내려왔다.

신심을 내어 지나가는 모든 사찰의 승려들에게 하의와 가사를 공양하고, 길가의 모든 마을에 사는 남녀노소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닷새 동안 내려와 음력 셋째 달 상현 14 일 화요일 아침에 툰부리에 도착했다.

음력 셋째 달 상현 15 일 수요일, 프라야 욤마랏과 모든 장수 및 부대 지휘관이 보고를 보내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버마군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왕은 왕자인 프라야 티벳보디를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에게 왕의 권한을 주어 왕자와 함께 라차부리에 나가 진을 치고 적을 맞게 했다.

왕자가 라차부리에 도착하자 프라야 아파이론나릿, 프라야 켓차부리, 루앙 쏘밋반, 루앙 싹댕릿타의 네 지휘관을 만났다. 이들은 버마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군대를 물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프라야 쏜툰피핏, 루앙 락몬티안, 프라야 쭈판부리, 프라야 깐차나부리, 프라야 나콘차이시의 다섯 지휘관은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

보고를 받은 왕은 프라야 아파이론나릿과 모든 장수 및 지휘관의 아내와 자식들을 붙잡아 구금하도록 했다.

그들에게 프라야 티벳보디의 부대에서 나라의 일을 수행하여 잘못을 만회하게 했다.

“다시 한 번 도망친다면 그들 일족을 모두 참수하겠다.”

그는 많은 소부대 지휘관과 부대장을 뽑아 프라야 티벳보디의 부대에 보냈다.

또한 짜오 람락에게 왕의 권한을 주고 백성 천 명을 맡겨 지원하게 했다. 짜오 람락과 프라야 티벳보디가 함께 나라의 일을 의논하여 반드시 승리를 이루도록 했다.

원문 주: 짜오 람락은 전쟁에 강한 인물이었으며, 훗날 끄롬쿤 아누락쑹크람으로 책봉되었다.

음력 셋째 달 하현 5 일 월요일 아침, 한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은 프라 텡요타를 참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왕을 따라 도착하고도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알현하지 않았다. 뒤에 사람을 보내 부르자 비로소 내려와 알현하였다.

왕은 나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짜오프라야 인타웁씨는, 나라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그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청하였다.

왕은 말했다.

“이 자는 나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어도, 오만한 마음이 너무 커졌다. 알현하지 않았으니 살려 둘 수 없다.”

왕은 직접 칼을 들어, 강변 거처 앞 위차이쁘라섯 요새 옆에서 프라 텡요타의 목을 베었다.

원문 주: 왕이 노했을 때 칼을 바치는 일을 금한 규정은 옛 법률집의 「궁중법」에 있다. 브래들리 판 제 10 책, 제 2 권 118 쪽 제 2 항을 참조할 것.

원문 주: 짜오프라야 인타웁씨는 최고위 대신의 직책에 있었다. 『연대기 총집』 제 2 부의 나콘시탐마랏 통치자 임명에 관한 기록과 『나콘 연대기』를 참조할 것.

음력 셋째 달 하현 6 일 화요일 아침, 왕은 수상 거처에서 관원들을 알현하였다.

나콘차이시의 지방 감찰관인 쿤 나콘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후방 왕실 경호원 네 명인 나이 푼, 나이 싸, 나이 깐, 나이 프롬이 왕의 인장이 찍힌 명령서를 가지고 쭈판부리로 갔습니다.

나콘차이시와 쭈판부리의 경계에 있는 반꿈에 이르렀을 때, 말을 탄 버마군 약 서른 명을 만났습니다. 적이 뒤쫓아 오자 네 사람은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의 인장이 담긴 천 바구니가 떨어져 없어졌습니다. 버마군은 반꿈을 포위했습니다. 나이 푼과 나이 싸, 나이 깐의 세 사람은 달아났으나, 나이 프롬은 사라져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왕은 꼬씨의 업무를 맡은 프라야 피차이 아이싸완에게 병력 천 명을 거느리고 나콘차이시로 출정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무기를 갖추게 했다.

한편 왕자는 약 닷새 동안 라차부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버마군 이천 명이 넘는 병사가 땡프랙에서 내려와 반방깨우에 진을 쳤다.

짜오 람락과 프라야 티벳보디는 함께 의논하여 루앙 마하텝을 선봉으로 삼았다. 그에게 백성 천 명을 맡겨 반방깨우의 버마군을 서쪽에서 가까이 에워싸게 했다.

짜오 람락의 부대 천 명은 동쪽에 진을 쳐 적을 에워쌌다.

짜오 람락과 루앙 마하텝의 진영이 견고하게 갖추어지자, 왕자와 프라야 티벳보디는 콕끄라따이에 올라가 본대의 진지를 마련하였다.

쥘라삭까랏 1136 년, 말해인 불기 2317 년, 곧 1774 년 음력 셋째 달 하현 11 일
일요일, 아침 두 시각 일곱에서 여덟 밝이 되는 때를 크게 길한 출정 시각으로 정하였다.

왕은 코끼리와 말, 전차와 보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거느리고 수로로 출정했다. 길이 열세 와인 긴 왕실 배 ‘끄랍’을 탔으며, 노를 젓는 사람은 마흔 명이었다.

끌롱요라는 배 두 척과 나팔, 소라, 피팟 악대, 북과 외래식 북을 연주하는 선도선이
함께했다.

지휘관과 병사는 8,863 명이었고, 크고 작은 총포는 277 문이었다. 왕은 라차부리
지역의 버마군을 평정하러 나아갔다.

오후 한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타쥔 진영의 거처에 도착했다.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리며 머문 뒤, 밤 다섯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타쥔 진영을 떠나 밤중에 이동했다.

다음 날인 음력 셋째 달 하현 12 일 월요일, 매끌롱 진영의 거처에 도착했다.

이어 방궁 진영의 왓 끌랑에서 식사한 뒤 출발하였다. 오후 한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라차부리의 견고한 진영 거처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냈다.

왕은 프라야 위쨌나위를 보내 방깨우의 버마군 진영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게 했다. 또한
많은 병사를 징발하여 지원군으로 올려보냈다.

음력 셋째 달 하현 13 일 화요일 저녁, 두 야경 사이에 프라야 위쨌나위가 돌아와
아뢰었다.

“왕의 관원들이 버마군에 가까이 진을 치고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적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마하쨌차랏 대포와 짜롱포, 선수에 설치하는 포, 작은 쥘락포를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원문 주: 마하쨌차랏은 청동 대포의 한 종류이다. 불기 2317 년 말해에 제작을 명한 법령이 남아 있다.

그 법령에 따르면, 쫄라삭까랏 1136 년 말해의 윤팔월 하현 8 일 토요일 아침, 왕은 포대에서 대포 모형을 살펴본 뒤 녹나무 종이에 치수와 지시를 적었다. 명령서는 한 부는 보관하고 한 부는 장인에게 주도록 했다.

당시 대포의 약실은 길이 네 니우와 한 쉐카였는데, 한 니우를 더 늘려 모형과 같은 치수로 만들게 했다. 약실 입구는 기존보다 둘레 한 쉐카만큼 넓히고, 포신 내부의 포구는 둘레를 작은 쉐카의 절반만큼 넓히도록 했다. 약실 바깥쪽은 둘레 한 쉐카보다 크게, 포신 바깥쪽은 작은 쉐카의 절반만큼 넓히도록 했다.

니우와 쉐카는 원문에 사용된 당시의 치수 단위이며, 여기에서는 현대 단위로 환산하지 않았다.

원래 길이가 한 쿼 여덟 니우 반인 대포 모형을 기준으로, 약실을 한 니우 늘리고 포신을 열 니우 반 늘려 두 부분의 길이를 열한 니우 반으로 하게 했다. 기존 모형에서 늘어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길이는 한 쿼 여덟 니우로 적혀 있다.

마하췌차랏포에는 요새에 설치하는 대포와 야전용 대포가 있었으며, 수백 문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포들은 라따나꼬신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

불기 2340 년인 1797 년, 라마 1 세 재위 말기에 국방 관청이 올린 보고에는 대포의 청동을 녹여 다른 물품을 만든 내역이 적혀 있다. 불족적 사원의 문둑 지붕을 덮는 데 190 문을 사용하였다. 왓 프라깨우에서는 세마 표식의 주물 제작에 22 문, 기둥 주물에 61 문, 문둑 지붕에 80 문을 사용하였다. 둘레가 여덟 감인 큰 종을 만드는 데 14 문, 췌대 받침 제작에 세 문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불상 받침 제작에 여섯 문, 왕궁 문 둘레의 문설주 받침 제작에 여섯 문, 코끼리 장구 제작에 네 문을 사용하였다. 모두 합쳐 386 문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제 3 야경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은 라차부리의 견고한 진영을 떠나 왓 아란이까 방면으로 군대를 움직였다.

다음 날인 음력 셋째 달 하현 14 일 수요일, 아침 네 시각에 콕끄라따이의 왕자 진영에서 낮 동안 쉬었다.

이후 이동하여 왓 카오프라 진영의 거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인 음력 넷째 달 상현 1 일 목요일 아침, 왕은 방깨우의 버마군 진영을 살펴보고 갔다. 짜오 람락의 포위 진영에 이르러, 담당자들에게 대포와 가마에 실어 옮기는 충포를 서둘러 만들도록 명령했다.

“오후 세 시각까지 완성하라. 그 뒤에 알려라. 길한 때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날 오후 두 시각, 라차부리에 있으면서 소환 명령을 받은 몬족 관원들이 알현하였다. 루앙 밤리팍, 루앙 라차췌나, 프라 라만이 함께 왔다.

왕은 그들에게 은금 산의 수원에 진을 치고 지키라고 명령했다. 버마군이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적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후 세 시각이 되자 대포를 쏘게 했으나, 왕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오후 네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라차부리의 쿤 빨랏이 보고를 보내왔다.

“버마군 약 이천 명과 말 네 마리에서 여섯 마리가 썸반의 짜오과 관문으로 왔습니다. 관문 주민 두 사람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들이 계속 진군할 것인지, 그곳에 머물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낸 뒤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왕은 이 보고서를 듣고—

보고를 들은 왕은 왕자와 프라야 라차췌티에게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 라차부리의 진영을 굳게 지키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비어 있는 진영은 모두 해체하여 강가로 옮겨 세우고, 방어용 말뚝을 촘촘히 박도록 하였다.

음력 4 월 초이틀 금요일, 아침 두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내무 경찰의 우두머리 문 반라차가 정찰을 마치고 돌아와 아뢰었다.

“짜오프라야 인타아파이¹는 카오추아프란의 저수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영은 세 곳이며, 병력은 삼백여 명입니다.

음력 4 월 초하루 목요일에 버마군이 한 차례 공격하였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에는 세 차례 공격해 왔으나, 우리 군사들이 힘껏 맞서 싸웠습니다. 버마인 두 명과 라오인 한 명, 모두 세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버마군의 시체는 사오십 구가 넘게 보였으며, 부상하여 고통을 겪는 자도 많았습니다.

사로잡힌 라오인을 심문하니, 처음 공격해 온 병력은 삼백여 명이었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세 차례에 걸쳐 매번 팔백 명씩 증원하였으며, 이들은 뻑프랙 진영에서 온 군사들로 모두 삼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¹ 『옛 도성 주민들의 증언』에는 프라 인타아파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는 프라야 췌차부리 휘하의 지휘관으로, 불기 2310 년, 곧 1767 년 아유타야가 함락되기 전에 버마군을 막기 위해 싸완칼록 방면에 주둔하였다.

왕은 이 보고를 듣고 직접 군사를 이끌어 짜오프라야 인타아파이를 도우려 하였다. 그러나 프라 텡워라춘과 루앙 담꿍론나폼이 왕의 출정을 만류하며 자신들이 대신 가겠다고 자원하였다.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두 사람에게 외군과 내군, 끄롬 아짠 부대와 친위병을 맡겼다. 총 519 정과 창 226 자루, 합계 745 를 갖춘 군대를 기동부대로 편성하여, 그날 짜오프라야 인타아파이를 도우러 보내었다.

음력 4 월 초사흘 토요일, 아침 두 시각에 왕은 왓 카오프라 진영의 행궁에 머물고 있었다.

짜오 람락이 테라 추앙이라는 승려를 보내왔다. 그는 왓 방낭깨우에 있던 승려로, 버마군에게 붙잡혀 진영 안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었다. 왕의 시종 나이 쭈이가 그를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이 묻자 승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버마군은 진영 안에 천여 명 있습니다. 여자는 두 명을 보았으며, 코끼리는 세 마리, 말은 아홉 마리였습니다.

식량을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먹으면 열흘쯤 먹을 수 있을 듯하며, 한 달쯤 먹을 수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왕자와 사위들이 진영 안으로 쏘아 넣은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고, 고통을 겪는 자도 있습니다. 버마군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대나무와 발로 구덩이 입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그대가 도망쳐 온 것인가, 아니면 버마군이 보내서 온 것인가?”

승려가 대답하였다.

“버마군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소승이 도망쳐 왔습니다.”

왕은 말하였다.

“그 말은 사실로 여겨지지 않는다. 도망쳐 왔다면 버마군이 어찌 그냥 놓아주었겠는가? 총을 쏘았을 것이다. 계략인 듯하다.”

왕은 시종 나이 쭈이에게 테라 추앙을 데리고 가서, 앞서 말한 짜오 람락의 진영에 두도록 명하였다.

또한 버마어 통역 든 웅와차에게, 짜오프라야 인타아파이가 사로잡아 왕의 진영으로 보낸 버마인과 라오인을 심문하게 하였다. 왕은 공격해 온 지휘관과 각 진영에 주둔한 지휘관의 이름을 물었다.

버마인이 진술하였다.

“저수지 진영을 공격한 지휘관은 네묘이며, 병력은 천 명입니다.

방낭깨우에 주둔한 지휘관은 유용포로, 선봉군 천여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빠프랙에 주둔한 지휘관은 싸깨앵라농입니다. 본대를 지휘하며, 아바 왕의 친족입니다. 병력은 삼천여 명입니다.

타와이 방면에서도 천 명가량이 증원되어 왔습니다. 그 지휘관의 이름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왕은 프라 나룽위젯에게, 총프란의 짜오프라야 인타아파이 진영에서 총에 맞아 죽은 버마군의 머리를 잘라 오도록 명하였다. 그 머리들을 버마군을 둘러싼 각 진영 앞에 빠짐없이 꽂아 두게 하였다.

오후 네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은 낭깨우 진영의 버마군을 포위한 모든 지휘관에게 다음과 같이 명을 전하게 하였다.

“버마군을 가두어 굶주리게 한 뒤, 쌀로 유인하여 붙잡도록 하라.

버마군이 진영 밖으로 돌아다니더라도, 그 틈을 타 적의 진영을 빼앗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키며 적을 막아 세우고, 거기에서 멈추도록 하라.

버마군이 달아나게 되면, 해당 구역을 맡은 장수와 지휘관, 군사 모두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왕은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라 텡위라춘에게 총을 든 군사 백 명을 맡겨, 병력이 적은 구역으로 가서 지원하게 하였다.

밤 세 톱 아홉 bat 무렵, 왕이 행궁에 있을 때 대포와 총을 집중적으로 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왕은 버마군이 달아나려는 것이라 생각하여, 꼬롬 아짠 부대에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돕도록 명하였다.

이어 왕이 진영 밖으로 나가니 버마군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때 내무 경찰 든 반라차가 와서 아뢰었다.

“버마군 삼백여 명이 루앙 마하텡의 진영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집중 사격하자 버마군은 진영 안으로 돌아갔으며, 총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왕은 버마군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진영 안으로 돌아왔다.

음력 4 월 초나흘 일요일, 오후 다섯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프라 텡위라춘이 와서 아뢰었다.

“사람을 보내 몰래 정찰하게 하였더니, 특계에 버마군 진영이 있었습니다. 병력은 칠백에서 팔백 명가량입니다.”

음력 4 월 초닷새 월요일 아침, 왕은 왓 카오프라 진영의 행궁에 머물면서 쿤 아갓싸라플룽에게 매질 육십 대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쿤 칸타썩, 중국인 두앙, 중국인 끼, 중국인 후, 나이 릿에게는 각각 삼십 대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들의 잘못은 왕실의 운반식 총포를 쏘면서, 왕이 명한 대로 사오십 발을 한꺼번에 발사하지 않고, 왕실의 포탄과 사로잡은 적에게서 얻은 포탄을 한 발씩 쏘아 보낸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적이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승리할 기회를 놓쳤다.

그 죄는 중죄였으나, 왕은 자비를 베풀어 이 정도의 형벌만 내리고, 깊이 기억하도록 하였다.

아침 다섯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루앙 락몬티안이 알현하러 왔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리들을 어느 고을이나 마을의 전쟁에 보내더라도, 아버지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한다.

지난번 아버지가 치앙마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는, 자식들에게 후방의 일을 맡겼다. 그런데 버마군에게 패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는, 쌀과 생선 등 먹을 것이 부족하였다고 서로 변명하였다.

이번 전쟁에서도 아버지는 어느 자식도 미워하지 않는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내리지 않고, 잘못된 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처사는 나라의 통치에 합당하지 않다.

왕의 법도에 따라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지위와 서열에 맞추어 고을을 맡겨 다스리게 한다. 잘못된 자에게는 그 죄에 따라 매질하거나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 나라의 일이 제대로 되고, 버마군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애써 고통을 견디며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교를 지키고, 승려와 브라만, 백성이 나라의 경계 안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며, 거짓과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자식들이 버마군에게 패하였다. 죄를 물으려 하니 몹시 안타깝다. 그동안 길러서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잘못은 우선 보류하고, 한 번 더 공을 세워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 다만 아내와 자식은 모두 가두어 두도록 하라.

라차부리에 진영을 세웠을 때 버마군이 공격해 오거든, 이를 막아 승리하라. 그러면 장수와 군사 모두가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서둘러 잘 생각하여라. 아버지가 전쟁의 법을 없애 줄 수는 없다.

장수나 지휘관의 자리를 맡을 수 없겠다면, 일반 군사가 되겠다고 아뢰어도 좋다. 뜻에 따라 허락하겠다.

할 수 있겠다면, 서둘러 방도를 생각하고 공을 세워 잘못을 만회하여 목숨을 보전하도록 하라.”

밤 한 톱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은 루앙 똥팟의 진영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왕은 끄롬 아짠 부대에 총을 든 군사를 이끌고 나가 돕도록 명하였다. 버마군이 진영 앞으로 나와도 함께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였다.

저녁 무렵 버마군은 프라 랏따나꼬씨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양군은 힘껏 싸웠고, 버마군 사오십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한 명을 사로잡았으며, 많은 총과 창을 얻었다.

버마군은 진영 안으로 돌아갔고, 부상을 입어 고통을 겪는 자가 많았다.

음력 4 월 초엿새 화요일 아침, 프라 랏따나꼬씨는 사로잡은 버마인 한 명을 왕에게 보내었다.

왕은 그에게 물었다.

“그 진영에 있는 버마군 지휘관들은 어떤 의논을 하고 있는가?”

버마인이 대답하였다.

“나와서 왕께 절하고 복종하자고 하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두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루앙 똥르어팍이 보고를 보내왔다.

“버마군이 말 서른 필가량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여러 발을 쏘자, 말을 타고 온 버마군은 달아났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프라 나룻위짖에게 고정식 총포를 가져가도록 명하였다. 루앙 밤르어팍의 진영에 세 문, 짜오프라야 인타아파이의 진영에 세 문을 보내, 진영을 잘 지키게 하였다.

또한 쿤 핏폼에게 루앙 웅팍의 진영에서 사로잡은 버마인을 데리고 나가도록 명하였다. 루앙 밤르어팍의 진영 밖, 버마군이 말 서른 필을 타고 들어온 길에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하였다.

등에 난 창 자국을 밖에 있는 버마군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자는 모두 창에 찔려 죽는다고 생각하게 하여,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었다.

오후 세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거센 폭풍이 잠시 불어왔다가 사라졌다.

해 질 무렵에서 다섯 밤이 지난 때에 의원 쿤 위췌오췌이 왕대비의 병세를 적은 보고를 가지고 왓 카오프라 진영의 행궁으로 와서 아뢰었다.

왕은 병세를 살펴본 뒤, 쿤 위췌오췌에게 서둘러 돌아가도록 하였다. 만일 왕대비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면 모든 의원을 붙잡아 가두도록 명하였다.

왕은 말하였다.

“병세를 보니 몹시 위중하여, 때맞추어 가서 뵈지 못할 듯하다.

그러나 이번 나라의 일이 너무도 크고 중하다. 지금 떠나려 하여도, 적을 맞아 지킬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음력 4월 초여드레 목요일, 아침 세 시각에 왕은 루앙 아파이싸라플룽에게 진영에 남아 지키도록 명하였다.

왕은 왓 카오프라의 굳건한 진영을 떠나 콕끄라따이 진영의 행궁으로 옮겨 머물렀다. 모든 군사가 물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행궁에 도착하자 한 사람이 아뢰었다.

“버마군이 말을 타고 나와 카오응우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왕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버마군의 말을 보았다. 이에 끄롬 아짠 부대와 군사, 친위병, 노를 짓는 병사 가운데 총을 든 오백 명에게 버마군을 쫓아 흩어 버리도록 명하였다. 그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였다.

네 부대의 군사가 버마군을 따라잡아 힘껏 싸웠다. 버마군은 무너져 달아났으며, 총에 맞아 죽은 자도 있고 사로잡혀 왕에게 보내진 자도 있었다.

왕이 심문하도록 하니, 버마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타와이의 총독이 구백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소형 총포는 백오십 정입니다.

짜오과 관문에 오백 명이 주둔하였으며, 사백 명은 순찰하러 나왔습니다. 말은 네 필입니다.”

왕은 말하였다.

“버마군을 사로잡은 공은 우선 기록해 두도록 하라. 나라의 일을 마친 뒤에 상을 내리겠다. 모두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왕은 본대의 왕실 소속 장정들에게 콕끄라따이에서 물을 길어, 방낭깨우의 버마군을 둘러싼 선봉군에게 보내도록 명하였다.

식량과 그 밖의 모든 먹을 것도 계속 보내주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왕이 루앙 땀르어팍의 진영과 프라야 라만의 새 진영에 보내어 소식을 알아오게 한 기마 전령이 돌아와 아뢰었다.

“프라야 라만의 진영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버마군이 진영을 세워 그 진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왕은 이를 듣고 프라야 티벳보디에게 군사 오백 명을 맡겼다. 여기에 지방의 관리들을 거느린 프라야 아파이론나릿의 부대를 합쳐, 모두 천 명이 프라야 라만을 도우러 가게 하였다.

프라야 티벳보디는 그날 출정하였다. 프라야 아파이론나릿과 프라 나룽위차이, 프라야 라차부리가 선봉을 맡았으며, 프라야 티벳보디가 본대를 이끌었다.

이들은 돌진하여 적진 안으로 들어갔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버마군 백여 명이 죽었으며, 부상을 입어 고통을 겪는 자도 매우 많았다.

우리 군대는 그곳에 진영을 세우려 하였으나, 미처 세우기 전에 프라 나룽위차이와 지휘관 통쑥, 쿤 차나, 나이 키아오차와이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지휘관과 군사 가운데서도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군사들은 사기를 잃고 약 육칠 센 뒤로 물러나, 적과 맞서 싸우며 진격을 막아 세웠다...

버마군이 진영 안으로 물러가자, 우리 군대는 진영 여섯 곳을 세울 수 있었다. 이어 전령을 내려보내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이 보고를 듣고 지휘관들을 엄히 꾸짖게 하였다.

“진영을 차례로 세우며 전진하라고 명한 것은 병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프라야 티벳보디는 성급히 돌진하였다. 미처 진영을 세우지 못하여 군사를 잃고 왕의 명예까지 손상하였다. 장수와 지휘관을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왕은 이번에는 처벌을 보류하였다. 프라야 티벳보디에게 서둘러 진영을 세우며 전진하여, 몬족 군사들을 구출해 나오도록 명하였다.

“구해 내지 못하면 모든 장수와 지휘관을 그 일족과 함께 죽일 것이다.”

왕은 쿤 팍디쑹크람에게 외군의 친위병 사백 명을 맡겨, 그날 지원하러 보내었다.

이들은 진영을 차례로 세우며 전진하여 아홉 곳까지 마련하였다. 진영 세 곳만 더 세우면 프라야 라만의 진영에 이를 수 있었다. 이에 군사를 따로 내보내 적과 맞서 싸우게 하였다.

밤 한 톱이 조금 지난 때, 버마군이 이쪽의 전투에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에 루앙 밤르어팍과 프라야 라만 쏘는 포위를 뚫고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프라야 티벳보디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하였다.

그날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이 콕끄라따이에 이르렀다. 왕은 그를 불러 알현하게 하고,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에게 군법을 집행할 권한과 왕의 칼 한 자루를 내렸다.

왕은 짜오프라야 나콘싸완¹에게 그 권한을 맡기고, 누구든 나태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면 『피차이쑹크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징집하여 훈련한 총병 사십 명과 운반병 사십 명, 왕실의 말 한 필을 내렸다. 외군에서도 총병 백오십 명과 운반병 백오십 명을 붙여 주었다. 루앙 아파이싸라플룽에게는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의 부대에 합류하도록 하였다.

왕은 몸에 지니고 있던 보석 반지 하나를 빼어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에게 내리고, 다음과 같이 축원하였다.

“모든 적을 이기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로 그때 신기하게도 큰 구름에서 가랑비가 잠시 내렸다.

¹ 왕의 친필본 연대기에는 짜오프라야 짜끄리, 곧 두앙에게 군법 집행권을 내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료를 보면, 당시 훗날의 라마 1 세인 솜텃 프라 푼타웃파 쯔라룩은 아직 ‘프라야’의 지위에 있었다.

『연대기 집성』 제 2 부에 수록된 불기 2318 년 왕대비 궤륵 프라 텡파맛의 장례 관련 왕명 기록과, 불기 2319 년 나콘쌔탐마랏 왕을 책봉한 명령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뒤의 원본에는 또 한 부분이 빠져 있다

빠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낭깨우 진영의 버마군을 포위하여 사로잡은 일.
2. 카오차응웜 진영의 버마군이 무너져 흩어져 달아난 일.
3. 왕이 본대를 이끌고 돈부리로 돌아온 일.
4. 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상을 내린 일.
5. 전쟁에서 용맹을 보인 왕자와 왕실의 조카들에게 작위를 내린 일.
6. 왕의 어머니인 숨텃 궤륵 프라 텡파맛²의 장례를 치른 일. 왕대비는 왕의 본대가 라차부리 지역에서 버마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7. 버마군이 북부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프라야 짜끄리 두앙에게 핏싸눌룩으로 올라가 짜오프라야 쭈라씨 분마를 돕도록 명한 일.
8. 아쎄운끼가 군대를 이끌고 딱 방면으로 침입하여, 계속 진격하다가 핏싸눌룩 가까이까지 이른 일.
9. 왕의 본대가 서둘러 올라가 빠핑에 주둔하고, 선봉군에게 핏싸눌룩 경계까지 진영을 차례로 세우며 전진하도록 명한 일.

² 음력 6 월, 불기 2318 년의 왕명 기록 가운데 궤륵 프라 텡파맛의 장례를 다룬 문서가 남아 있으나, 아직 인쇄하여 간행되지 않았다.

이어서 연대기의 본문이 계속된다

버마군의 뒤를 에워싸며 접근하도록 하자, 모든 대신이 이에 동의하였다. 밤 네 톱이 조금 지난 때에 왕의 본대는 그 구상에 따라 물러나 진영을 세웠다.

불기 2318 년, 음력 3 월 하현 4 일 목요일에 왕은 왓 찬에 주둔한 짜오프라야 나콘쌔완의 부대와, 왓 방싸이에 주둔한 프라 호라티보디와 프라야 끌랑므앙의 부대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왕은 짜오프라야 마하몬티안에게 본대의 병력 사천 명을 맡기고, 짜오프라야 나콘쌔완을 선봉으로 삼았다. 루앙 담깁과 루앙 락요타에게 외군과 내군, 징집 훈련병 삼천사백 명을 지휘하게 하였다.

이들에게 군법 집행권을 주고, 진영을 서로 이어지게 세우면서 올라가 적의 형편을 살피도록 명하였다. 버마군이 공격해 오지 않으면, 더 전진하여 적과 맞붙도록 하였다.

또한 프라 쏹크람을 내려보내 논타부리에서 프라 라차빠к 대포와 짜뜨룽 대포를 가져오게 하였다.

음력 3 월 하현기의 화요일에 프라야 쭈코타이가 보고를 보내왔다.

“버마군이 반쯤에 진영 다섯 곳을 세운 뒤, 강을 따라 서쪽 강변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은 버마군이 돌아서 식량 수송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프라야 라차팍디의 부대를 나콘싸완 진영으로 보내, 프라야 라차췌티와 므 피탁꼬씨의 임무를 돕게 하였다.

프라야 탐마에게는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을 지원하도록 하여, 강 서쪽의 왓 찬에서 버마군 가까이 접근하게 하였다.

해 질 무렵 짜오프라야 쭈라씨는 나무를 집게 모양으로 만들고, 기름을 적신 천을 그 사이에 끼우게 하였다. 여기에 불을 붙여 충구에 넣고 쏘아 보냈다.

이렇게 하여 서쪽 강변에서 도성 가까이 접근해 있던 버마군 진영 한 곳과 전투용 망루 두 곳을 불태웠다.

버마군이 불을 끄려고 나오면 총을 쏘았다. 총에 맞아 죽거나 고통을 겪는 버마군이 많았다.

음력 3 월 하현 13 일 금요일에 쿤 팻싸디가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버마군이 꾸이와 뻘란을 공격하였습니다. 두 고을에서는 적을 막아내지 못하여 주민들을 차암으로 옮겨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 뒤 버마군은 물러갔습니다. 왕의 조카인 꼬롬 쿤 아누락송크람께서는 군사를 보내 충캐프에서 적군의 진로를 막고 있습니다.”

왕은 짜오 빠툼파이췌에게 내려가 논타부리의 일을 돕도록 명하였다.

또한 프라 쏘툼솜밋과 므 씨싸하텡에게 옷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 옷들은 캄팽펫 지역의 란독마이로 내려와 있던 문족들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음력 3 월 하현 13 일 토요일에 차이나트의 욱끄라밋이 와서 아뢰었다.

“루앙 폰과 부관 쿤 롱빨랏, 나이 추를 캄팽펫으로 보내 소식을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반논쌀라에 버마군 진영 두 곳, 반탈록밋에 한 곳, 반루앙에 한 곳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 버마군은 내려가 우타이타니의 마을들을 불태웠습니다. 이후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왕은 쿤 인타라데차를 총지휘관으로 삼고, 몸 췌타꾸만에게 본대를 맡겼다. 루앙 쏘라위찻³과 우타이타니의 부관을 선봉으로 삼았으며, 몸 아누룻테와를 감독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에게 내려가 식량과 총포를 지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도록 명하였다. 나콘싸완에서 일이 생기면 끄롬 아짠 부대의 일부를 나누어 보내 돕도록 하였다. 이들은 쿡쌌파에 주둔하였다.

³ 본래 이름은 혼이다. 랏파나꼬썬 왕조 라마 1 세 때인 소력 1144 년의 포상 기록에 이름이 나오며, 이후 짜오프라야 프라클랑까지 승진하였다.

음력 3 월 하현 14 일 일요일에 왕은 짜오프라야 짜끄리⁴ 를 타롱 행궁으로 불러 알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짜오프라야 짜끄리가 병이 나 내려올 수 없었으므로, 프라야 쑤라씨를 대신 내려오게 하였다.

왕은 병력을 줄여 나콘싸완에 주둔시키고 식량을 지키게 하는 문제를 의논하였다. 핏싸눌록의 일을 지키는 것은 짜오프라야 쑤라씨가 맡겠다고 하였다.

그날 큰 씨씨하텡이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의 보고서와 버마인 포로 한 명을 데리고 내려와 왕에게 아뢰었다.

“진영을 차례로 세우며 반방쑤뽀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미처 진영을 세우기도 전에 버마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 군대는 힘껏 맞서 싸웠으며, 적 한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고, 부상자를 서로 끌고 가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버마군은 쌀과 소금이 부족합니다. 소금값이 몹시 비싸서, 무게 두 바트 분량을 은 한 바트에 사고 있습니다.”

⁴ 불기 2319 년 끄롬 프라 텡파맛의 유해에 제사를 올린 왕실 행사 기록을 보면, 훗날의 숨땃 프라 췌타웁파 쥘라룩은 당시 아직 ‘프라야’의 지위에 있었다.

음력 4 월 초이틀 화요일에 팍남핑 진영을 지키던 프라야 랏파나피몬이 보고를 보내왔다.

“사람을 보내 뽕쑤쌀룽까지 정찰하게 하니, 버마군 이백 명가량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버마군이 숲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은 팍남핑에서 안쪽으로 강의 굽이 세 곳쯤 되는 거리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왕은 루앙 위쑤요타맛과 루앙 라차요타텨에게 수레에 장착한 대포 여덟 문을 맡겨, 뻥남핑 서쪽 강변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음력 4 월 초사흘 수요일에 왕은 타룽에서 동쪽 강변을 따라 걸어 올라가, 반캐에 주둔한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의 진영에 이르렀다.

왕은 모래톱 한가운데 놓인 왕실 의자에 앉았다. 짜오프라야 나콘싸완과 프라야 탐마는 강을 헤엄쳐 건너와 왕을 알현하고 아뢰었다.

“버마군이 가까이 진영 네 곳을 세운 뒤, 토루를 쌓아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놈들이 토루를 쌓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적을 막을 때에는 정면으로만 진영을 세우지 말고, 옆으로 벌여 차례로 세워라. 적이 그에 따라 진영을 늘리면, 우리도 더 많이 펼쳐 세우도록 하라.

진영마다 군사 오십 명을 두어 지키게 하고,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적이 어느 진영을 공격하려 하든, 와서 공격하게 두어라.

군사가 되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삼보와 임금을 위해 몸을 바칠 뜻을 세워라. 그 충성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힘이 지켜 줄 것이니,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임무를 소홀히 하면 처형하도록 하라. 그래야 전쟁에서 다시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다.”

왕은 프라야 씨라차데초의 부대와 므 틱세나의 부대를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의 군대에 합류시키도록 하였다. 징집 훈련병과 끄롬 아짠 부대는 왕의 본대에 두었다.

또한 핏싸눌록으로 사람을 보내, 짜오프라야 짜끄리를 그 진영의 행궁으로 불러 알현하도록 하였다.

그때 뻥남핑에서 대포와 총을 쏘는 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려왔다. 왕은 짜오프라야 짜끄리에게 타룽 진영의 방비를 정비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세 번째 야경 무렵에 본대를 이끌고 뻥남핑으로 이동하였다.

밤 열한 틈에 버마군은 참호를 파며 접근하여, 타퐁 운하에 있던 프라야 탐마뜨라이록과 프라야 랏따나피몬의 부대를 공격하였다. 대포와 총을 집중적으로 쏘는 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음력 4 월 초나흘 목요일에 왕은 배를 이어 만든 다리를 건너 서쪽 강변으로 갔다.

프라야 쑤코타이에게 병력을 증원하여 진영을 세우고, 좌우로 뻗은 참호를 서로 이어지게 파도록 명하였다.

루앙 락요타와 루앙 팍디쑹크람에게는 타퐁 어귀에서 버마군 가까이에 진영을 세우도록 하였다.

루앙 담꿍에게는 징집 훈련병과 기존 꼬롬 아짠 부대, 새로 편성한 꼬롬 아짠 부대를 지휘하여 프라야 쑤코타이의 군대에 합류하도록 하였다. 루앙 쉐나팍디와 깨우찐다 총포 부대는 후방을 공격하게 하였다.

음력 날짜가 3 월로 적힌 토요일 아침, 각 부대는 함께 적의 후방을 공격하였다. 안으로 힘껏 돌진하여 치열하게 싸웠다.

버마군은 쓰러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쿤 아깃싸라플룽도 총에 맞아 죽었다.

음력 4 월 초사흘 일요일에 왕은 프라 호라티보디의 부대와 루앙 락몬티안의 부대를 콕쌀룻으로 내려보내 주둔하도록 명하였다. 식량 운반선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루앙 깨우찐다 총포 부대의 욱끄라밧인 루앙 쉐나팍디가 와서 아뢰었다.

“적의 후방을 공격하며 돌진하자, 버마군이 참호를 파고 세 방향에서 둘러쌌습니다.

꼬롬 아짠 부대는 물러나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밤새 참호를 파며 싸웠고, 프라야 쑤코타이가 공격하여 들어갔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아짠 통과 나이 디, 나이 무앗을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그 자리는 쿤 람나룽에게 맡겨, 계속 부대를 지휘하며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오후에 왕은 타퐁 운하의 전투 진영을 살펴보러 갔다.

그 진영에서 바깥쪽으로 이십이 센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세우고, 좌우의 날개를 따라 땅을 파서 통로가 서로 이어지도록 명하였다.

그때 왕은 프라 쑤탐아짠과 프라 위싼쑤탐의 잘못을 추궁하였다. 이어 잘못을 만회하도록 기회를 주어, 군사와 징집 훈련병을 이끌고 버마군 가까이에 진영을 세우게 하였다.

그날 오후 다섯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버마군이 진영을 공격하러 나왔다. 양군은 힘껏 싸웠고, 루앙 담꿍은 총을 쏘아 많은 버마군을 죽였다.

또한 외군 친위병 쿤 한이 진영을 지키던 중, 흠으로 된 통 안에 불이 떨어져 붙었는데...

불이 붙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쿤 한도 전쟁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왕은 그의 목을 베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왓 찬에 주둔한 프라야 욤마랏을 내려오게 하여 알현하도록 하였다. 왕은 그에게 군법 집행권을 주고, 타퐁 운하에서 버마군과 싸우는 열 개 부대를 지휘하여 더욱 용감하게 싸우도록 하였다.

음력 4 월 열하루 목요일에 타룽 진영을 지키던 프라야 텡워라춘과 루앙 위짚나룽이, 동쪽 강변 왓 프리 진영에서 흠어져 나온 군사들을 왕에게 보내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부 병기 부대의 군사 이백십사 명이 다섯 진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야경이 조금 지난 무렵, 버마군이 강을 건너와 진영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힘껏 싸웠으나, 버마군이 진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장수와 지휘관들은 흠어져 달아났습니다.”

왕은 큰 틈 한 명과 군사 열한 명을 처형하여, 왕의 진영 문 앞에 꽂아 두도록 하였다. 그 진영에서 달아난 장수와 군사도 붙잡는 대로 죽이도록 명하였다.

또한 콕쌀룻에 주둔한 프라 호라티보디와 루앙 락몬티안의 부대, 포탑창에 주둔한 프라야 나콘차이씨의 부대를 팍남핑의 왕실 본대를 지원하도록 불러들였다.

음력 4 월 열이틀 금요일에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이 보고를 보내왔다.

“버마군이 진영을 세워 에워싸며 강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 강을 건너 왓 프리 진영을 공격하여 무너뜨렸습니다.

버마군이 뒤를 돌아 공격하려는 듯하므로, 동쪽 강변으로 정찰대를 보내고 군사를 배치하여 막겠습니다.”

왕은 프라야 끌랑므앙과 프라 호라티보디, 프라 위짚나룽, 프라야 텡의 부대를 프라야 욤마랏의 군대에 합류시키도록 하였다. 이들에게 동쪽 강변 왓 프리에 주둔한 버마군을 공격하게 하였다.

루앙 락몬티안에게는 팍남핑 서쪽 강변에서 프라야 끌랑므앙의 구역에 있는, 버마군과 가까운 진영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때 버마군은 왕의 본대 뒤를 에워싸며 돌아갔다. 병력을 나누어 프라야 욘마랏의 진영을 뚫고 들어오는 데 성공하였으나, 프라야 욘마랏이 곧바로 군사들을 몰아 반격하여 진영을 되찾았다.

이렇게 십일에서 십이 일가량이 지나자, 버마군의 핏싸눌록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도성 안에서는 식량이 몹시 부족하였고, 군사들은 쇠약해져 고통을 겪었다.

왕의 본대도 병력을 잃고 물러나 방카우뚝에 주둔하였다.

음력 5 월 상현기에 짜오프라야 짜끄리와 짜오프라야 쑤라씨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두 사람은 군사들을 이끌고 버마군의 포위를 뚫어 핏싸눌록에서 빠져나왔다.¹

각 부대는 흩어져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버마군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오지 않았다.

¹ 점성관의 기록에는 소력 1138 년, 불기 2319 년의 음력 6 월 보름 목요일, 두 번째 야경이 조금 지난 때에 핏싸눌록을 잃었다고 되어 있다.

그때 아바에서 전령이 문서를 가지고 버마군 총사령관 아쎄운끼에게 도착하였다.

아바에 변고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아홉 해 동안 나라를 다스린 몽라 왕이 세상을 떠났고, 왕자인 징구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아버지 망포아가 죽은 뒤 징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소력 1143 년에 징구는 한파와디로 내려가 프라 무따오를 참배하였다. 그 사이 망록의 아들 몽몽이 반란을 일으켰다.

징구는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고, 몽몽은 싸왓찰을 아바의 왕으로 세웠다. 징구는 일곱 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아쎄운끼는 이 변고를 알고 군대를 물리도록 하였다.

왕은 적에 대한 분노가 컸다. 몬 쏘라쌌땡을 불러 왕 앞으로 나오게 한 뒤, 군사와 징집 훈련병을 이끌고 올라가 버마군을 추격하여 싸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하였다. 왕은 그를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프라야 피차이쑹크람은 자기 고을로 돌아가 군사들을 정비하고, 밖으로 출격하여 버마군의 진로를 막는 일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왕은 프라야 텡과 프라야 랏따나피몬, 프라야 나콘차이씨, 프라야 툽카라트, 루앙 락요타, 므 응나레쑤안의 부대를 선봉으로 삼았다. 프라야 쑤라보딘은 군대를 이끌고 버마군을 공격하러 갔다.

음력 6 월 하현 11 일 월요일에 프라 라차쑹크람이 왓 마이의 주지인 마하 쏘핏²의 글을 가져왔다. 그 글은 종려잎에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타투윙』³에 있다는 부처의 예언이었다.

“대신의 가문⁴ 에서 네 왕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 왕의 때에 버마군이 올라와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도성이 버마군에게 함락된 뒤에는 짜오포 아끄라원⁵이라는 사람이 남쪽 바닷가의 방콕이라는 고을을 다스리는 프라야가 될 것이다.

그는 고을을 일으켜 일곱 해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 일곱 해의 끝에 버마군이 올라와 힘을 다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며, 전쟁은 세 해 동안 계속될 것이다.

불기 2320 년, 소력 1138 년에 방콕의 도성이 함락될 것이다. 왕은 사리가 모여 있는 톱부리로 올라가 머물도록 하라. 적은 그곳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² 앞의 책머리 각주를 참고할 것.

³ ‘타투윙 경전’을 가리킨다. 국립도서관 소장 팔리어·산스크리트어 경전 목록에는 관련 경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랑카섬에 사리를 봉안한 일을 다룬 『날라따타투윙』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의 치아 사리가 여러 곳에 봉안된 이야기를 다룬 『타타타투윙』이다. 두 경전 모두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들어 있지 않다.

⁴ 왕실의 가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⁵ 톱부리의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책머리 각주에서도 이를 언급하였다.

왕은 말하였다.

“방콕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브라만이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 말대로 행하기는 해야 한다. 우선 칠 일쯤 가서 머물러, 예언의 형식을 맞추도록 하겠다.”

음력 6 월 하현 11 일 월요일에 왕은 프라야 폰텡과 루앙 나오흐, 므 짜므어짜이에게 군사를 이끌고 팻차분으로 올라가도록 명하였다.

버마군이 공격해 오더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맞서 싸우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주민들과 식량을 도성으로 옮겨 보내도록 하였다.

짜오프라야 나콘싸완과 프라야 싸완칼룩에게는 캄팽펫 방면으로 가서 버마군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진영의 후방에 있던 프라야 욤마랏에게는 내려와 방카우푹 운하 어귀의 왕실 진영을 지키도록 하였다.

왕의 본대는 핏싸눌록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며, 십일 일 동안 야영하였다.

음력 6 월 하현 14 일 수요일에 왕은 나콘싸완 진영의 행궁에 도착하였다.

왕은 프라야 탐마뜨라이룩의 부대에서 달아나 내려온 루앙 찻쑤톤을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육로와 수로로 움직일 태국군의 부대를 편성하고, 모든 부대에 적용할 군법을 나누어 주었다.

“군사가 지휘관을 따라오지 못하면 죽여라.

왕을 수행하는 관리가 왕의 행차를 따라오지 못하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음력 7 월 초이틀 토요일에 왕은 수로로 이동하여 반방캐의 진영 행궁에서 밤을 보냈다.

루앙 왕이 정찰을 마치고 돌아와 아뢰었다.

“캄팽펫에 버마군 이천여 명이 주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음력 7 월 초닷새 수요일에 른 참논싼이 와서 아뢰었다.

“버마군이 핏싸눌록을 떠나면서 사찰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프라 친나랏 불상만 남아 있습니다.”

왕은 프라야 욤마랏에게 서쪽 방면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프라야 라차쑤파와디에게는 동쪽 방면으로 가도록 하였다.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은 올라가 방프라탓에서 합류한 뒤, 모두 함께 강을 건너도록 하였다.

음력 7 월 초엿새 목요일에 왕의 본대는 올라가 뻥남춤 위쪽의 동쪽 강변에서 밤을 보냈다.

왕은 쿤 쏜톤 한 명과 므난, 하인 한 명을 처형하여, 왕실 진영 앞 모래톱에 꽂아 두도록 하였다.

한편 루앙 왕이 반쌔르안으로 정찰을 다녀와 아뢰었다.

“버마군 백여 명이 이동해 왔습니다.”

왕은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에게 반콘에서 군대를 물리도록 하였다. 프라야 쑤라보딘에게는 캄팽헛으로 가서 버마군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프라야 쑤라보딘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반콘에 있던 버마군은 이미 철수하였습니다. 캄팽헛에 있던 버마군은 서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음력 7 월 열이틀 목요일에 왕은 본대를 물려 나콘싸완에서 낮 동안 머물렀다.

우타이타니의 관문 주민들이 보고를 보내왔다.

“버마군 백여 명이 지나 내려와 행궁을 불태웠습니다. 이어 왕실 군대와 한 차례 힘겹게 싸운 뒤, 다른 길로 이동하였습니다.”

왕은 깨우찐다 부대에 적을 추격하도록 명하였다.

“따라잡거든 공격하여 흩어 버리도록 하라. 정찰대를 보내 싸이옥까지 살피도록 하라.”

용띠 해, 소력 1138 년, 불기 2319 년의 음력 7 월 열나흘 토요일에 왕은 돈부리에 도착하였다.

음력 7 월 하현 2 일 월요일에 프라야 욤마랏과 프라야 라차쑤파와디가 보고를 보내왔다.

“우타이타니에서 버마군과 힘껏 싸웠습니다.”

왕은 왕자인 끄롬 쿤 인타라피탁에게 병력 천 명을 맡겨, 수군을 이끌고 올라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음력 7 월 하현 5 일 목요일에 왕은 수로로 올라가 차이나트 동쪽 강변의 행궁에 도착하였다. 끄롬 쿤 인타라피탁에게는 다시 내려가 돈부리를 지키도록 명하였다.

한편 프라야 욤마랏이 보고를 보내왔다.

“우타이타니에서 버마군과 가까이 대치하고 있으나, 식량이 몹시 부족합니다. 병사들은 물러나 동카이끄르안에 주둔하였습니다.”

몸 짜오 나라벳과 깨우찐다 부대도 보고를 보내왔다.

“버마군을 뒤쫓아 따라잡았습니다. 반듬방낭부앗에서 힘껏 싸웠으며, 버마군은 쓰러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버마군을 추격하여 충분히 교전하였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때가 되었다.

피짖과 나콘싸완, 쿵쌈파에 있는 군대를 모두 철수하여, 차이나트의 왕실 진영으로 내려오도록 하라.”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라차쑤파와디, 프라야 라만에게는 육로로 내려가 나콘차이씨와 라차부리로 가도록 하였다.

“버마군을 만나면 공격하라. 숲에 숨어 있는 주민들을 만나면 모아서 내려보내라.”

짜오프라야 짜끄리와 짜오프라야 쑤라씨, 프라야 탐마에게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돈부리의 동쪽 강변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라차쑤파와디는 나콘차이씨 지역의 끄라툼벤과 농부아에서 농사를 지었다.

음력 8 월 초하루 일요일에 왕은 나콘싸완으로 올라갔다.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마하쎄나에게 서둘러 출정하도록 명한 뒤, 그날 다시 내려왔다.

왕은 삽파야에서 왕실 배를 타고 내려와 반응이우에 머물렀다.

음력 8 월 초사흘 화요일에 돈부리에 도착하였다. 왕은 군사들을 돌보고 격려하여 사기를 유지하게 하였다.

용띠 해, 소력 1138 년, 불기 2319 년의 음력 9 월 상현기에 끄롬 쿤 아누락쑹크람과 끄롬 쿤 람푸벳, 프라야 마하쎄나, 프라야 욀마랏 및 각 부대 지휘관들이 보고를 보내왔다.

“버마군은 쌀과 생선 등 먹을 것이 몹시 부족하여, 우타이타니에서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나콘싸완에 주둔한 버마군도 철수하였습니다. 다만 팔백에서 구백 명가량은 남아, 팻차분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자기편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력 해 음력 9 월 열이틀 토요일에 왕은 돈부리에서 열한 개 부대의 본대를 이끌고 출정하였다. 수로로 북부에 올라가 버마군을 진압하려는 것이었다.

나콘싸완의 선봉군이 버마군을 공격하자, 적은 무너져 캄팽팻 방면으로 달아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음력 9 월 하현 2 일 목요일에 왕은 꺄롬 쿤 람푸벳과 짜오프라야 인타아파이에게 나콘싸완 진영을 지키도록 하였다.

왕은 본대를 이끌고 수로로 이동하여 캄팽팻에 도착하였다. 숲속으로 흩어져 달아난 버마군 가운데 삼백삼십여 명을 각 부대가 사로잡아 왕에게 보내었다.

왕은 프라야 욘마랏과 프라야 라만에게 라행 방면으로 적을 추격하여, 관문의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였다.

음력 9 월 하현 5 일 목요일에 왕은 본대를 몰려 반라행에 도착하였다.

왕은 버마군이 농사지어 놓은 벼를 보고, 모두 뽑아 버리도록 명하였다.

음력 9 월 하현 13 일 월요일에 왕은 돈부리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북부에서 내려오도록 한 승려들을 생각하였다. 왕은 승왕에게, 돌아다니는 승려들이 머무는 어느 사찰이든 식량이 부족하면 왕실 창고에서 쌀을 내어 보내 공양하도록 명하였다.

왕은 또한 자비로운 신심으로, 객지에 머무는 승려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많이 내렸다.

성벽 위 방어시설을 지키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그 임무에서 풀어 주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논밭을 경작하도록 하였다.

음력 10 월 초사흘 금요일에, 적을 추격하러 갔던 프라야 라차팍디⁶가...

⁶ 왕의 친필본 연대기에는 프라야 라차팍디가 게으르고 나라의 일을 수행할 의욕이 없었으므로 처형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의 본문에서는 그가 용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팻차분 방면에서 버마군을 뒤쫓아, 많은 적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아홉 명을 사로잡았다.

음력 10 월 초나흘 토요일에 프라야 욤마랏과 프라야 라만의 부대는 버마군을 추격하여 매라마오 관문에 이르렀다. 총에 맞아 죽거나 고통을 겪는 적이 매우 많았으며, 열일곱 명을 사로잡았다.

음력 10 월 초이레 일요일에는 프라 티벳보디와 참족 의용 부대가 핏싸눌록의 버마군을 추격하였다. 열여덟 명을 사로잡고, 무기도 함께 가져와 왕에게 바쳤다.

음력 11 월 열하루 토요일에 짜오프라야 나콘싸완과 프라야 피차이아싸는 버마인 포로 마흔일곱 명을 내려보냈다. 끄롬 쿤 아누락쑹크람과 프라야 마하세나는 깡팡펫 지역에서 잡은 버마인 열한 명을 내려보냈다.

한편 한 외국의 군주¹가 총 천사백 정을 구입하여 보내왔으며, 여러 가지 공물도 함께 바쳤다.

용띠 해, 소력 1138 년, 불기 2319 년의 음력 10 월 하현 12 일 월요일 오후에 왕실의 암컷 백상아가 쓰러져 죽었다. 왕은 그 꼬끼리를 프라야 뿌랍뜨라이작의 묘가 있는 왓 싹팽에 묻도록 명하였다.

¹ 왕의 친필본 연대기에는 영국인 선장 텍이자 꼬막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꼬막의 역사에 따르면 영국이 그 섬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라따나꼬쉴 왕조 라마 1 세 때였다.

용띠 해 소력 1138 년의 음력 11 월 초하루 일요일에 왕은 나콘의 통치자에게 ‘짜오프라야 나콘’이라는 칭호를 내렸다.²

그에게 예전처럼 고을을 돌려주어 속국의 통치자로 삼았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많이 내렸다.

그 뒤 월요일에 왕은 왓 방이르아의 우보솯으로 가서 명상 수행을 하였다.³

왕은 신심과 믿음이 깊어져, 금박을 입힌 차무앗 배 한 척을 바쳤다. 그 배는 지붕을 노란 천으로 덮었으며, 노를 젓는 사람 열 명이 딸려 있었다.

그들에게 각각 은 두 땀통을 내렸고, 흰옷을 입는 수행자인 빠카오로 출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삼장경을 한 권씩 바쳤다. 명상 수행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왕은 진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원하였다.

“이 보시의 공덕으로 회열의 징표가 내게 생겨나고, 이미 생긴 것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법은 내게 생겨나고,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먼 훗날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장경을 배에 모시는 일이 끝나자, 군사와 문관을 비롯한 관리들, 모든 백성이 행렬을 이루어 강을 따라 올라갔다. 방이칸에 이른 뒤에는 다시 행렬을 이루어 돌아왔다.

왕은 고위 승려들과 프라야 마하체나에게 은 열 창을 맡겼다. 돈부리 도성 안팎을 다니며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² 『연대기 집성』 제 2 부의 나콘 통치자 책봉 기록을 참고할 것. 나콘씨탐마랏의 새해 왕실 의례를 다룬 문서에는 그의 왕호가 ‘프라 짜오 캇띠야라차니콤, 솜뭇띠마하이싸완’으로 나온다.

³ 아직 간행되지 않은 왕대비 끄롬 프라 텡파맛의 유해에 제사를 올린 왕실 행사 기록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용띠 해 소력 1138 년, 음력 첫째 달 열이틀 금요일에 왕이 왓 방이르아에서 법을 닦기 위해 행차하였다. 왕은 프라야 마하체나와 프라야 짜끄리에게 명하여, 담당 관원들이 왕대비 끄롬 루앙 피탁텡파맛의 유해를 모시고 왓 방이르아눅으로 나가 방쑤꾼의 공덕을 올리는 일을 준비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명상 수행은 왕의 어머니를 위해 올린 왕실의 공덕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깊은 효심으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왕의 뜻이었다.

⁴ 고도의 수행 방법을 설명한 왕의 글이 한 편 남아 있다. 짧게는 ‘공덕의 징표’라고 부르는 이 글은 불기 2319 년 음력 3 월 초이틀 일요일에 작성되었다. 내용은 길지 않아 인쇄하면 두 쪽 정도이며, 아직 간행되지 않았다.

음력 첫째 달 보름 월요일에 왕대비의 유해⁵를 왕실 선착장에서 배에 모셨다. 행렬은 수로를 따라 왓 방이르아나이의 화장장으로 들어갔다.

모든 사찰의 승려들⁶ 만 명을 초청하였으며, 많은 보시를 베풀었다.

왕은 계율을 지키며 명상 수행을 하였고,⁷ 왓 방이르아눅⁸의 행궁에서 나흘 동안 머물렀다.

왕은 승려들의 거처인 꾸띠를 백스무 채나 짓도록 하였다. 불상과 체디, 위하라를 보수하게 하였으며, 우보삿을 둘러싼 도랑은 더 깊이 파서 연꽃을 심도록 하였다.

행궁의 땅도 정비하여 예전보다 넓혔다.

이어서 위빠싸나 수행을 하는 승려들을 초청하여, 왕이 지어 바친 꾸띠에 머물게 하였다. 관리들에게 그들을 시봉하도록 하였다.

왕은 승려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전하였다. 자신이 수행으로 얻은 것을 올바른 방법에 맞추어 설명하여, 승려들이 이를 전하고 불교의 수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⁵ 이 유해를 모시는 일이 앞에서 말한 왕의 명상 수행 행차의 계기였다.

⁶ 모든 사찰과 모든 승단에 속한 비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⁷ 계율을 지키면서 단계적으로 선정 수행을 닦았다는 뜻으로, 보통의 수행보다 높은 경지를 지향한 것이었다.

⁸ 방루앙 운하에 있는 왓 인타람을 말한다. 왕의 침상과 유골을 봉안한 시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음력 3월 하현 8일 금요일, 두 번째 야경 무렵에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와 왓 방이르아의 정원을 지키던 크메르인 남자를 잡아먹었다.⁹

왕자와 짜오프라야 짜끄리, 프라야 움마랏 및 관리들은 밖으로 나가 독을 놓았다. 호랑이가 독을 먹고 취한 듯 움직이지 못하자, 사람을 보내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음력 3월 하현 11일 월요일, 오후 세 시각이 조금 지난 때에 폭풍이 일어났다. 바람과 비가 몹시 거세어, 도성 안팎에서 백성들의 집이 많이 무너졌다.

음력 4월 초하루 금요일에는 망고스틴 정원에서 프라 피룬 대포를 주조하였다.¹⁰

한편 용띠 해, 불기 2319년에 프라야 낭롱은 짜오 오와 짜오 인오라캇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짜오프라야 짜끄리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올라가 프라야 낭롱을 붙잡도록 명하였다.

짜오 오와 짜오 인오라캇은 짬빠삭으로 달아났다. 이에 왕은 북부의 군대를 편성하고, 짜오프라야 쑤라씨를 지휘관으로 삼아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부대와 합류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짬빠삭과 쿡, 아따쁘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뱀띠 해, 불기 2320년이 되자 군대를 철수하여 돈부리로 돌아왔다.

그때 왕은 짜오프라야 짜끄리에게 ‘숨땃 프라 짜오 까삿쓱’이라는 칭호를 내렸다.¹¹ 그 긴 칭호는 다음과 같았다.

“숨땃 프라 짜오 까삿쓱, 안 필룩 마히마, 툽 나카라 라아 땃, 나렛 라차 쑤리아윙, 웅 아카라밧 물리간, 에까툏룻 이쑤안 보롬나트 보롬보땃, 싸땃 나 끽룽텡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 마하딜록폼 뇨파랏, 라차타니 부리롬, 우돔 라차니웻 마하싸탄.”

왕은 또한 명상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슬람교도 스승인 또캐크에게 다섯 bat 동안 살펴보게 하였다. 그 뒤 어떻게 보았는지 물었다.

또캐크가 아뢰었다.

“그와 같이 선정에 들어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제가 예전에 배운 스승들 가운데서도 폐하와 같은 분에게서 본 적이 없습니다.”

뱀띠 해, 불기 2320 년의 음력 7 월 하현 14 일 수요일 아침에 승왕과 고위 승려들이 들어와 명상 수행에 관한 팔리어 경문을 읽어 올렸다.

또릇과 또통, 또녹도 마음을 지켜 선정에 드는 일을 다룬 외국의 책을 가져와 읽어 올렸다.

⁹ 나레쑤안 대왕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왕의 친필본 연대기 제 1 권을 참고할 것.

¹⁰ 대포 주조는 왕의 재위 초기부터 중요한 국가 사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마하짜끄라팻 대포의 주조도 그 예이다.

¹¹ 불기 2323 년 쥐띠 해의 왕명 기록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짜오프라야 짜끄리’로 나온다.

『쥘랏탐니암』 제 10 부와, 쥘라롱폰 왕이 끄롬 루앙 나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기록에 대해 쓴 평을 참고할 것. 왕자들의 장례와 관련된 명령문 부분에도 이 이름이 나온다.

나콘의 통치자가 보고를 보내왔다.

“따니가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 공격하고자 합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버마군이 치앙마이로 내려왔다. 치앙마이와 나콘의 라오족 영주들은 주민들을 이끌고 철수하여 싸완칼룩과 반라행으로 옮겨 와 있다. 누구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버마군이 매우 빨리 철수한 것은, 아바 왕이 늙고 왕족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바 왕의 아우가 왕의 손자와 싸웠고, 손자는 패하여 쏘이뿌로 달아났다. 그 뒤 아바 왕의 아우가 죽었고, 왕위를 차지한 자에게도 전쟁이 일어났다.

중국은 군대를 보내 아바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사신을 북경으로 보내 나라의 뜻을 알리도록 하였다. 중국군과 함께 아바를 협공하려는 것이다.

처리할 나라의 일이 많다. 뒤에서 위협이 될 만한 일은 우선 진정시켜 두어라. 소식이 더 들어오면 출정할 때를 정하겠다.”

왕은 명상 수행에 관해서도 말하였다.

“짐의 호흡은 매우 강하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듯하다. 이러한 신기한 현상은 명상에 관한 팔리어 경문에 부합한다.”

이어서 왕은 고위 승려들에게 자신의 몸과 형상에 관해 물었다.¹² 거울로 몸의 비례와 징표를 살펴보고, 그것이 팔리어 경전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묻은 것이다.

고위 승려들이 아뢰었다.

“팔리어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의 몸은 니그로다 나무와 같은 비례를 갖추었습니다. 몸의 높이와 폭이 균형을 이루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길거나 짧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부위는 일곱 곳입니다. 오른팔과 왼팔, 오른발과 왼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 그리고 가슴입니다.”

왕은 부처의 이러한 징표에 맞도록 불상을 주조하게 하였다. 승왕에게 팔리어 경문을 펼쳐 놓아, 장인들이 그에 따라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승왕은 부처의 신체적 징표를 설명하는 팔리어 경문을 번역하여 왕에게 바쳤다. 큰 징표는 서른두 가지이고, 작은 징표는 여든 가지였다.¹³

왕은 자기 몸을 살펴보며 그 징표와 맞는 것을 확인하였다.

몸의 높이와 양팔을 벌린 너비가 같은 징표 하나, 눈썹 사이에 흰 털이 한 가닥 있는 징표 하나,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도는 징표 하나, 엉덩이가 풍성한 징표 하나가 있었다.

손바닥과 발바닥, 이마, 가슴 등 풍성해야 할 일곱 부위도 부처의 일곱 징표와 부합하였다. 이마가 충만한 징표도 하나 있었다.

팔리어 경문을 읽고 왕의 몸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부처의 징표 열두 가지와 부합하였다. 부합하지 않는 것은 왕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¹² 왕을 본떠 불상을 주조하는 일에 관한 기록이다. 이러한 왕실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¹³ 부처의 징표를 다룬 팔리어 경문의 번역은 라마 3 세 때에도 왕의 명으로 이루어졌다. 라마 2 세 때 승왕이 번역하여 바친 판본은 불기 2478 년에 두 번째로 인쇄되었다.

한편 프라 마하아맛이 치앙마이의 통치자 프라야 위치안쁘라칸을 불러 왕을 알현하게 하였다.

왕은 말하였다.

“버마군은 철수하여 문므씨 고을에 머물고 있다. 그대가 가족들을 데리고 고을로 돌아가려 한다면, 돌아가도록 하라.”

왕은 루앙 위젯에게 불상 주조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부처의 징표에 맞추어 좌상 한 구와 입상 한 구를 만들게 하였다.

이어서 왕은 승왕에게 물었다.¹⁴

“지금 짐에게 재물이 있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금과 은으로 보시를 베풀며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저쪽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은 어떤 공덕으로 가능한가?”

승왕이 답을 올리자, 왕은 프라 텡까위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프라 프롬무니를 나콘씨탐마랏으로 보냈다. 이들에게 『위숫티막』, 곧 『청정도론』을 찾아 가져오게 한 뒤, 이를 갖추어 두었다.

왕은 궁정의 부관에게 짜오 딸라밧을 배에서 내려 불리오도록 명하였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려 하였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이 부분은 원본이 훼손되어 있다.]

“……그 여자가 죄를 지었는지, 그릇된 행실을 하였는지 알게 하려 한다…….”

끄롬 쿤 아누락쑹크람과 프라야 톡카라트, 꾸이와 뽀란부리의 관리들은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다. 이들은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나가 생계를 꾸리려는 종과 왕실 소속 사람들이었다.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소력 1130 년의 개띠 해 싹틔쑤이 지나, 돼지띠 해 에까쑤, 불기 2322 년이 되었다.

왕은 프라 까삿쑤¹⁵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씨싸따나카나훗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를 함락시키자,¹⁶ 부처의 성상을 모셔 오게 하였는데…

¹⁴ 불교의 법과 계율에 대한 학문을 진흥하기 위해 왕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러한 왕실 전통은 라따나꼬썬 왕조의 모든 왕대에 이어졌다.

¹⁵ 점성관의 기록에는 프라야 짜끄리와 프라야 쑤라썬, 프라야 코랏이 군대를 이끌고 란창으로 갔다고 되어 있다.

¹⁶ 치앙마이 연대기에는 태국군이 위앙짠을 이긴 뒤, 그곳에서 군사 삼백 명을 복부로 보냈다고 되어 있다. 이 군사들이 주민들을 억압하고 괴롭혀 불만을 일으켰으므로, 람쌍의 통치자 프라야 까윌라가 그들과 싸워야 하였다.

에메랄드 불상인 프라 깨우모라꽃을 돈부리로 모셔 왔다.

왕은 왓 쨍의 우보솿 옆에 불상을 맞이할 전각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뒤, 성대한 예배와 많은 축하 의식을 거행하였다.¹

그해 왓 프라람에 출가하여 머물던 마하다라는 사람은 악행을 저질렀다. 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마침내 나라에 반역하려는 뜻을 품었다.

왕은 그와 그 무리를 모두 붙잡아 내려오게 한 뒤, 위차이쁘라셋 요새 뒤쪽에서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한편 쥐띠 해 토족, 소력 1142 년, 불기 2323 년에는 베트남의 반란자들을 붙잡아 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처형하였다.²

¹ 에메랄드 불상을 맞이하고 축하한 행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으나, 아직 간행되지 않았다.

² 끄롬 루앙 나련의 기억을 기록한 문서에는 이 사건이 불기 2324 년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다. 베트남 연대기를 참고할 것. 문족 판본의 점성관 기록에도 불기 2324 년 음력 첫째 달 열나흘에 베트남 반란자를 붙잡았다고 나온다. 크메르 출신 프라야 찐찬투의 도주와 프라야 프라람라만의 도주에 관해서는 왕의 친필본 연대기와 라따나코쉴 왕조 라마 1 세의 연대기를 참고할 수 있다.

소띠 해 뜨리쑉, 소력 1143 년, 불기 2324 년이 되어,³ 음력 둘째 달에 왕은 군대를 여섯 부대로 편성하도록 명하였다.⁴

짜오프라야 쑤라씨를 선봉으로 삼고, 프라 까삿쑉⁵에게 본대의 총지휘를 맡겼다.

쿤 핀눈⁶은 특별 부대를 맡았으며, 짜오프라야 나콘싸완은 군대의 육끄라밧을 맡았다. 끄롬 쿤 람푸벳은 후군을 지휘하고, 프라야 탐마⁷는 수송 부대를 맡았다.

이들은 푹타이펫을 공격하러 갔다.⁸

한편 돈부리에서는 나라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다. 연대기는 왕의 판단력이 혼란스러워졌다고 서술한다.

불교의 승단과 나라의 질서도 무리마다 흔들려, 이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왕은 선정에 들어 ‘아루팻’의 수행을 한다고 하였으며,⁹ 모든 비구에게 자신을 공경하고 예배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늘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불길한 징조와 뿌라툼껏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¹⁰

³ 왕실 서기관들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소띠 해 소력 1143 년, 음력 7 월 초엿새 월요일 아침에 왕이 대전에 나왔다. 짜오프라야와 프라야, 루앙, 쿤, 므을 비롯한 관리들이 함께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은 중국의 북경에 있는 청 황제에게 왕실 서한을 보내도록 하였다. 프라야 피왓꼬싸가 왕명을 받아 서한을 작성하고, 각 담당 관원에게 전달할 문서를 마련하였다.”

이 기록에는 상세한 내용이 있으나 아직 간행되지 않았다.

몬족 판본의 점성관 기록에는, 소력 1143 년에 방콕의 왕이 보름 동안 새벽부터 공덕을 닦았다고 되어 있다. 승복 삼벌 한 벌씩으로 된 세트 433 벌과 짜봉 7,000 벌을 지어, 승려들과 함께 공덕을 올렸다. 또한 귀족과 관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다.

음력 10 월과 11 월에는 가난한 사람과 크고 작은 관리들에게 많은 돈을 내렸다.

속국의 통치자 책봉 기록에는 짜오 난타쎄에게 고을을 돌려주고 속국의 왕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그의 왕호는 ‘프라 짜오 난타쎄 라차퐁말라’였으며, 위양짚을 다스리는 프라야가 되었다. 책봉은 소띠 해 소력 1143 년, 불기 2324 년 음력 첫째 달 보름 목요일에 이루어졌다.

⁴ 모든 점성관 기록은 크메르 원정 명령이 불기 2324 년 음력 둘째 달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 연대기의 서술대로라면 반란이 일어나기 한 달 남짓 전이었다.

⁵ 베트남 연대기를 참고할 것.

⁶ 그는 높은 지위의 지휘관으로, 돈부리의 숨땃 프라 마하우빠랏 직책을 지니고 있었다. 관련 내용은 『연대기 집성』 제 39 부를 참고할 수 있다.

⁷ 본래 이름은 분룻이었다. 라따나꼬쎄 왕조 때 짜오프라야 탐마가 되었고, 뒤에 짜오프라야 씨탐마티랏이 되었다.

⁸ 캄보디아의 도성을 말한다.

⁹ ‘아루왓’에 든다는 것은 선정에 들어 고도의 명상 수행을 한다는 뜻이다. 『위숫티막』, 곧 『청정도론』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¹⁰ 뿌라툼껏은 ‘툼껏’, 곧 혜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띠 해 소력 1143 년, 불기 2324 년의 음력 4 월 하현 11 일 토요일에 백성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함께 도성을 공격하여 빼앗으려 하였다.

그 까닭에 대해 연대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왕은 임금의 열 가지 덕목을 지키지 않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높고 낮은 관리들, 내외의 관원들과 백성을 상대로 고발하였다.

쌀과 소금을 팔았다거나, 쌀과 상아, 목재 등 금지 물품을 거래하였다고 하였다. 팔지 않은 것도 팔았다고 하고, 훔치지 않은 것도 훔쳤다고 하였다.

고발인은 삼백삼십삼 명이나 되었으며, 판 씨핀라 등이 앞장섰다.¹¹ 이들은 고발장을 요타보디에게 가져갔다.

요타보디가 이를 감추고 왕에게 아뢰자, 왕은 거짓과 사실을 뒤집어 판단하였다.

왕은 고발인이 맹세할 수 있으면 피고에게 벌금을 물리고, 고발한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돈을 받아내도록 명하였다.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고문하였다. 어떤 이들은 팔려 갔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거짓 진술을 유도하여 죄를 인정하게 하였다.¹²

관리들과 백성은 두려워서, 금지 물품을 외국에 팔아 은 덩어리나 은화를 백 장, 이백 장씩 얻었다고 허위로 인정하였다. 그렇게 인정하면 죄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조사하였다.

금지 물품을 찾아내면 그 액수가 적더라도 해당 물품의 값만큼은 빼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두 배의 벌금을 물렸다. 피고가 고발 내용대로 인정하면 돈의 절반을 받아내었다.

인정하지 않아 매질까지 한 뒤에는 네 배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가진 사람은 낼 수 있었으나, 없는 사람은 계속 부족한 돈을 마련하도록 독촉받았다.

이 일은 날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었다.

일등 고을에서 이등, 삼등, 사등 고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퍼졌다. 두려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치심을 모르고 기뻐하는 고발인도 있었다.

¹¹ 왓 보롬니왓의 프라 아문파끼킷 켓이 남긴 점성관 기록에는 고발인이 서른세 명뿐이었다고 되어 있다.

¹² 고문을 통한 재판에 관해서는 ‘나콘반의 관행에 따른 범죄자 심문 방법 폐지법’, 『삼인법전』의 반역죄 관련 조항, 쫄라롱폰 왕의 통치 개혁 설명, 궁중법의 마지막 왕명 위반 조항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쌀값과 소금 거래에 관한 법령 및 기록도 관련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악한 고발인들 때문에 이처럼 부정하고 그릇된 일이 일어나자, 마을의 우두머리와 지역 책임자, 백성들은 함께 모여 무리를 조직하였다.¹³

이들은 돈을 조사하라는 왕명을 받아 현지에 나와 있던 프라야 위젯나룻의 진영을 습격하였다.

또한 왕이 반란자들을 조사하여 붙잡도록 보낸 프라야 썬을 자신들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돈부리를 공격하였다.

밤 열 톱에 왕궁의 성벽을 사방으로 둘러쌌다.

프라야 썬은 꼬롬 므앙의 관청에 자리를 잡았다. 왕은 사태를 알고 사람들을 징집하여 각 방어 구역을 지키도록 하였다.

다음 날인 음력 4 월 하현 12 일 일요일에 왕은 고위 승려들을 내보내 프라야 썬과 나라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¹⁴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목숨을 살려 주면 출가하겠다고 하였다.

그날 밤 세 톱에 왕은 왓 쨍의 곁에 안에서 출가하였다. 왕위에 있던 기간은 열다섯 해였다.

프라야 썬은 군사들을 보내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자신은 아우인 루앙 텡과 함께 대전 안으로 들어가 머물렀다.

이들은 왕의 조카 꼬롬 쿤 아누락송크람을 붙잡아 가두었다.¹⁵ 이어 왕실 창고의 돈을 꺼내, 내외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호랑이띠 해 짜따와쑹, 소력 1144 년, 불기 2325 년의 음력 5 월 초하루 화요일 정오에는 낮인데도 달이 나타났다.

음력 5 월 초나흘 금요일이 되자, 프라야 썬리야아파이가 태국군과 라오족 군사 천여 명을 이끌고 나콘라차씨마에서 내려와 주둔하였다.

그때 관리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다. 어떤 사람들은 프라야 썬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프라야 썬리야아파이를 따랐다. 전투는 그치지 않았다.

¹³ 소력 1144 년 음력 날짜가 적힌 포상 기록을 참고할 것. 이 기록은 『와치라안』에 인쇄되어 있다.

¹⁴ 꼬롬 루앙 나린의 기억을 기록한 문서에는 반란자들이 고위 승려들에게 왕을 알현하고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¹⁵ 점성관 기록에는 소력 1142년 귀뚜 해에 동궁의 작위와 물품을 몰수하였다고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동궁은 ㄱ롬 쿤 아누락쑹크람이다. 따라서 그는 반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벌을 받고 있었으며, 이때 처음 붙잡힌 것은 아니었다.

그 뒤 화요일에 프라야 썬과 프라야 마하쎄나, 프라야 라만왕은 함께 의논하여 ㄱ롬 쿤 아누락쑹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¹⁶

그에게 해 질 무렵부터 나가 머물게 하고, 진영을 세우며 군사들을 배치하여 왓 방와 쪽으로 내려가 에워싸게 하였다.

세 번째 야경에 반뿐에서 불을 지른 뒤,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내려왔다.

프라야 썬리야아파이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군사들을 몰아 맞서 싸우게 하고, 사람들을 여러 곳에 배치하여 방어하였다. 진영 앞에는 총을 놓고 넓게 사격하게 하였다.

불길이 자신이 머무는 꾸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다음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하였다.

“내가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며 어떤 공덕을 쌓든, 오직 부처의 깨달음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뜻의 힘으로 바람이 반대로 불게 하여, 불이 내 집에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서원을 마치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 불은 집 밖에서만 타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이를 보았다.

양군은 날이 밝아 서로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힘껏 싸웠다. 그제야 ㄱ롬 쿤 아누락쑹크람이 공격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아침 다섯 시각에 ㄱ롬 쿤 아누락쑹크람과 그 무리는 패하여 달아났다. 그날 모두 뒤쫓아 붙잡아 가두었으며, 함께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내었다.

¹⁶ 포상 기록에는 ㄱ롬 쿤 아누락쑹크람이 프라야 썬과 프라야 마하쎄나, 관리들과 함께 공모하였다고 되어 있다.

음력 5월 하현 9일 토요일, 아침 두 시각에 프라 까삿측은 씨엠립에서 돌아와 왓 포타람 앞의 임시 전각에 머물렀다.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두 함께 가서, 왕실의 평저선을 타고 강을 건너 왕궁으로 들어가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 쌀라 록쿤에 앉았다. 모든 대신과 왕족이 함께 나아와 알현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전 임금의 진실하고 올바른 법도를 버리고 이처럼 악행을 저질렀으니, 나라에 커다란 가시이자 말뚝으로 남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끌어내어 처형하도록 하소서.”

모든 군사도 큰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 이에 전 임금과 그 고발인들을 데리고 나가, 도성 뒤쪽의 움푹한 곳에서 즉시 처형하였다.¹⁷

승려와 수행자, 브라만, 대신과 백성 모두는 프라 까삿썩에게 즉위 의식을 행하고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거듭 청하였다.

그는 에메랄드 불상에 예배한 뒤, 그 불상이 봉안된 전각 앞의 임시 전각에서 밤을 보냈다.

17 점성관 기록에는 이 일을 “쿤 루앙의 죽음”이라고 적었다. 날짜는 불기 2325 년 4 월 6 일에 해당한다. 돈부리 왕실 후손에 관한 계보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음력 5 월 하현 10 일 일요일에 새 왕의 조카¹⁸는 경찰들에게 꼬롬 쿤 아누락송크람과 그 무리였던 관리 사십여 명을 붙잡아 왕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프라야 켓피차이와 프라야 끌랑므앙, 프라야 마하아맛, 북부의 프라 마하텝, 북부의 루앙 코차썩라차린 등이 있었다.

이들을 왕 앞으로 데려온 뒤,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왕은 그 무리를 죽이도록 명하였으나, 꼬롬 쿤 아누락송크람은 우선 처벌을 보류하고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의 진술은 프라야 썬과 프라야 마하썬나, 프라야 라만웁, 프라야 위썬나룽, 루앙 팟싸디끌랑까지 이어졌다.

왕은 크게 노하여 이들을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18 문족 판본의 점성관 기록에는 프라야 짜끄리가 베트남 방면에서 방쪽으로 돌아와 전 임금을 죽였으며,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 프라야 썬도 죽었다고 되어 있다

음력 5 월 하현 11 일 월요일에 왕은 공을 세운 관리들에게 지위와 공적의 차례에 따라 상을 내렸다.

이어서 왕은 현재의 왕실 거처가 두 사찰의 경내에 가까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프라야 탐마와 프라야 위짚나위에게 동쪽 강변에 새로운 왕궁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음력 6 월 초하루 금요일, 오후 네 시각에 왕은 대전에 머물며 궁중 내부의 잘못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음력 6 월 초나흘 월요일, 아침 다섯 시각에 왕의 아우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끄롬 쿤 인타라피탁¹과 쿤 차나²가 프놈펜의 섬에 병력 이백 명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크메르군 삼만 명과 베트남군 팔천 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음력 6 월 하현 2 일 일요일에 왕의 아우는 군사 육천여 명을 모아 여러 부대로 나누어 내보냈다.

이들은 끄롬 쿤 인타라피탁을 뒤쫓아 포위하였으며, 썩아 가까이에 있는 카오노이에서 그를 붙잡았다.

쿤 차나와 그 무리 일곱 명도 붙잡아 모두 돈부리로 데려왔다.

음력 6 월 하현 8 일 토요일에 이 일을 왕에게 아뢰 뒤, 그들을 처형하도록 하였다.

호랑이띠 해 짜따와쑈, 소력 1144 년, 불기 2325 년의 음력 6 월 하현 10 일 월요일에 새로운 왕궁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다.

음력 8 월 초하루 월요일부터 왕실 의례를 사흘 동안 거행하였다. 그다음 날인 음력 8 월 초나흘 목요일, 소력 1145 년 아침 네 밝에 길하고 상서로운 때가 되었다. 태양의 신이 떠올라 밝게 비추었다.

왕은 씨싸왓 왕실 배에 올랐다. 여러 귀족의 배가 앞뒤로 행렬을 이루어 호위하였다.

왕은 동쪽 강변의 왕실 선착장으로 건너가, 붓쏘꼬말라 마하짜끄라팻피만 왕좌에 올랐다.

귀족과 대신, 왕족과 여러 학자, 브라만들이 함께 승리를 축원하고 길상을 바쳤다. 즉위와 왕권을 받드는 의식이 끝나자, 승왕과 재가 사찰의 고위 승려들이 함께 다음과 같은 왕호를 바쳤다.

“프라밧 솜텃 프라 보롬라차티랏 라마티보디, 씨신통보롬 마하작끄라팻 라차티보딘,
타라닌타라티랏, 랏따나갓라웁, 웅 빠라마티벛, 뜨리푸와네뜨 와라나웃, 딜록 뇽파랏
라차, 찏 아차와싸이, 씨무타야뜨롬, 씨꾼작끄라와띠 빠리벛, 쥬리엔트라티보딘,
하린트라티라티보디, 씨쭈위분 꾸나카닛, 릿티 라멏와라 탐미까라차티랏, 데초차이
프롬텃 아티텃, 뜨리푸와나티벛, 로께췌위삿, 마꿏 뿌라텃까따, 마하뽏탕꾼,
보롬나트보롬보뽏 프라뽏타짜오유후아.”

이는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끄룽텃 타와라와디 씨아유타야, 마하딜록뽏 뇽파랏
라차타니부리롬, 우돗프라라차니웛 마하싸탄에 머무는 왕의 칭호였다.

왕은 예전의 대왕들이 지켰던 법도에 따라, 자신의 아우를 우빠랏으로 삼는 왕명을
내렸다.

한편 아바에서는 몽몽이 징구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망록의 아우인 징포차이가 몽몽을 죽였다. 그는 이레 동안 나라를 다스린 뒤, 왕위를
자신의 형인 망웁망에게 넘겼다.

소력 1144 년에 아췌운끼와 따깨앵마라농은 징포차이에게 왕위를 돌려주려는 반란을
궤하였다.

망웁빠둥은 이 일을 알고, 징포차이와 아췌운끼, 따깨앵마라농을 붙잡아 처형하도록
하였다.

소력 1146 년에 아바 왕은 왕자인 웅췌라차빠에게 군대를 이끌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아바의 옛 도성으로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이 판본은 여기까지만 남아 있다.]

¹ 솜텃 프라 마하우빠랏이자 짜오파 끄롬 쿤 인타라피탁을 말한다.

² 짜오프라야 나콘라차씨마를 말한다.

뱀띠 해, 불기 2316 년의 관인 문서 등사본

첫 번째 문서 [앞부분이 빠져 있다.]

……관리들은 자기 휘하와 동원 가능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 내려가, 돈부리 도성의 해자를 파도록 하라.

이는 앞서 왕명으로 내려보낸 관인 문서에 따른 것이다.
이 문서가 도착하는 날부터 프라야 욀마랏은 문서에 적힌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라.

문서는 뱀띠 해 벤짜쑉, 소력 1135 년, 불기 2316 년의 음력 3 월 초닷새 월요일에 도착하였다.

같은 해 음력 3 월 초엿새 화요일, 새벽 두 번째 야경에 명령문을 프라야 욀마랏에게 올려보냈다. 문 뜻위췌이 이를 가지고 갔다.

두 번째 문서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문서가 프라야 나콘차이췌와 프라 타룽, 프라 카프란, 프라 차이바단에게 도착하였다.

앞서 왕명으로 내려보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짜오프라야 나콘라차씨마가 보고하기를, 랏푸키아오에 주둔한 버마군이 쿡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내려가 크메르인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하였다.

또한 프라 뿌라췌부리의 보고에는 버마군과 라오족 군사가 탐싸멧에 주둔하였다고 한다. 나라의 형편을 안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프라야 나콘차이췌와 프라 타룽, 프라 카프란, 프라 차이바단 및 각 고을의 관리들은 군대를 징집하여 고을 방어를 준비하도록 하라. 해자를 파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은 이미 앞의 관인 문서에 밝혀 두었다.
그런데 지금 피차이에서 버마군과 싸우던 장수와 지휘관들의 보고가 내려왔다.

“버마군과 싸워 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버마군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이에 왕은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타룡과 부아춤, 카프란, 차이바단 방면이 평온하다면, 프라야 나콘차이썬과 프라 카프란, 프라 차이바단, 프라 타룡은 자기 휘하와 동원 가능한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가 도성의 해자를 파고, 도성 정비를 수행하도록 하라.

앞서 내려보낸 관인 문서의 명령에 따라, 뱀띠 해 벤짜썬의 음력 3 월 상현기부터 모두 함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 문서가 도착하는 날부터 프라야 나콘차이썬과 프라 카프란, 프라 차이바단, 프라 타룡 및 각 고을의 관리들은 문서에 적힌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라.

문서는 뱀띠 해 벤짜썬, 소력 1135 년, 불기 2316 년의 음력 3 월 초닷새 월요일에 도착하였다.

같은 해 음력 3 월 초엿새 화요일, 새벽 두 번째 야경에 부아춤과 카프란, 차이바단, 타룡의 네 고을에 관인 문서를 보냈다.

믄 풋위썬이 이를 가지고 갔다. 배의 길이는 다섯 와였으며, 노를 젓는 사람은 일곱 명이였다.

세 번째 문서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문서가 프라야 쏬톤피똥에게 도착하였다.

앞서 왕명을 새긴 관인 문서에서는 프라야 쏬톤피똥이 올라와 주민들의 가족을 데리고 돈부리로 내려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금 피차이의 장수와 지휘관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다.

“버마군과 싸워 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버마군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프라야 쏬톤피똥은 가족들을 데리고 돈부리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프라야 쏬톤피똥은 자기 휘하와 동원 가능한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가, 돈부리 도성의 해자를 파도록 하라. 왕명에 따른 동원 인원을 빠짐없이 마련하도록 하라.

문서는 뱀띠 해 벤짜썬, 소력 1135 년, 불기 2316 년의 음력 3 월 초엿새 화요일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새벽 두 번째 야경에 프라야 쏬톤피똥에게 관인 문서를 보냈다. 믄 풋위썬이 이를 가지고 갔다.

배의 길이는 다섯 와였으며, 노를 젓는 사람은 일곱 명이였다.

네 번째 문서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문서가 프라야 쭈판부리와 프라야 앙통, 프라 차이나트, 프라 썩, 프라 프롬, 프라야 롭부리, 루앙 인부리에게 도착하였다.

앞서 왕명을 새긴 관인 문서에서는 각 고을의 통치자와 관리들이 장정과 자기 휘하, 동원 가능한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와 도성의 해자를 모두 파도록 하였다.

음력 3월 초하루부터 모두 함께 일을 시작하도록 정한 것도 앞의 관인 문서에 이미 밝혀 두었다.

그러나 각 고을의 통치자와 관리들은 아직 휘하와 동원 가능한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와, 정해진 왕명의 기한에 따라 도성의 해자를 파고 도성을 정비하지 않았다.

지금 피차이에서 버마군과 싸우던 왕실 군대와 지방 군대의 장수, 지휘관들에게서 보고가 내려왔다.

“버마군과 싸워 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버마군은 음력 둘째 달 하현 14일 수요일부터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이에 왕은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각 고을의 통치자와 관리들은 서둘러 휘하와 동원 가능한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와, 도성의 해자를 파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라.

뱀띠 해 벤짜족의 음력 3월 초아흐레에서 열흘 사이에는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앞서 왕명으로 내려보낸 관인 문서에 따른 동원 인원을 모두 채우도록 하라.”

이 문서가 도착하는 날부터 각 고을의 통치자와 관리들은 문서에 적힌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라.

문서는 뱀띠 해 벤짜족, 불기 2316년의 음력 3월 초닷새 월요일에 도착하였다.

같은 해 음력 3월 초엿새 화요일, 아침 네 시각에 썩과 프롬, 차이나트, 인부리의 네 고을에 관인 문서 네 장을 보냈다.

믄 파이린이 이를 가지고 갔다. 배의 길이는 다섯 와 두 쪽이었으며, 노를 젓는 사람은 여섯 명이였다.

롭부리에는 믄 푼위쨌이 관인 문서를 가지고 갔다. 배의 길이는 다섯 와였으며, 노를 젓는 사람은 일곱 명이였다.

다섯 번째 문서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문서가 프라야…… [지워짐] …… , 프라야 앙통과 프라 썩, 프라 프롬, 프라 차이나트, 프라야 쭈판부리, 루앙 인부리, 루앙 인텝, 코끼리 부대와 기병 부대에 도착하였다.

왕은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프라 뿌라쨌부리가 나라의 일을 보고하였다.

버마군과 라오족 군사가 들어와 정찰하였으며, 탐싸멧에서 병력 사백 명가량을 보았다고 한다.

그 뒤 이들은 따끄라쑈에 들어와 진영을 세웠다. 프라 짜룻 관문 밖으로 약 삼백 쉐 되는 곳이며, 음력 3 월 초하루부터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에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룽부리, 프라야 앙통, 프라 썩, 프라 프롬, 프라야 쭈판부리, 프라 차이나트, 루앙 인부리, 루앙 인텝 및 각 고을의 관리, 코끼리 부대와 기병 부대는 군대를 이끌고 뿌라쨌부리의 북동쪽으로 나아가 길을 막도록 하라.

적의 뒤로 돌아가 진로를 차단하고, 버마군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왕의 본대도 출정할 것이다.

버마군이 뿌라쨌부리와 차츄싸오에 이르면, 본대로 공격하여 흩어 버릴 것이다.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룽부리, 프라야 앙통, 프라 썩, 프라 프롬, 프라야 쭈판부리, 프라 차이나트, 루앙 인부리, 루앙 인텝 및 각 고을의 관리, 코끼리 부대와 기병 부대는 적의 뒤로 돌아가 진로를 막고, 그들을 빠짐없이 사로잡도록 하라.

차츄싸오의 군대와 남쪽 여러 고을의 군대도 뒤로 돌아가 진로를 막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루 이틀 밤 동안 막아둘 수 있으면, 왕의 본대가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룽부리, 프라야 앙통, 프라 썩, 프라 프롬, 프라야 쭈판부리, 프라 차이나트, 루앙 인부리, 루앙 인텝 및 각 고을의 관리, 코끼리 부대와 기병 부대는 왕명에 따라 서둘러 출정하여 적의 뒤를 차단하도록 하라.

왕의 본대는 음력 3 월 열하루에 돈부리에서 출정할 것이다. 그리고 프라야 욀마랏은……”

타룽과 부아쑈, 켓차분 방면의 정세가 이미 평온하다면, 프라야 욀마랏은 서둘러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도록 하라.

프라야 쑤판부리, 프라 썩, 프라 프롬, 프라 차이나트, 루앙 인부리, 루앙 인텔과 각 고을의 관리, 코끼리 부대와 기병 부대는 프라야 앙통의 군대에 합류하도록 하라. 수도 방면에서 군대를 출발시키되, 프라야 욀마랏을 기다리느라 지체하지 말라.

코끼리 부대는 왕이 타실 코끼리 서너 마리를 함께 데리고 가도록 하라. 수도 밖에 있는 말들도 관리들이 모두 거두어 데려가도록 하라.

이 문서가 도착하는 즉시 프라야 욀마랏, 프라야 록부리, 프라야 앙통, 프라 썩, 프라 프롬, 프라 차이나트, 루앙 인부리, 루앙 인텔과 각 고을의 관리, 코끼리 부대 및 좌우 기병 부대는 서둘러 출정하여, 앞서 보낸 문서에서 명한 군무의 시기를 맞추도록 하라.

이 문서는 소력 1135 년, 뱀띠 해의 다섯째 순환년인 불기 2316 년, 음력 3 월 상현 이레 수요일에 작성하였다.

같은 날 아침 두 시가 조금 지난 때에 사무하나옥이 쌀라 록쿤에서 정무를 보고 있었다. 판 푼츠억이 이 관인 문서의 초안을 가져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드렸다.

사무하나옥은 일부 내용을 덧붙이고 일부 문장을 고치도록 지시한 뒤, 이 초안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그 자리에는 북부 담당 관리와 문 팀, 나이 께오, 나이 참난도 함께 앉아 있었다.

뱀띠 해의 다섯째 순환년, 음력 3 월 상현 이레 수요일 아침 두 시가 조금 지난 때에 쑤판부리로 보낼 관인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 부분은 원본에서 지워져 있다.]

프라야 욀마랏에게 보낼 문서 한 통과 프라야 록부리에게 보낼 문서 한 통은 문 끄롭차이가 가져가도록 하였다. 배의 길이는 3 와 2 쪽이며, 노를 젓는 사람은 세 명이었다.

같은 날 저녁 두 번째 야경 때에 인부리와 차이나트로 보낼 관인 문서를 발송하였다. 문 썩쌍혼이 이를 가져갔으며, 배의 길이는 4 와 4 쪽, 노를 젓는 사람은 네 명이었다.

앙통과 쑤판부리로 보낼 문서는 프라야 앙통에게 이미 맡겼다. 프롬과 썩으로 보낼 문서는 프라 프롬에게 이미 맡겼다.

말띠 해, 불기 2317 년의 관인 문서 등사본

첫 번째 문서

[문서의 첫머리가 심하게 지워져 있다.]

……루앙 폰과 관리들이 문서를 보내 보고하기를……

……버마의 동정을 알아보러 갔으며……

……프라야 씨쭈리야왕의 종들과 타오 쯏, 왕실에 소속된 부역민 가운데 아직 문신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예순 명……

프라야 피차이와 프라야 씨쭈리야왕이 내려와 여러 가지 군무를 보고하였다. 그 보고 문서를 왕께 올리자 다음과 같은 왕명이 내려졌다.

“짜오프라야 쭈라씨, 짜오프라야 싸완칼록, 프라야 피차이, 프라야 쭈코타이가 앞서 내려와 알현하고 군무를 보고하였을 때, 짐은 어전에서 특별히 명하였다.

음력 10 월에 군무의 형편을 살펴 모두 함께 내려와 알현하도록 하라. 적을 막는 데 필요한 군사 지식을 내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시기가 되었음에도 짜오프라야 싸완칼록과 프라야 피차이는 짜오프라야 쭈라씨, 프라야 쭈코타이처럼 내려와 알현하지 않았다.”

이에 프라야 피차이를 심문하였다. 프라야 피차이는 정해진 때에 내려와 알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 죄가 매우 무거웠으므로 왕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왕께서는 이를 왕명을 가볍게 여긴 일로 판단하고, 쌀라의 룩쿤들에게 죄를 심의하도록 명하였다.

룩쿤들이 심의한 뒤, 왕께서는 프라야 피차이를 태형 서른 대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앞으로 계속 군무를 수행하도록 서약을 받게 하였다.

프라야 피차이는 다시 올라가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각 고을의 병력을 징발하고 부대를 편성하여 이번 치앙마이 원정에 왕을 따라 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라야 피차이에게 다음 물품을 하사하였다.

무늬를 넣어 짠 비단 상의 한 벌, 왕의 보조 어용 화승총 한 정, 선수에 설치하는 대포 네 문이었다. 이 네 문의 대포는 화약 장약의 중량이 각각 15, 14, 12, 11 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화약 장약 중량이 2 인 길고 각진 포신의 대포 두 문, 화승총 280 정, 등근 총열과 ‘코끼리 얼굴’ 형식의 영국제 총 가운데 좋은 것 스무 정이 있었다. 이 대목에는 합계가 서른 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석의 중량은 10, 유황의 중량은 5 로 적혀 있다.

[중량의 세부 단위는 원문의 옛 표기이며, 이어지는 부분은 지워져 있다.]

……그리고 받았으며…… *[이 뒤는 원본에서 모두 지워져 있다.]*

두 번째 문서

짜오프라야 짜끄리가 ……피차이쑹크람……씨싸왓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왕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왕의 군대는 말띠 해의 여섯째 순환년, 음력 12 월 하현 열하루에 북상하여 치앙마이를 정벌할 것이다……”

……칸짜나부리와 씨싸왓은 변경을 지키는 고을이며……못따마……

……못따마가 함락된다면……

……부족하여……생선과 식량……

……칸짜나부리와 씨싸왓……몬족이……하지 못하도록 하라……

……수도의 군대가 북상하면……

“몬족 가운데 왕을 따라 출정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하여 몬족을……수도로 보내도록 하라……” *[이 뒤는 원본에서 모두 지워져 있다.]*

세 번째 문서

말띠 해의 여섯째 순환년, 음력 12 월 하현 이틀 일요일에 이 관인 문서의 초안을 짜오프라야 씨탐마티랏에게 올렸다.

짜오프라야 씨탐마티랏은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즉시 관인을 찍어 쿤 데차에게 맡겨 보냈다.

네 번째 문서

짜오프라야 짜끄리가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짜오프라야 싸완칼룩과 고을의 관리들은 프라 욱끄라밧에게 문서를 맡겨 내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버마군에서 달아나 온 나이 풍을 심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아와의 왕이 병들어 죽고, 그 아들이 아와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아와 왕의 아들 아차가 죽었습니다.

뽀 쉰플라와 마윽우안은 군대의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제 남쪽 고을들로 진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뽀 쉰플라는 물러나 반 꺾통에 진을 쳤고, 각 군대는 제각기 자기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뽀 쉰플라의 군대는 치앙마이로 들어가지 않고 아와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짜오프라야 싸완칼룩과 고을의 관리, 각 부대의 지휘관과 병사들은 한마음으로 치앙마이를 공격하는 일에 자원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쌀라의 룡쿤들은 이 보고를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짜오프라야 싸완칼룩과 관리들이 치앙마이를 공격하겠다고 자원하였으나,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은 내려와 알현하여 왕께서 내려 주시는 군사 지식을 받지 않았다. 그에게는 예전의 지식만 있으므로, 그것으로 버마의 적군을 이길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해진 시기에 내려와 알현하지 않은 것은 왕명을 어긴 죄이다.

이미 관인 문서로 루앙 마하몬뜨리에게 명하여, 복상한 뒤 왕의 형벌을 집행하고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을 체포하여 돈부리로 데려오게 하였다.

부지사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아 관리와 병사들을 징발하고 부대를 편성하여 왕을 따라 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일을 왕께 아뢰어,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의 출정을 허락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짜오프라야 싸완칼룩은 앞서 올라간 왕명 문서에 따라 왕의 형벌을 받도록 하라.

루앙, 쿤, 몬의 직위를 가진 관리들 가운데 출정을 자원할 뜻이 있는 자가 있다면, 왕께서 각 고을에 도착하신 뒤에 아뢰도록 하라.

이 문서는 소력 1136 년, 말띠 해의 여섯째 순환년인 불기 2317 년, 음력 12 월 하현 이틀 일요일에 작성하였다.

같은 날 저녁, 왕께서 수상 궁전의 어전에 나오셨다.

창왕 큰 씨쑤텡이 짜오프라야 싸완칼록의 보고 문서를 왕께 올렸다.

왕께서는 프라야 피팟꼬싸에게 어전에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명하셨으며, 이 기록에 따라 깐짜나부리와 씨싸왓에 관인 문서를 보내도록 하셨다.

그날 곧바로 관인을 찍어, 문서를 운반하는 프라 욱끄라밧에게 맡겼다.

다섯 번째 문서

짜오프라야 짜끄리가 프라 씨싸왓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왕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짜오프라야 싸완칼록과 고을의 관리들이 문서로 보고하기를, 뽀 쑤플라의 군대에서 달아나 온 나이 풍이라는 랍래 출신 사람이 심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한다.

아와의 왕이 병들어 죽었으며, 죽은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죽은 아와 왕의 동생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

그러므로 프라 씨싸왓과 고을의 관리들은 실제로 누가 왕위에 올랐는지 조사하여 확실히 알아내도록 하라. 그리고 지체 없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라.

아와에 죽음에 이르는 변고가 생겼다면, 그곳의 정세를 더욱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가 도착하는 즉시 프라 씨싸왓과 관리들은 서둘러 조사하여, 자세한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라.”

이 문서는 소력 1136 년, 말띠 해의 여섯째 순환년인 불기 2317 년, 음력 12 월 하현 이틀 일요일에 작성하였다.

같은 날 종이에 문서를 작성하고 관인을 찍었다. 나이 유룽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깐짜나부리의 문서 운반 담당자가 이를 받아 씨싸왓까지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 문서를 넘겨줄 때에는 항무 부서의 관인 담당 서기가 함께 지켜보았다.

여섯 번째 문서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관인 문서를 캄팡팻과 나콘싸완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보낸다.

왕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말띠 해의 여섯째 순환년, 음력 12 월 하현 열하루 화요일에 왕께서 복상하여 치앙마이를 정벌하실 것이다.

각 고을을 지키는 관리들은 왕께서 낮에 머무르실 처소와 밤에 숙영하실 처소를 짓도록 하라. 또한 왕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꾸미고,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왕께서 복상하실 강길 가운데 모래톱이나 여울, 강바닥에 박힌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관리들이……”

“왕의 배가……모래톱이나 여울에……되지 않도록 하라……”

[이 뒤는 원본에서 모두 지워져 있다.]

일곱 번째 문서

[문서의 첫머리가 떨어져 나가 있다.]

……앞서 관인 문서로 왕명을 보내어, 이번에 왕께서 치앙마일로 복상하실 때 각 고을의 수령과 관리들이 부역민을 징발하고 부대를 편성하여 왕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이제 왕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출정의 길일을 말띠 해의 여섯째 순환년, 음력 12 월 하현 열하루 화요일로 정하였다. 이날 돈부리에서 군대를 출발시킬 것이다.

왕을 맞이하도록 징발된 각 고을의 군대는 모두 서둘러 출발하여, 딱에 있는 반라행에서 함께 왕을 맞이하도록 하라.

배가 부족하면 육로로 가도록 하라.

정해진 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복상하고, 지체하지 말라.

각 고을에서 어느 날 출발하는지, 병사와 코끼리, 말, 무기 및 군수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라.

프라 썩과 고을의 관리들은 앙통으로 보낼 관인 문서를 받아, 이를 운반할 사람을 서둘러 정하여 프라야 앙통과 그 고을의 관리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라.”

이 문서는 소력 1136 년, 말띠 해의 여섯째 순환년인 불기 2317 년, 음력 12 월 하현 이틀 일요일에 작성하였다.

같은 날 썩, 인부리, 프롬, 차이나트, 짜완……으로 보낼 관인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 여섯 고을의 문서는 피차이의 루앙 욱끄라밧에게 맡겼다.

앙통으로 보낼 관인 문서는 썩에서 운반할 사람을 정하여 프라야 앙통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짜완으로 보낼 관인 문서는 차이나트에서 운반할 사람을 정하여 프라야 짜완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말띠 해의 여섯째 순환년, 음력 12 월 하현 사흘 월요일에 작은 왕실 사자 문양의 관인을 찍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앙통에 보낼 문서 한 통과 짜완에 보낼 문서 한 통으로 두 통이었다.

썩에 보낼 문서 한 통, 프롬에 보낼 문서 한 통, 차이나트에 보낼 문서 한 통, 인부리에 보낼 문서 한 통으로 네 통이었다.

각 고을에 한 통씩, 모두 여섯 통을 작성하여 프라 아누춧피탁에게……

[이어지는 부분은 원본에서 지워져 있다.]

제 8 호 문서

[문서 앞부분이 모두 지워져 있음]

……왕명을 받드는 관리들에게 명하여, 왕께서 하사하신 등록민을 할당된 수에 따라 나누어 편성하고, 그들을 인솔하여 딱 지방 반라행에 있는 프라야 욱마랏의 군대에 합류하도록 하였다. 이 사항은 앞서 보낸 공문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다.

짜오프라야 나콘랏차시마, 프라야 나콘차이신, 프라 피차이송크람, 프라 사라부리, 프라 라차누랏, 프라 타룽 및 지방 관리들은 왕께서 하사하신 등록민을 왕명 수행 관리들에게 배정하였는가? 관리들이 그들을 인솔하여 이미 군대로 출발하였는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

이제 국왕께서 친히 이끄시는 본군은 말의 해, 출라삭 연호 여섯째 해의 음력 12 월 하현 11 일에 치앙마이로 정벌하러 출발할 것이 확정되었다.

우측 경찰대의 수석 관리인 므 아난삭을 보내어 프라 피차이송크람, 프라 사라부리, 프라 라차누랏, 프라 타룽에게 준비를 서두르게 하라. 좌측 내경찰대의 나이 라차팍디도 보내어 짜오프라야 나콘랏차시마와 지방 관리들에게 준비를 재촉하게 하라.

왕명을 받드는 쿤·믄급 관리들에게 왕께서 하사하신 등록민을 편성하여 넘겨주고, 그 등록민을 받은 관리들은……

……그들을 서둘러 인솔하여 딱 지방 반라행의 군대에 합류하도록 하라. 앞서 내려보낸 왕명에 정해진 국왕의 출발 일정에 맞추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 문서가 도착하는 즉시 짜오프라야 나콘랏차시마, 프라야 나콘차이신, 프라 피차이송크람, 프라 사라부리, 프라 타룽 및 지방 관리들은 왕께서 하사하신 등록민을 왕명 수행 관리들에게 신속히 배정하라.

그 관리들은 등록민을 인솔하여 딱 지방 반라행으로 급히 이동하고, 국왕을 맞이할 군대에 합류하도록 하라.

왕명 공문을 지닌 관리들이 도착한 날짜, 짜오프라야 나콘랏차시마, 프라야 나콘차이신, 프라 피차이송크람, 프라 사라부리, 프라 라차누랏, 프라 타룽 및 지방 관리들이 등록민을 배정한 날짜, 그리고 관리들이 그들을 인솔하여 출발한 날짜를 모두 보고하라.

이 문서는 출라삭 1136 년, 말의 해 여섯째 해, 불기 2317 년 [서기 1774 년] 음력 3 월 12 일 월요일에 작성하였다.

같은 날 오후 4 시가 조금 지난 시각, 서기 담당관이 이 공문의 초안을 보내어 종이에 옮겨 적고 봉인한 뒤 내경찰대의 수석 관리에게 전달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곧바로 봉인하여 우측 외경찰대의 므 아난삭에게 맡겼다. 그는 췌차분, 타룽, 부아춤으로 향하였다. 배는 길이 6 와였고, 노 젓는 인원은 7 명이였다.

좌측 내경찰대의 나이 라차팍디에게는 나콘랏차시마로 가져가게 하였다. 배는 길이 5 와 2 속이었으며, 노 젓는 인원은 6 명이였다. 이미 롭부리 방면으로 올라갔다.

옮긴이 주: 와와 속은 옛 길이 단위로, 1 와는 약 2m, 1 속은 약 0.5m 이다.

제 9 호 문서

크롬 마hatta이 소속 나이 차루앗의 문서를 각 지방의 임시 통치자와 지방 관리, 프라·루앙·쿤·믄급 관리, 마을 책임자, 지역 책임자, 관문 및 감시 초소 담당자에게 보낸다.

루앙 라차니쿤이 받은 왕명은 다음과 같다.

“국왕께서는 말의 해 여섯째 해, 음력 12 월 하현 11 일에 치앙마이를 정벌하러 출발하신다.

왕실 사자 문양의 인장이 찍힌 공문을 발급하여 좌측 내경찰대의 나이 라차팍디에게 맡기고, 나콘랏차시마의 짜오프라야와 지방 관리들에게 가져가게 하라.

우측 외경찰대의 므 아난삭에게도 공문을 맡겨 프라 피차이송크람, 프라야 나콘차이신, 프라 타룽에게 가져가게 하라.

이들은 왕께서 하사하신 등록민을 신속히 편성하고, 왕명 수행 관리들에게 넘겨주어, 그 관리들이 등록민을 인솔하여 딱 지방 반라행에서 국왕을 맞이하도록 하라. 국왕의 행차에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

나이 라차팍디와 므 아난삭이 왕명 공문을 가지고 어느 마을, 지역 또는 지방 관할 구역에 도착하든, 그들이 나콘랏차시마, 팻차분, 부아츄, 타룽에 이를 때까지 즉시 다음 구간으로 보내라.

신속히 전달해야 하며, 한 시간도 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나이 라차팍디와 므 아난삭이 권세를 부려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부정을 저질러,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에게 물품·금·은을 요구하거나 받아내는 일을 금한다.

[이하 원문 결락]

원숭이해 여덟째 해, 불기 2319 년 [서기 1776 년] 왕실 코끼리 장부

사완칼록의 임시 통치자 프라야 악카라왕, 우타이타니의 프라 람마롱콥, 프라야 위셋, 프라야 딱, 프라야 수탓, 라행의 프라야 치앙통, 프라야 수판 및 지방 관리들이 보낸 문서가 있었다.

[일부 내용이 지워져 있음]

보고에 따르면, 버마군이 라행·사완칼록·핏사눌록을 공격하였을 때 빼앗아 간 코끼리도 있었으며, 프라야 욘마랏의 군대에 배정한 코끼리도 있었다.

프라야 욘마랏은 일부 코끼리를 군대에 하사하여 식량 운반에 사용하게 하였고, 일부는 군무에 배정하였다. 또 일부 코끼리는 계속 사육하던 중 죽었다.

국왕의 조카인 크롬 쿤 아누락송크람에게 하사한 코끼리도 있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버마군에게 빼앗긴 코끼리

1. 사완칼록의 프라야 악카라왕 소관: 좌측 장부에 수컷 7 마리, 암컷 15 마리. 합계 22 마리.
2. 프라야 치앙통과 프라야 수탓에게 맡겨져 있다가 사무하나옥에게 넘겨져 치앙마이 원정에 사용된 코끼리 가운데, 핏사눌록에서 버마군에게 빼앗긴 것:
 - 좌측 장부: 수컷 1 마리, 암컷 1 마리. 합계 2 마리.
 - 우측 장부: 수컷 1 마리, 암컷 1 마리. 합계 2 마리.
 - ‘뽀’ 1 마리.
 - 총합 5 마리.
3. 프라야 사완이 군대에 가져갔다가 핏사눌록에서 버마군에게 빼앗긴 것: 좌측 장부의 암컷 6 마리.
4. 라오족 사육 담당자가 데려가 기르던 중, 버마군이 라행을 공격했을 때 빼앗긴 것:
 - 프라야 치앙통에게 맡긴 코끼리: 좌측 2 마리, 우측 2 마리.
 - 프라야 수탓에게 맡긴 코끼리: 좌측 장부의 암컷 1 마리.

옮긴이 주: 장부의 ‘좌측·우측’은 원문의 분류를 그대로 옮겼다. ‘뽀’는 원문에 별도로 기재된 코끼리 구분명이나, 이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뜻을 확정하기 어렵다.

국왕의 조카 크롬 쿤 아누락송크람에게 하사한 코끼리

핏차부리: 좌측 장부의 수컷 4 마리, 암컷 6 마리.

원숭이해 여덟째 해, 불기 2319 년 [1776 년] 에 죽은 코끼리

- 프라야 치앙통 소관 1 마리, 프라야 딱 소관 1 마리. 합계 암컷 2 마리.
- 프라야 사완 소관 수컷 1 마리.
- 치앙마이 원정에 배정되어 수관부리에서 죽은 것: 우측 장부의 수컷. [원문에 수량 없음]

돈까이투안 전투에 출전한 군대에 편입된 코끼리

프라야 욘마랏이 군대에 하사하여 넘겨준 것:

우타이타니 소관 2 마리, 프라야 딱 소관 1 마리. 합계 3 마리.

나콘시탐마랏과 캄보디아로 배정한 코끼리

수관 소관의 우측 장부 코끼리는 프라 프롬무니와 함께 나콘 [시탐마랏] 으로 가서 삼장경을 받아오는 데 사용되었다. 2 마리를 보냈으며, 남아 있는 것은 수컷 1 마리와 암컷 1 마리였다. 전체로는 수컷 3 마리, 암컷 1 마리였다.

나콘차이시 소관 코끼리는 프라 프롬무니와 함께 나콘으로 가서 삼장경을 받아오는 데 사용되었다. 1 마리를 보냈으며, 지방에 남아 있는 수컷은 1 마리였다. 합계 수컷 2 마리였다.

나콘의 삼장경을 받아오는 업무에 프라 프롬무니와 함께 배정한 것은 우측 장부의 수컷 3 마리였다.

캄보디아의 프라 옹 깨오와 함께 보낸 것은 좌측 장부의 암컷 1 마리였다.

[해당 대목에는 별도로 ‘합계 3’이라고 적혀 있다. 앞선 수량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원문 그대로 옮겼다.]

짜오프라야 사완칼록의 유산에 속한 코끼리

사완칼록의 프라야 악카라왕이 보낸 보고에 따르면, 짜오프라야 사완칼록의 유산으로서 프라야 악카라왕에게 맡겨 두었던 코끼리들은 버마군이 핏사눌록·사완칼록·수코타이를 공격했을 때 빼앗겼다.

그 가운데에는 플라이 람차이, 플라이 톰 등의 이름을 가진 코끼리가 있었다.

수컷 7 마리, 암컷 15 마리로 합계 22 마리였다.

프라 프롬무니가 나콘으로 갈 때 사용한 코끼리

수판의 프라야 수판과 지방 관리들이 보낸 문서에 코끼리의 배정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1. 코끼리 담당 부서에서 징발하여 대포를 싣고 운반하게 하거나, 국왕께서 치앙마이를 정벌하러 올라가실 때 짐을 지고 따르게 한 것. 양의 해 일곱째 해에 해당한다.
[이하 원문 결락]
2. 프라 프롬무니와 함께 나콘의 삼장경을 받아오는 데 배정한 것.
[이하 원문 결락]

짜오프라야 짜끄리 [뭇]의 유산에 속한 코끼리

펫차부리의 라바트 타오 아이분 소관으로,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유산에 속한 코끼리를 국왕의 조카 크롬 쿤 송크람에게 맡겼다.

크롬 쿤 송크람이 아뢰자, 국왕께서는 이를 국왕의 조카 크롬 쿤 수린송크람에게 하사하셨다.

프라야 짜끄리가 왕명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인수 사실을 확인한 뒤 그 대감은 이를 …… 왕실 장부에 기재하도록 명하였다. [장부 명칭 일부는 원문 결락]

쁘라쨌 지방에서는 루앙 나외 유산에 속한 코끼리 1 마리를 캄보디아의 프라 옹 께오와 함께 보냈다.

프라 차이부리의 라바트 소관 코끼리는 좌측 장부에 속하며, 현재 펫사눌록에 남아 있다. 암컷 1 마리로, 키는 4 속 1 톨이다.

사라부리의 쿤 룡 팔랏이 보낸 보고에는 프라야 사완의 유산에 속하여 프라야 사완에게 맡겨 둔 코끼리의 내역이 적혀 있었다. 합계 10 마리였다.

옮긴이 주: 톨은 손을 벌렸을 때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옛 단위로, 약 25cm 이다.

닭의 해, 불기 2320 년 [서기 1777 년] 왕실 코끼리 장부

신하 프라 캄땡, 루앙 코차싯, 루앙 코차삭이 삼가 국왕께 아뢰옵니다.

왕실 코끼리 가운데 지방의 임시 통치자와 지방 관리들에게 맡겨져 있고, 코끼리 사육 부서 밖에서 길러지고 있는 것들을 닭의 해 장부에 따라 집계하였습니다.

수컷 31 마리, 암컷 51 마리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행
 - o 프라야 치앙통: 수컷 1 마리, 암컷 8 마리. 합계 9 마리.
 - o 프라야 딱: 암컷 2 마리.
 - o 프라야 수탉: 수컷 1 마리, 암컷 1 마리. 합계 2 마리.
 - o 전체 합계: 수컷 2 마리, 암컷 11 마리.
[원문의 개별 수량과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2. 우타이타니
 - o 프라 람마롱콥에게 맡긴 것: 수컷 2 마리, 암컷 3 마리. 합계 5 마리.
3. 프라야 사라부리
 - o 수컷 3 마리, 암컷 7 마리. 합계 10 마리.
4. 펫차부리
 - o 왕자 크롬 쿤 아누락송크람: 수컷 6 마리, 암컷 4 마리. 합계 10 마리.
5. 아사마이 [신규 의용 부대]
 - o 프라야 코사와 쿤 시세나: 수컷 2 마리, 암컷 2 마리.
 - o 쿤 라차세나: 수컷 3 마리, 암컷 4 마리.
 - o 합계: 수컷 5 마리, 암컷 6 마리.
6. 프라 빠라쩐
 - o 암컷 1 마리.
7. 프라야 수판과 지방 관리들
 - o 수컷 4 마리, 암컷 1 마리.
8. 사완칼록의 프라야 악카라웁
 - o 수컷 5 마리, 암컷 17 마리. 합계 22 마리.
9. 프라야 나콘차이시와 지방 관리들
 - o 수컷 2 마리.
10. 프라야 깐짜나부리와 지방 관리들
 - o 수컷 2 마리.
11. 펫사눌록의 프라 차이부리
 - o 암컷 1 마리.

사이부리와 탈랑으로 데려간 경우

사이부리로 코끼리를 인솔해 간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 쿤 시차이텃: 2 창.
- 나이 참……: 7 땀롱.
- 나이 목, 부책임자……: 10 땀롱.

탈랑으로 코끼리를 인솔해 간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 나이 참농……: 8 땀롱.
- 나이……: 8 땀롱. [인명과 금액 사이의 일부 내용은 원문 결락이다.]

프라야 짜끄리와 프라야 탐마를 따라 출전한 경우

프라야 짜끄리의 부대

- 담당자 루앙 프릿: 1 창.
- 나이 참룽: 11 땀룽.
- 나이 사라팻: 11 땀룽.
- 나이 참난: 8 땀룽.
- 나이 맨 코차산: 7 땀룽.
- 나이 끄렌락사: 7 땀룽.

등록민……

개의 해, 음력 5 월, 불기 2321 년 [서기 1778 년] 에 하사받을 예정인 것은……

옮긴이 주: 마지막 부분의 창과 땀룽은 코끼리 마릿수가 아니라 전통적인 금액·중량 단위이다.

『연대기 자료집』 제 66 부 툰부리 시대의 원정 일지

불기 2314 년 [서기 1771 년] 푼타이맛과 캄보디아를 정벌하던 때의 기록

제 66 부 서문

이 『연대기 자료집』 제 66 부에는 모두 네 가지 자료가 실려 있다.

첫째, 「툰부리 시대 푼타이맛·캄보디아 원정 일지」이다.

이 자료의 원본은 왕립 도서관에서 입수하였다. 검은색 태국 전통 접이식 책에 흰 연필로 적은 옛 필사본이다. 독자가 원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첫 장을 사진으로 복제하여 본보기로 실었다.

이 기록은 툰부리 시대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토끼의 해인 불기 2314 년 [1771 년] 의 사건을 연구할 때 그러하다. 연대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둘째, 「쭈라우타까라왕」이다.

이 자료에는 마가다어 [팔리어] 로 된 판본과 태국어 산문 판본이 있다. 두 판본은 서로 다른 시기에 입수하였다.

마가다어 판본은 번역하여 불기 2463 년 [서기 1920 년] 에 처음 출판하였다. 그 내용은 아유타야 왕국의 연대기에 관한 것이다. 다만 제 2 장이 끝까지 남아 있지 않으며, 솜땃 프라 인타라차티랏의 재위 시기에서 끊긴다.

이번 책에 실은 「쭈라우타까라왕」은 태국어 산문 판본이다. 첫 장에서는 수코타이의 솜땃 프라 루앙 왕의 탄생에 얹힌 내력을 다룬다. 그는 크메르로부터 태국의 독립을 되찾은 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판본 역시 완전하지 않다. 제 2 장으로 넘어가 솜땃 프라짜오 우통이 아유타야를 통치하는 대목에 이르면 현존하는 필사본이 끝난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쭈라우타까라왕」이 수코타이 왕국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로 이어지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원래 마지막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마침 「텃사나 쫄라웃타까라웁」이라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다. 이것은 아래에서 네 번째 자료로 설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쫄라웃타까라웁」의 서술이 아유타야 시대까지만 이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수코타이의 프라 루앙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옛 도성 사람들의 증언』에 삽입되어 있는 자료이다. 내용이 「쫄라웃타까라웁」의 첫 부분과 가까운 전승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전승은 역사적 실마리를 살펴보고 검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자료집에 함께 수록하였다.

넷째, 「텃사나 쫄라웃타까라웁」이다.

이 자료는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불기 2310년 [서기 1767년] 버마에 의해 왕국이 함락되는 대목에서 이야기를 끝맺는다.

그 뒤에는 다음 왕국 시대의 내용을 간추려……

[『쌍키띠야웁』 경전에 서술된 톤부리 시대의 내용을 간추려 차례대로 연결하고, 라파나꼬신 왕국 초기의 연대기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 자료는 라마 3세 재위기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며, 문장이 치밀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

예술국

불기 2503년 3월 13일 [서기 1960년]

톤부리 시대의 원정 일지

불기 2314 년 [서기 1771 년] 푼타이맛과 캄보디아를 정벌하던 때

이번 캄보디아 원정에 동원할 병력은 10,590 명이였다.

토끼의 해, 연호 셋째 해인 출라삭 1133 년, 불기 2314 년 [1771 년] 음력 11 월 상현 9 일 목요일, 프라야 움마랏의 부대가 육로로 출발하였다. 병력은…… [원문 결락] .

같은 해 음력 11 월 상현 15 일 수요일, 밤 11 시경 월식이 있었다. 국왕께서는 신심을 일으켜 돈을 보시하고, 높은 관리와 낮은 관리,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하사하셨다. 밤의 두 번째 경 [약 자정] 에 이르러 월식이 끝났다.

같은 해 음력 11 월 하현 11 일 일요일, 국왕께서 이끄시는 본군이 수로를 따라 캄보디아로 출정하게 되었다. 국왕께서는 왕실 전투선에 승선하셨으며, 병력은 10,866 명이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문 각주: 프라야 움마랏 [두앙] 은 훗날 솜땃 프라 푼타웃파쭈라룩, 곧 라마 1 세가 된 인물이다.]

[이어지는 도판은 태국 전통 접이식 책에 적힌 원본 필사체의 견본이다. 도판 설명: “태국 전통 책 원본의 필사체 견본. 15 쪽 참조.” 다음 면은 빈 페이지이다.]

같은 해 음력 11 월 하현 8 일 목요일, 국왕께서 수상 전각으로 나오셨다.

짜오프라야와 프라야·루앙·쿤·문급 관리들은 각자 병력을 모두 승선시킨 뒤, 명부를 가져와 보고하였다.

국왕께서는 이들에게 총, 허리띠, 옷, 금빛 꽃무늬 모자, 호위 인원을 하사하셨다. 각 배의 선수포와 양현에 배치된 포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셨다.

전투선에는 관직에 따른 문장을 그려 넣었으며, 배의 측면에는 금박 문양을 장식하였다.

국왕께서 타시는 어좌선의 선수에는 가루다 형상을 그렸고, 측면에는 금박 문양을 넣었다. 선미에는 금빛 문양을 장식하고, 지붕에는 주홍색 천을 씌웠다. 노걸이와 돛대에는 노란색을 칠하였다. 노 젓는 병사들은 모자를 쓰고 금빛 꽃무늬 옷을 입었다.

왕실 일족의 전투선에도 금박 문양을 장식하였다. 지붕에는 붉은 천을 씌웠고, 노 젓는 병사들은 녹색 옷을 입었다. 깃발과 등불도 갖추었다.

[원문 각주: 이 대목은 툰부리 시대 수군의 편제와 규정을 설명한다. 원본에서는 '깃발'이라는 단어를 모두 옛 표기로 적었다.]

부대별 함선·병력·무기

프라야 피차이아이사완의 부대

- 왕실 전투선 44 척, 하구 소속 전투선 29 척, 찰라이삭 전투선 1 척. 원문 합계 73 척.
- 지휘관·관리 140 명, 일반 병사 1,546 명. 합계 1,686 명.
- 선수포 43 문, 양현포 102 문. 합계 145 문.
- 수석식 총 426 정, 화승식 총 93 정. 합계 519 정.
- 원문에 적힌 전체 무기 합계는 684 문·정이다.

프라야 피핏의 부대

- 왕실 전투선 12 척, 찰라이삭 전투선 4 척, 삼판형 범선 34 척. 합계 50 척.
- 지휘관·관리 50 명, 일반 병사 1,431 명. 합계 1,481 명.
- 선수포 16 문, 양현포 32 문, 수석식 총 16 정. 합계 64 문·정.

프라 시랏데초의 부대

- 전투선 27 척.
- 지휘관·관리 25 명, 일반 병사 949 명. 합계 974 명.
- 선수포 27 문, 양현포 54 문. 합계 81 문.
- 수석식 총 324 정, 화승식 총 99 정. 원문 합계 462 정.

프라 타이냐암의 부대

- 전투선 43 척.
- 지휘관·관리 84 명, 일반 병사 1,017 명. 합계 1,101 명.
- 선수포 43 문, 양현포 86 문. 합계 129 문.
- 수석식 총 37 정, 화승식 총 180 정. 합계 217 정.
- 전체 무기 합계 346 문·정.

짜오프라야 짜끄리의 부대

- 전투선 8 척, 끌라부 배 4 척, 빠쁠라 배 1 척. 합계 13 척.
- 지휘관·관리 21 명, 일반 병사 668 명. 합계 689 명.
- 선수포 8 문, 양현포 16 문, 수석식 총 154 정. 합계 178 문·정.

[원문 각주: 이 짜오프라야 짜끄리는 ‘뭇’이다.]

군무 외 업무를 맡은 프라야 코사의 부대

- 전투선 10 척, 삼판형 범선 24 척. 합계 34 척.
- 지휘관·관리 72 명, 일반 병사 1,633 명. 합계 1,705 명.
- 선수포 10 문, 양현포 20 문. 합계 30 문.
- 수석식 총 361 정, 화승식 총 142 정. 합계 503 정.
- 전체 무기 합계 533 문·정.

프라야 톱코사의 부대

- 왕실 전투선 7 척, 찰러이삭 전투선 6 척. 합계 13 척.
- 지휘관·관리 22 명, 일반 병사 431 명. 합계 453 명.
- 선수포 17 문, 양현포 26 문. 원문 합계 37 문.
- 수석식 총 123 정, 화승식 총 17 정. 원문 합계 136 정.
- 전체 무기 합계는 원문에 175 문·정으로 적혀 있다.

국왕 직속 본군

- 전투선 84 척.
- 지휘관·관리 178 명, 왕실 등록 병사 1,102 명, 개인 소속 등록 병사 962 명. 합계 2,242 명.
- 선수포 84 문, 양현포 168 문. 합계 252 문.
- 수석식 총 725 정, 화승식 총 40 정. 원문 합계 764 정.
- 전체 무기 합계 1,016 문·정.

선미 담당자와 돛 담당자 20 명이 삼판형 범선에 배치되었다.

그 삼판형 범선에는 지휘관·관리 30 명과 일반 병사 299 명, 합계 329 명이 있었다. 삼판형 범선은 49 척이었다.

왕실 배, 하구 소속 전투선, 찰러이삭 배는 합계 131 척이었다. 삼판형 범선까지 포함한 전체 함선 수는 180 척이었다.

지휘관·관리 414 명과 일반 병사 7,675 명으로, 합계 8,089 명이었다.

선수포 170 문과 양현포 346 문으로, 합계 516 문이었다. 수석식 총 2,819 정, 화승식 총 526 정으로 합계 3,345 정이었다. 전체 무기 합계는 3,861 문·정이었다.

삼판형 범선 49 척, 전투선 413 척에 지휘관·관리·병사를 합하여 10,590 명이 있었으며, 크고 작은 포와 총은 2,423 문·정이었다.

사망자를 공제하였다. 지휘관·관리 11 명과 일반 병사 100 명으로, 합계 111 명이었다.

옮긴이 주: 위 수량은 모두 원문 그대로이다. ‘칼리이삭’은 별도의 배 분류명이며, 수석식 총과 화승식 총은 각각 부싯돌과 불붙인 심지를 사용하는 총을 가리킨다.

동행 인원 명부

프라 안쁘라싯의 부대

프라 안쁘라싯, 나이 찬, 나이 마, 나이 락 [탈룽판] , 나이 아이, 나이 쌍.
합계 6 명.

쿤 엑쁘라셋의 조

쿤 엑쁘라셋 1 명, 나이 티안 1 명, 나이 코 1 명, 나이 껏 1 명, 나이 유 1 명,
나이 빠오 1 명, 나이 끄름 1 명, 나이 인 1 명, 나이 폰 1 명. 합계 9 명.

쿤 차이나룽의 조

나이 므앙, 나이 찬…… [원문 결락] , 나이 미, 나이 통디, 나이 추, 나이 깐,
나이 디, 나이 추안, 나이 쌍. 원문 합계 10 명.

프라 썬쑤탐의 조

프라 썬쑤탐, 나이 펫, 나이 촌, 나이 드아, 나이 르앙, 나이 통담, 나이 남,
나이 통카오, 나이 통인, 루앙 촌.

원문 집계: 지휘관·관리 2 명, 일반 인원 8 명. 합계 10 명.

스승 찬의 조

스승 찬, 나이 분룻, 나이 쏘, 나이 뺨, 나이 포, 나이 껏, 나이 분룻, 나이 통담,
나이 분, 나이 임, 나이 쑥, 나이 쌍, 나이 쏘, 나이 다, 나이 앓, 나이 쑥, 나이
쥼, 나이 드아, 나이 썸, 나이 위칫, 나이 쑥, 나이 포, 나이 찬, 나이 두앙.

원문 집계: 지휘관·관리 2 명, 일반 인원 23 명. 합계 25 명.

나이 포의 조

나이 포, 나이 싸, 나이 룻, 나이 꺾, 나이 두앙, 나이 싸깨, 나이 찬, 나이 인,
나이 차이, 나이 운, 쿤 람, 나이 무앗, 나이 쏘.

지휘관·관리 2 명, 일반 인원 11 명. 합계 13 명.

루앙 껏송크람의 부대

나이 두앙, 나이 캄, 나이 싸, 나이 시, 나이 땀, 나이 껏, 나이 키아오, 나이 쏘.

원문 집계: 지휘관·관리 1 명, 일반 인원 9 명. 합계 10 명.

프라 쑤탐마찬의 부대

프라 쑤탐마찬 1 명, 쿤 시 1 명, 나이 찬, 나이 껏, 나이 쏘, 나이 촌, 나이 시,
나이 끌리앙, 나이 시, 나이 리앙, 나이 창, 나이 종, 나이 룻, 나이 쏘, 나이 막,
나이 텃, 나이 썸, 나이 쿤, 나이 찬, 나이 마, 나이 싸, 나이 르앙, 나이 쑥,
나이 통, 나이 쏘노이, 나이 낙, 나이 인.

원문 합계 28 명.

[이 뒤에서 원본 일부가 빠져 있다. 명부의 반복되는 이름과 합계도 원문
그대로 옮겼다.]

푼타이맛 통치자에게 보낸 서신

……이제 짜오 웅람을 캄보디아 왕도에 보내어 왕으로 즉위시키려 한다.

……짜오 썸쌍, 짜오 쑤이, 그리고 옛 도성 출신의 왕실 신하들이 어느 지방에
머물고 있든, 모두 데려오려 한다.

프라야 라차셋티가 저항하며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새와 군영을
정비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만일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전히 프라야 라차셋티에게 자비를 베풀 뜻이 있다. 밖으로 나와 나에게 예를 올려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늪어 몸소 올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적은 서신을 마련하여 즉시 보내라.

늦어지면 내가 노하여 모두 죽이도록 할 것이다.

[원문 각주 1: 이 글은 선봉장 프라야 피차이아이사완이 꾀타이맛 통치자 프라야 라차셋티에게 보낸 서신이다.]

[원문 각주 2: 짜오 쎬쌍에 관한 이야기는 『연대기 자료집』 제 39 부에 나온다. 짜오 쎬이는 숨텃 짜오파 아파이의 아들이다.]

톤부리 왕조 시기의 군사 기록

관리가 서신을 들고 도착하자 프라야 랏차셋티는 답장을 보내왔다.

“보내 주신 서신은 잘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람들을 모아 함께 상의한 뒤, 의견을 정리해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에 서신을 다시 보내 다음과 같이 전했다.

“프라야 랏차셋티께서 상의하실 일이 있다면 서둘러 주십시오. 낮 동안은 팬찮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지체하면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 프라야 아파이론릿과 프라야 톱코사가 군영으로 가서 동쪽 성곽 앞에 진을 치고, 적의 움직임을 살폈다.

토요일, 음력 12월 초열흘, 토끼해 찌라쑉(불기 2314년) 이른 아침이었다. 국왕께서 직접 걸어서 동쪽 성벽 앞까지 나가셨다. 프라야 짜끄리와 프라야 톱코사 등을 불러 지시를 내리셨다.

성 앞 양쪽에 물길을 만들어 두고, 가운데 약 10 쉼(약 400m) 너비를 남겨 두라고 하셨다. 적의 배가 그 사이로 달아나려 하면 전선으로 막아 붙잡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프라야 짜끄리와 프라야 팀코사가 왕에게 한 사람을 데려왔다. 그 사람은 도망쳐 나와 귀순한 베트남인으로, 프라야 랏차셋티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머리를 조아려 아뢰었다.

“중국인들은 이미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야 랏차셋티도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믿을 만한지 살피도록 하셨다.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 프라야 랏차셋티가 가족과 재물을 데리고 귀순하면 충성을 인정해 관직을 주어 계속 일하게 하라고 하셨다. 만일 가족을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처벌하라고 명하셨다.

또 민 쿠틀 아카네에게 명하여 물때와 바람을 살피게 하셨다. 성 앞에 있던 배와 군대가 흩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 쿠틀 아카네가 프라야 짜끄리와 함께 적의 진영 가까이 가서 살폈다. 왕은 군대가 성을 공격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셨다.

적이 진영을 높고 견고하게 쌓았다면 함부로 공격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기습하라고 하셨다. 들어가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며, 무리하게 진입하다 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오후 3 시쯤 왕은 궁에 계시면서 군사와 관료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날 밤 적의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지 살피게 하고,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입하되 불가능하면 철수하라고 하셨다.

왕은 각 부대의 병력과 지원자를 점검하셨다. 아타맛 부대와 여러 장수, 병사와 관료들이 참여했다. 기록에는 병사와 지원자의 수, 지휘관의 이름과 인원이 차례로 적혀 있다. 일부 이름과 숫자는 옛 표기와 판독 상태 때문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왕은 육군과 관료, 민간인 가운데서 병력을 징발하여 육군과 수군을 합쳐 약 2,400 명을 마련하게 하셨다. 군사들에게 술을 내리고, 아타맛 부대와 합류해 밤중에 적의 진영을 기습하라고 명하셨다.

프라 마하텝이 왕을 알현하러 왔다. 그는 양손에 칼을 들고 헤엄쳐 적의 진영 앞까지 가서 공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왕은 적의 수가 적은 곳을 먼저 공격하라고 지시하셨다.

프라 마하텝이 왕명을 받들어 떠나려 하자 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해 돌아온다면 계속 나라를 위해 일하며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은 그의 용기를 치하하고 격려하셨다.

밤중에는 아타맛 부대 111 명과 육군·민간 병사 약 2,400 명이 진영을 공격하고, 다른 병력은 각자 맡은 곳을 지키도록 하셨다.

군사들이 진영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가가 많이 불타지는 않았다. 적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 안에 머물고 있었고, 진영을 지키던 병력도 많지 않아 서로 돕지 못했다.

적군은 왕의 군대가 육지로 오는 줄 알았고, 수군도 왕이 배를 타고 오는 줄 알았다. 이 때문에 군사들이 놀라 흩어졌다. 왕의 군대는 용기를 내어 적의 진영을 공격했다.

일요일, 음력 12 월 11 일 새벽이 되었을 때도 적은 진영을 공격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사망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프라야 랏차셋티는 배를 타고 도망쳤다.

왕은 프라야 짜끄리와 함대 지휘관에게 물으셨다.

“베트남인들이 배를 타고 달아날 때 어떤 무기를 쏘았는가?”

그들은 중국 배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아뢰었다. 왕은 중국인 와이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프라야 짜끄리에게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셨다. 이어 프라야 짜끄리에게 군사 업무를 맡기고,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도록 명하셨다.

월요일, 음력 12 월 12 일 정오 무렵 왕은 궁으로 돌아오셨다.

같은 날 오전 11 시경 왕은 궁을 나와 군사와 관료들을 불러 모으셨다. 적의 진영을 공격할 때 각 부대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확인하셨다. 적이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운다면 끝까지 공격하라고 하셨다.

싸움에 궁을 세운 장수 세 명에게는 각각 50 바트, 병사 스무 명에게는 각각 20 바트를 주도록 하셨다. 진영을 공격하는 데 궁을 세운 사람들에게도 포상금을 내리셨다.

기록에는 장수와 병사별 지급액이 자세히 적혀 있으나,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액수가 이어져 있어 판독이 다소 어렵다.

씨 사오락과 루앙 마하몬트리 등은 담배를 받았다. 프라야 랏차셋티 쪽 사람 두 명이 왕에게 귀순해 알현했다.

음력 12 월 12 일에는 루앙 인텡이 부처의 사리 네 점을 가져와 왕에게 바쳤다. 사리는 금으로 된 상자와 은으로 된 상자 등에 넣어져 있었다. 왕은 그것들을 보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포상금도 내리셨다.

또 군사와 민간인들에게 포로로 붙잡은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명하셨다. 만일 그들 가운데 프라야 랏차셋티의 집안과 관계된 사람이 있다면 왕에게 데려오게 하셨다.

프라야 추이엣라 차오파이도 왕과 함께 배를 타고 와서 알현했다. 왕은 문서를 작성하게 하셨다. 이른 아침 5 시쯤 불이 났다는 기록도 이어진다.

불은 왕궁 주변의 집들을 크게 태웠다. 왕은 불을 낸 사람을 찾아 조사하라고 명하셨다. 중국인 부대의 지휘관과 여러 사람을 불러 심문하게 하셨다.

중국인 장교 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붙잡혀 불을 낸 사람을 알려 주었다. 왕은 그에게 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그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셨다. 세 사람을 불러 심문한 뒤 죄가 드러나면 처벌하라고 하셨다.

불이 꺼진 뒤 태국인 한 사람이 왕에게 중국인 여자를 데려왔다. 그 여자는 은으로 된 빈랑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여자가 불을 낸 일과 관련이 있는지, 도망쳐 나온 사람을 도왔는지 조사하도록 하셨다. 기록에는 왕이 그 여자를 심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한 내용이 이어진다.

왕은 프라야 찐타부리에게 사람들을 조사하게 하셨다. 자백하지 않으면 처형하라고 명하셨다. 프라야 찐타부리는 중국인을 따라가 그들을 붙잡아 왕에게 데려왔다. 왕은 다시 심문한 뒤 죄가 확인된 사람들을 처벌하게 하셨다.

한편 태국인 측에서는 프라야 피핏의 책임도 거론되었다. 왕은 그를 조사한 뒤 사정을 참작해 용서하셨다.

왕은 태국인과 중국인 군사, 백성들에게 시장과 큰길을 다닐 때 규율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다니며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정해진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왕명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셨다.

수요일, 음력 12월 14일에는 적을 평정한 일을 알리고, 옛 성읍의 일을 정리하셨다. 프라야 피핏에게 지방 행정과 관련된 직무를 맡기고, 그 밖의 관리와 군사 업무도 정돈하게 하셨다.

왕은 프라야 랏차셋티의 재산과 군수품을 정리하게 하셨다. 병사 약 5,000명과 전선 60척, 각종 무기와 장비를 마련했다. 배에는 대포와 화약, 여러 군수품을 실었다. 이어 수로를 따라 캄보디아의 수도를 공격하러 떠나게 하셨다.

목요일, 음력 12월 15일에는 군대가 반쁠룽팔에 머물렀다.

금요일, 음력 12월 그믐 무렵 왕은 반농아람으로 가셨다. 오후 3시쯤 배를 대고, 그곳의 책임자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물으셨다.

“레아히엣은 어느 쪽으로 달아났는가? 어떤 길로 도망갔는가?”

그들은 적군이 이미 나흘 전에 그곳을 떠났다고 대답했다. 그때 앞쪽에 있던 군대에서도 총성이 들려왔다. 왕은 군대에 왕명을 전하는 깃발을 내리게 하셨고, 하루 동안 반렘에 머무르셨다.

다음 날 새벽, 왕은 다시 진군하셨다. 길을 잘못 안내한 중국인 길잡이에게 노하셨으며, 그를 문책한 뒤 진영에서 하룻밤을 보내셨다.

일요일, 음력 12 월 그믐 3 일, 오전 3 시쯤 왕은 빠끄남 프롱끄라상에 머무르며 군대를 정비하셨다. 군사들에게 작전을 설명하고 서둘러 진군하라고 하셨다.

민뜨리 쏫 경내경찰에게 크메르인 경찰병 한 명을 맡겨 길을 나누어 살피게 하셨다. 프라야 짜끄리의 군대 쪽으로 가던 중 저녁이 되자 크메르 병사가 달아났다. 민뜨리 쏫은 그를 뒤쫓아 붙잡아 죽였다. 더 나아가 길목을 살핀 뒤 본대에 합류했다.

왕은 두 사람에게 서신을 들려 바삭의 통치자에게 보내셨다. 푸타로맛을 이미 차지했고 군대가 진군 중이며, 캄보디아의 수도도 곧 손에 넣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바삭의 관리들이 군대의 진입을 막더라도 그들을 해치지 말고, 그곳에서 바친 예물을 받아들이라고 하셨다. 바삭의 통치자가 길에 나와 맞이하면 데려오되, 귀순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그날 밤 중국인 두 사람이 떠났다. 기록에는 그들이 작은 배 약 20 척을 확보하려 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왕은 나이 짜엔뜨라라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셨다. 이전에 왕이 정해 둔 법과 명령을 따르라는 내용이었다.

월요일, 음력 12 월 그믐 4 일 아침 왕은 반쩨남에 머무르셨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찾아와 귀순하자 왕은 그들을 맞아들이고, 중요한 문서를 내린 뒤 다시 길을 떠나셨다.

수요일, 음력 12 월 그믐 6 일 오후 5 시쯤 왕은 코팜퐁에 머무르셨다. 프라야 짜끄리가 알현해 크메르인들이 며칠 전부터 달아나 반너폰에 있다고 보고했다. 왕은 짜끄리와 프라 시랏차멧차이, 프라 타이나무에게 그들을 뒤쫓게 하셨다. 본대는 하루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목요일, 음력 12 월 그믐 7 일 오후 3 시쯤 본대가 다시 출발했다. 밤 2 시쯤 프라야 짜끄리의 서신이 도착했다. 크메르인들이 코팜퐁에서 달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왕은 반땀낙에 진을 치고 하루 머무르셨다.

금요일, 음력 12 월 그믐 8 일 아침 왕은 다시 이동해 빠클롱막까사에 도착하셨다. 그곳에서 가족들을 태운 배 약 50 척을 발견했다. 왕은 군사들에게 배와 사람들을 확보하게 하셨고, 많은 배와 가족들이 진영에 들어왔다.

토요일, 음력 12 월 그믐 9 일 아침 왕은 프라 알락, 루앙 랏차이, 루앙 수린에게 배와 군수품을 맡기셨다. 크메르 여인 한 명도 왕에게 인계되었다. 왕은 이들을 코팜퐁으로 보내고, 일부 군사는 바삭과 푸타로맛 쪽으로 보내 식량을

확보하게 하셨다. 왕은 반막까사 하구에 나흘 동안 머무르며 군사들에게 주변을 정리하게 하셨다.

수요일, 음력 12 월 그믐 13 일 오후 3 시쯤 왕은 반막까사를 떠나 코팜퐁에 도착하셨다. 배와 쌀, 물고기를 태국 승려들에게 내리셨다. 이 승려들은 톤부리로 들어가려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톤부리로 들어가려는 태국 승려들이 코팜퐁에 도착해 머물렀다. 왕은 빠끄남 서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프라야 짜끄리가 보낸 서신에는 크메르군 약 1,000 명이 운하 양쪽에 진을 치고, 운하에 말뚝을 박아 배가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크메르군은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목요일, 음력 12 월 그믐 14 일 왕은 모여든 태국인과 크메르인 포로들을 불러 명하셨다. 캄보디아의 왕 옹끄람랏차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프라야 욘마랏과 프라야 코사 등이 왕을 도와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업무를 맡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프라야 짜끄리는 바삭에서 일을 마치고 본대로 돌아왔다. 왕은 빠끄남에 머물며 군대의 보고를 기다리셨다. 다음 날 아침에는 빠끄남에서 군대를 다시 이동시키셨다.

왕은 캄보디아로 가는 길목인 빠끄남에 머무르며 군대를 기다리셨다.

금요일, 음력 12 월 그믐 15 일 아침 왕은 코룅을 떠나 서쪽 강변의 빠끄썩으로 이동하셨다. 바삭으로 가는 길이었다. 왕은 나이폰나이썩에게 하구에 머물며 바삭 쪽을 살피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왕명대로 머무르지 않고 앞서 나갔다가 베트남인 배 약 50 척과 마주쳤다. 적군은 물러났고, 프라 시리왓디는 배 11 척을 잃었다. 왕은 확보한 배들을 진영에 가져오게 하셨다.

군대는 먼저 푸타로맛으로 가도록 했고, 병사들은 바삭에 주둔했다. 이후 왕은 빠끄남으로 돌아와 군무를 살피셨다.

토요일, 음력 첫째 달 초하루 왕은 빠끄남 프룽끄라상에서 찐쥁으로 이동하셨다. 프라야 짜끄리에게 반찐쥁에 머무르게 하고, 바삭에서 온 군대와 합류하게 하셨다.

일요일, 음력 첫째 달 초이틀 왕은 찐쥁을 떠나셨다. 운하의 물이 빠져 배가 움직이지 못했다. 왕은 직접 큰 배를 밀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도우셨고,

나이 르악에게도 배를 밀게 하셨다. 군사들은 밤낮으로 힘을 합쳐 배를 움직였다.

왕은 음력 첫째 달에는 운하의 물이 말라 길이 끊기다시피 하지만, 왕의 은덕과 위엄 덕분에 큰 배와 작은 배가 모두 지나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월요일, 음력 첫째 달 초사흘 오후 3 시쯤 왕은 푸타로맛에 도착하셨다. 프라야 피뫼 아이사완에게 중국인들을 데리고 방콕으로 가서 군무를 보고하게 하셨다.

화요일, 음력 첫째 달 그믐 4 일 오후 4 시쯤 프라야 틱코사가 중국인 분쟁과 루앙 송클라를 데리고 왕에게 왔다. 두 사람은 도망쳐 왕에게 귀순하려 했다. 왕은 중국인 분쟁이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하셨다. 루앙 송클라 역시 심문을 받았다.

왕은 두 사람에게 죄가 드러나면 처형할 수 있다고 하시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루앙 송클라와 중국인 분쟁은 전쟁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심문을 받았다. 루앙 송클라는 왕에게 용서를 구했고, 두 사람은 일단 붙잡아 두었다.

그 무렵 술에 취한 선원 두 명이 중국인과 싸워 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왕은 사실을 조사하게 하셨다. 그 뒤 프라야 랏차...에게 왕명을 내려 관련자들의 죄를 따져 처벌하게 하셨다.

수요일, 음력 첫째 달 초닷새 아침 왕은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셨다. 왕명에 따라 루앙 락사솜밋과 루앙 랏차몬트리가 죄가 확인된 사람들을 조사했다. 왕의 군무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한 두 사람은 처형하도록 하셨다.

프라야 짜끄리는 나이 와이와라나룻의 일을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그에게 전쟁을 계속할지, 처벌할지 물으셨다. 해당 인물은 죄를 인정했다. 왕은 그가 전쟁을 계속하려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처형하도록 명하셨다.

다만 왕은 나이 뎃 마하렉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관직과 지위를 내리셨다. 처벌을 받은 사람 다섯 명에 대해서는 오후 3 시쯤 고위 관리와 하급 관리 22 명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나라의 관직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중한 죄가 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왕의 은혜를 베풀어 목숨을 살리고, 다시 왕명을 받들어 일할 기회를 주겠다. 너희는 왕을 위해 일하고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려라.”

왕은 왕의 명을 어기고 관습과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리되, 나라의 관례와 백성의 형편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충성하고 뉘우치면 다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병사와 백성 가운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를 죽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나라의 관례와 법도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다.

왕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승려가 되어 공덕을 쌓도록 하는 방법도 언급하셨다. 세속의 재산과 지위를 탐하기보다 계율에 따라 살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취지였다. 왕족과 관리들도 그들을 돕고, 각자의 처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셨다.

또 왕은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과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리들에게 지시하셨다. 무고한 가족까지 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라고 하셨다.

왕은 관리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삭으로 가서 왕명을 따르게 하라고 하셨다.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목숨은 살려 두고, 그들이 다시 관직을 맡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

푸타로맛과 주변 지역의 사찰에 머무는 승려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들이셨다. 승려들에게 새 가사를 내리고, 각자 돈 5 땀룽과 음식을 하사하셨다.

오후 2 시쯤 프라야 짜끄리와 프라야 아파이론룽이 왕에게 보고했다. 바삭에 있던 군대가 적과 교전했으며, 루앙 락사몬트리와 병사들이 배 11 척을 이끌고 돌아왔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에는 돌아온 병사와 배의 수가 함께 적혀 있다.

크메르인들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미 회유해 둔 크메르 사람들은 왕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하고 귀순해 오기를 기다렸다.

크메르 관리 다섯 명이 프라야 아티짱사, 바삭의 통치자, 그리고 크메르 장수 프라야 랏차송크람의 서신을 가지고 왔다. 이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귀순하려는 뜻을 전했다. 왕은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왕을 위해 일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서신을 읽은 뒤 프라야 짜끄리에게 문서를 보내셨다. 루앙 쿤몬 크메르가 바삭에서 맡은 일을 계속하게 하고, 프라야 아티짱사와 프라야 랏차송크람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게 하셨다. 왕은 그들에게 옷과 돈을 내리셨다.

왕은 프라야 짜끄리에게 귀순자들을 데리고 오게 하셨다. 바삭으로 다시 가는 일은 금하고, 프라야 아티짱사가 그곳의 통치 업무를 계속 맡게 하셨다. 캄보디아에는 옹끄람랏차를 왕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 뜻을

밝히셨다. 프라야 아티짱사와 프라야 랏차송크람이 새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대로 따르라고 하셨다.

푸타로맛에 와서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서신과 왕이 내리는 물품은 프라야 뎃, 크메르 장수 나이겐 등이 가지고 가게 하셨다.

목요일, 음력 첫째 달 초엿새 새벽 2 시쯤 왕은 크메르 산을 살피러 가셨다. 왕은 프라야 코사티보디에게 서신 두 통을 주어 전달하게 하셨다. 서신에는 나이 위쑈, 웅감, 렉끼앗 등과 태국 병사 및 베트남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보내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이웃 나라와 왕실 간의 우호를 유지하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뜻을 전하도록 하셨다.

왕은 오후 5 시쯤 죄수 네 명을 처벌하도록 하셨다. 민 와이와라낫을 비롯한 사람들은 적을 공격하던 중 죄를 지은 자들이었다. 앞서 술에 취해 중국인을 칼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두 사람의 일도 함께 조사되었다.

루앙 랏차몬트리와 루앙 락사솜밧은 코팜팽에서 왕에게 보고할 서신을 가지고 푸타로맛으로 왔다. 그곳에서 여섯 명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서로 다투었다. 왕은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형하라고 명하셨다.

금요일, 음력 첫째 달 초이레 오전 2 시쯤 왕은 관리들을 불러 군사와 행정에 관한 명령을 내리셨다.

프라야 씨리왓을 태국·중국 병력의 지휘관으로 임명해 바삭으로 보내셨다. 그 군대가 베트남 배들과 마주쳐 교전한 일도 보고되었다. 왕은 프라야 짜끄리와 루앙 쿤몬에게 병력을 모아 바삭으로 가게 하셨다.

각 부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태국인·크메르인·중국인 병사들이 마음대로 진영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 도망치거나 숨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어 붙잡게 하셨다. 군사와 관리들을 여러 부대로 나누어 바삭 주변의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셨다.

바삭으로 간 병력과 관료들의 수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다. 오후 3 시쯤 루앙 팻송크람이 왕을 알현해 군사들의 사정을 보고했다. 프라야 뽀라싯티가 왕실 재물을 가져간 혐의가 제기되었다.

왕은 여러 사람이 약탈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게 하셨다. 특히 프라야 뽀라싯티가 누구를 골라 재물을 가져갔는지, 왕실의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셨다. 왕은 죄의 경중을 따져 처리하되, 왕명을 받들어 계속 관직에 종사할 사람은 일을 이어 가도록 하셨다.

토요일, 음력 첫째 달 초여드레 오후 4 시쯤 왕은 프라 알락에게 쌀과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다. 승려들에게 쌀과 음식, 가사를 바치도록 하셨다.

일요일, 음력 첫째 달 초아흐레 오후 2 시쯤 왕은 루앙 랏차니꾼에게 서신을 들려 프라야 짜끄리에게 보내셨다. 바삭으로 갔던 프라 시리팻의 군대가 흩어지고 배도 없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처벌하지 않고 두면 군사 300 명 이상이 서로 다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왕은 톤부리 성벽을 쌓도록 지시하고, 프라야 짜끄리에게 지휘관들을 선정하게 하셨다. 또 프라야 짜끄리와 군대를 푸타로맛으로 다시 불러들여 배를 정비하게 하셨다.

일요일, 음력 첫째 달 초아흐레 밤 8 시쯤 왕은 푸타로맛에 머물며 프라야 피차이와 프라야 씨 탐마티랏에게 서신을 보내셨다.

프라야 피차이는 쿤끌랑을 보내 프라야 씨수웁에게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프래와 난 지역의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다. 프라야 씨수웁은 프래와 난에서 버마군의 움직임を 보고했다. 나이쭈, 나이똥, 나이깎문 등이 현지 상황을 조사했으며, 버마군이 여러 마을의 병력을 모아 치앙마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소문도 전했다.

프라야 피차이는 여러 지역에서 병력을 모으고, 램래와 주변 도시에서 군사와 무기를 확보했다. 왕실 군대가 준비한 무기는 약 400 정이었다.

프라야 깐짜나부리가 보고하기를, 군대가 남쪽 해안 지역을 살피던 중 버마인과 몬인을 만났다고 했다. 프라야 깐짜나부리는 병사들을 이끌고 맞서 싸워 버마인 두 명의 목을 베었다. 버마군은 흩어져 달아났고, 왕의 군대는 그들이 두고 간 옷과 물건을 거두었다. 붙잡힌 사람 약 70 명을 심문해 그곳의 사정을 알아보았다.

왕은 보고를 읽고 사실을 확인하셨다. 버마군이 다시 침입할 수 있으니 각 지역의 관리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셨다. 버마군의 이동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현지 언어로 확인하게도 하셨다.

월요일, 음력 첫째 달 초열흘 아침 왕은 왓위안에 가셔서 왕실의 공덕을 쌓는 의식을 행하셨다. 불상에 예를 올리고, 베트남 승려들의 독경을 들으셨다.

의식이 끝난 뒤 승려들에게 가사와 돈, 음식을 내리셨다. 쌀과 식량을 실은 수레도 여러 대 마련하게 하셨다.

이후 왕은 군대와 크메르인들의 상황을 살피셨다. 기록에는 크메르 병사 약 500 명과 군대의 이동에 관한 내용이 이어진다.

크메르군은 낮에는 습격하고 밤에는 기습하는 방식으로 싸웠다. 크메르인들은 태국군을 향해 “베트남군이 내려와 너희 군대를 무너뜨렸느냐?”고 소리쳤다.

프라야 코사와 프라야 아누락푸라 등이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웠다. 양쪽 군대는 총과 화살을 쏘며 격렬하게 교전했다. 크메르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태국군도 병사와 배를 잃었다. 기록에는 태국군의 사상자와 크메르군의 사망자 수가 각각 적혀 있다.

왕은 프라야 코사에게 계속 크메르군을 진압하게 하셨고, 프라야 아누락푸라에게는 왕명을 받들어 병력을 정비하도록 하셨다. 저녁에는 태국인과 중국인 군사·민간인에게 명령을 내려 경계를 강화하게 하셨다.

왕은 바삭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군대가 오래 머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셨다. 크메르인들이 이미 항복했고 왕에게 충성을 바치려 한다면, 군대를 거두어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다. 다만 크메르인들이 다시 적대하면 육군과 수군을 동원해 대응하도록 하셨다.

프라야 옴마랏과 프라야 코사는 캄보디아의 옹그람랏차를 도와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머물도록 하셨다. 크메르인들이 복종해 평화가 이루어지면 돌아오게 하셨다. 귀환할 때에는 진영을 차례로 세워 행군 중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

크메르인들이 다시 싸우려 하면 세 방향에서 공격하고, 배를 이용해 퇴로를 차단하라고 하셨다. 전투 중에는 병사와 배를 함부로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다. 기록에는 프라야 씨리팻의 군대가 베트남인들과 교전하면서 병사 10 명과 배 6 척을 잃은 일도 적혀 있다. 프라 우타이탐이 돕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나온다.

왕은 군대를 열 부대로 나누어 배치하고, 배 다섯 척씩을 한 단위로 삼으라고 하셨다. 포문이 달린 배는 적의 강변을 공격하고, 육군은 물가로 올라가 진격하도록 하셨다. 크메르군이 배를 버리고 물로 뛰어들어 도망치면 추격해 붙잡으라고 하셨다.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포상하되, 장수는 배와 군사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다. 장수가 작전을 소홀히 해 병사들이 희생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셨다.

크메르군이 배를 타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배를 묶어 두고, 적이 물러날 때 육군이 진영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작전도 내리쳤다.

수요일, 음력 첫째 달 12 일 오전 2 시쯤 태국인과 방콕 사람들을 불러 왕 앞에 나오게 하셨다. 왕은 그들에게 돈을 지급해 부대별로 맡은 일을 하도록 하셨다.

오후 3 시쯤 프라야 움마랏, 프라야 캄행위чит, 프라 아누чит랏차, 프라 나오왓춧과 여러 장수들이 왕에게 보고했다. 육군은 월요일 음력 12 월 초닷새에 바삭에서 약 150 쉼 떨어진 반쁘라삿엑에 도착해 진을 쳤다고 했다.

일요일 음력 12 월 초엿새에는 프라야 캄행위чит과 장수들에게 병사 약 1,000 명을 이끌고 바삭을 공격하게 했다. 전투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다.

크메르군은 진영을 지키며 맞섰다. 태국군에서는 프라 아누чит랏차를 비롯한 두 명이 죽고, 여덟 명이 부상했으며, 세 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정찰병들은 크메르군의 배와 진영 위치를 살폈다.

프라 나오왓춧은 군대를 이끌고 반쁠렝까부에 진을 쳤다. 토요일 음력 12 월 그믐 2 일에는 정찰병을 보내 삼낙끄라까 주변의 크메르군 진영 다섯 곳을 살피게 했다.

일요일 음력 12 월 그믐 3 일에는 프라야 캄행위чит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적의 진영을 공격했다. 오전 8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 태국군은 기습해 크메르군 100 여 명을 죽이고 27 명을 붙잡았다. 적의 진영에 들어가 무기와 물자를 확보했다.

크메르군에게서 말 다섯 필과 많은 무기를 빼앗았다.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프라야 쌍룩과 프라야 수린송크람, 크메르 장수 프라야 랏차송크람은 반따퐁쁘락에 진을 쳤다. 왕은 파탈라헤에게 군대를 이끌고 푸엣사트로 가게 하셨다. 나이응언농프라위셋은 행정 업무를 맡고, 프라 위чит은 군대를 지휘하게 하셨다.

크메르군은 달아났고 태국군은 푸엣사트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군대를 여러 길로 나누어 따끄라우, 쳡끌루, 짜라룽, 부리분 등으로 보내도록 하셨다. 수요일 음력 12 월 그믐 13 일에는 푸엣사트를 떠나 진군로를 살피게 하셨다.

반감랭에서 붙잡힌 크메르인이 태국군이 푸엣사트를 이미 점령했다고 진술했다. 옹끄람랏차는 왕에게 푸타로맛으로 돌아가겠다고 알렸다. 식량이 부족하고 크메르인들이 태국군을 두려워한다는 사정도 보고되었다.

왕은 파탈라헤에게 현지에 남아 크메르인들과 협상하게 하셨다. 프라야 코사에게도 귀순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상황을 살피라고 명하셨다. 프라 위셋은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캄행위чит을 계속 도와 왕명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왕은 욀그람랏차에게 서신을 보내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코사의 군대가 왕을 도와 일하게 된 사실을 알리셨다.

캄보디아의 정세가 안정되면 프라야 욀마랏과 프라야 코사의 군대는 돌아오도록 하셨다. 왕은 욀그람랏차에게 쌀 100 켈니와 말린 생선 다섯 하브, 말린 새우 다섯 하브를 내리셨다.

파탈라헤는 현지에 남아 욀그람랏차를 도우며 캄보디아를 다스리는 일을 맡았다. 군대의 식량으로 쌀 100 켈니를 주고, 푸타로맛에 있던 프라야 랏차셋티에게도 쌀 200 켈니를 내리셨다. 욀그람랏차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프라야 랏차셋티에게 연락하게 하셨다.

목요일, 음력 첫째 달 초사흘 오후 4 시쯤 왕은 푸타로맛의 베트남인과 크메르인에게 각각 돈을 나누어 주셨다.

금요일, 음력 첫째 달 그믐 14 일에는 프라야 씨리수티에게 음력 그믐 3 일에 톤부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동풍이 불 때까지 기다려 배가 무리 없이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오후 4 시쯤 프라야 랏차셋티가 왕을 알현해 쌀 50 켈니를 나누어 주었지만, 총 200 켈니 가운데 아직 전부 지급하지는 못했다고 보고했다.

왕은 프라야 뿌라차칩에게 사실을 확인하게 하셨다. 그는 프라야 랏차셋티에게 이미 쌀 100 켈니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왕은 지급을 직접 확인한 증인이 있는지 물으셨다. 보고가 서로 맞지 않자 왕은 관리들을 불러 증언하게 하셨고, 프라야 짜끄리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왕은 프라야 뿌라차칩과 관리들을 조사하게 하셨다. 쌀을 빼돌리거나 허위로 보고한 일이 확인되면 관례에 따라 처벌하라고 하셨다. 관리들끼리 서로 편을 들어 사실을 감추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명령도 내리셨다.

왕은 나이 렌토아룻에게 태국인과 몬인들을 모아 귀환 준비를 하게 하셨다. 수로를 따라 톤부리로 돌아갈 때는 병사들을 부대별로 나누어 배치하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

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바람을 살피도록 하셨다. 동풍이 배에 맞서 불면 먼 곳까지 나아가지 말고,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 배가 큰 파도를 만나면 물살이 가라앉을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셨다.

토요일, 음력 첫째 달 보름 아침 왕은 말을 타고 왓위안으로 가서서 왕실의 공덕을 쌓는 의식을 행하셨다.

왕은 왓위안에서 베트남 승려들의 독경을 들으셨다. 의식이 끝난 뒤 승려들에게 돈과 음식을 내리셨고, 태국인과 크메르인 승려들에게도 각각 공양을 베풀었다. 불상은 톤부리로 옮기도록 하셨다. 왕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100 명이 넘었다.

월요일, 음력 12 월 초열하루 아침 7 시쯤 프라야 코사가 보고했다. 프라야 수린송크람과 크메르 장수 프라야 랏차송크람이 반따퐁쁘락에 진을 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왕은 파탈라헤에게 군대를 이끌고 푸엣사트로 가게 하셨다. 나이웅언농프라위셋은 현지 행정을 맡고, 프라 위컷은 군대를 이끌게 하셨다.

크메르군이 달아난 뒤 태국군은 푸엣사트에 사흘 동안 머물렀다. 병사 200 명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대는 따끄라우와 다른 지역으로 나누어 보냈다.

태국인·중국인·베트남인 승려들이 왓위안에 모였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했다. 의식이 끝나자 태국 승려들에게 가사를 바치고, 승려 한 사람마다 돈 한 바트를 내렸다. 베트남인과 중국인 승려들에게도 각각 돈을 나누어 주셨다.

왕은 베트남 승려들에게 베트남어로, 중국 승려들에게 중국어로 말씀하셨다. 승려들은 계율을 지키고 서로 다투지 말며,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계율을 어긴 승려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왕은 승려들에게 공양을 마친 뒤 사원을 떠나셨다.

토요일, 음력 첫째 달 보름 오후 3 시쯤 왕은 프라야 뿌라차침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가 군무를 맡아 지키고 있는 곳에 가서 병력을 살피게 하셨다.

왕은 병사를 더 모을 수 있으면 모아 왕명에 따라 세 부대로 나누라고 하셨다. 병력을 모으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다. 프라야 뿌라차침은 프라야 수라세나, 몬 씨프라윗, 루앙 프롬티반, 루앙 인텟에게 사람들을 맡겼다.

일요일, 음력 첫째 달 그믐 초하루 오후 3 시쯤 프라야 핏사눌록과 여러 지방의 관리들이 왕을 알현했다. 싱부리와 므앙싱카춤, 므앙마리군, 나콘부리 등의 관리들이 프라야 짜끄리와 함께 왔다. 왕은 이들에게 옷을 내리셨다.

왕은 프라야 핏사눌록에게 빠끄남 프롱끄라상을 지키게 하고, 옹끄람랏차에게 큰 대포 다섯 문을 보내셨다. 백성들은 군대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세금을 서둘러 거두지 말고,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하셨다.

월요일, 음력 첫째 달 그믐 2일 아침 왕은 군사와 관리들을 불러 모으셨다. 프라야 피차이 아이사완, 프라야 씨랏차땃, 프라 타이나무, 마하렉 등에게 선봉을 맡기셨다. 푸타로맛에서 군대를 늦추지 말고 진군해 성을 확보하라고 하셨다.

왕은 성을 지키는 군대와 관리들이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다. 프라야 피차이와 다른 장수들은 군대를 이끌고 움직였다. 기록에는 왕명을 어긴 사람들을 가두거나 성벽 공사에 동원하는 처분이 이어지며, 기한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명령도 나온다.

그날 오후 옹끄람랏차가 왕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알렸다.

옹끄람랏차는 프라 옹 우타이가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고 보고했다. 베트남 측은 군대를 보내지 못하게 했고, 그 때문에 옹끄람랏차의 군대가 되돌아왔다고 했다. 왕은 옹끄람랏차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 설득하게 하셨다. 베트남 군대와 마주친 부대의 전투 상황도 보고되었다.

왕은 프라야 짜끄리에게 필요한 무기와 병력을 보내게 하셨다. 프라야 핏사눌록에게는 큰 대포 두 문을 주어 빠끄남 프룽끄라상을 지키게 하셨다. 파탈라해에게는 옹끄람랏차를 도와 크메르인들을 진정시키라고 하셨다.

왕은 프라야 랏차셋티를 불러 화해하게 하셨다. 옹끄람랏차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맞이하고 왕에게 오도록 권하라고 하셨다. 쌀 70 켄니를 프라야 랏차셋티에게 보내고, 프라야 수라탐마티랏과 다른 관리들에게 식량과 행정 업무를 맡기셨다.

북부 지역에 라오인과 버마군이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왕은 치앙마이와 람푼, 팡 등 북부 지역에 군대를 보내도록 명하셨다.

화요일, 음력 첫째 달 그믐 3일 왕은 푸타로맛에서 톤부리로 돌아가는 군대를 수로로 출발시키셨다. 행군과 귀환에는 열흘 이상이 걸렸으며, 월요일 음력 첫째 달 그믐 13일쯤 톤부리에 도착했다.

월요일, 음력 둘째 달 초아흐레 왕은 프라야 씨리탐마티랏, 프라야 짜끄리, 프라야 마하세나, 프라야 마하숨밋, 프라야 마하몬티안에게 업무를 맡기셨다. 각 관리가 사람들을 배치하고 맡은 일을 처리하도록 하셨다.

토요일, 음력 둘째 달 14일 새벽 2시쯤 푸타로맛에서 프라야 랏차셋티와 함께 일하던 루앙 랏차찐이 왕에게 서신을 가져왔다. 푸타로맛의 업무 상황과 관리들에 관한 보고였다. 프라야 랏차셋티와 프라야 찐타부리 쪽 사람들도 문서와 함께 왕을 알현했다.

왕은 서신을 읽고 관리들을 불러 자세히 물으셨다. 보고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심문하도록 하셨다.

프라 쿠 피셋, 쿤루앙 프라끄라이씨, 프라 깻삼과 함께 반역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왕 앞에 불러 왔다. 그 명단에는 차오쭈이, 루앙 송클라, 프라야 째타부리, 중국인 분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왕은 고위 관리들에게 이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물으셨다. 왕명을 거역하고 반란을 꾀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셨다. 다만 왕은 곧바로 처형하지 말고, 사건의 경위와 각자의 책임을 먼저 조사하라고 하셨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히는 사람은 사정을 살펴 처분을 정하라고 하셨다.

이어서 앞서 언급된 군대의 편성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월요일, 음력 12 월 초열이틀(불기 2314 년) 푸타로맛에서 캄보디아의 수도로 선봉군을 출발시켰다. 왕은 군대의 명예를 위해 왕실 배 한 척을 내리셨다. 프라야 짜끄리 부대는 지휘관 21 명, 병사 668 명으로 총 689 명이었고, 배는 20 척이었다.

각 부대의 인원과 배 수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다.

- 프라야 코사 부대: 지휘관 67 명, 병사 575 명으로 총 642 명, 배 50 척
- 프라 마하텝 부대: 지휘관 56 명, 병사 357 명으로 총 413 명, 배 12 척
- 므 와이와라낫 부대: 지휘관 9 명, 병사 263 명으로 총 272 명, 배 6 척
- 옹끄람랏차 부대: 지휘관 1 명, 병사 299 명으로 총 300 명, 배 9 척

다섯 부대를 합쳐 지휘관 145 명, 병사 3,163 명, 총 3,307 명이었고, 배는 97 척이었다.

군대가 빠끄남 프롱끄라상에 이르렀을 때 베트남 배 세 척과 마주쳐 교전했다. 루앙 랏차세나이가 대포를 쏘았고, 베트남인들은 물에 뛰어들거나 도망쳤다. 일부는 붙잡혔다.

그 아래에는 푸타로맛에 있던 장수와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차오나콘, 차오나룻테와, 차오첸숙마, 프라야 랏차셋티, 프라야 피차이 아이사완 등 여러 사람의 명단이다.

푸타로맛의 장수와 관리 명단이 계속된다. 프라야 톱코사, 프라야 피차이 룬릿, 새로 임명된 프라야 째타부리, 프라야 뿌라차침, 프라야 아파이풍사, 프라야 수라세나, 프라야 랏차솜밋, 프라 순툰위한, 프라 텡오라쿤, 프라 수탐마짜리, 프라 야난쁘라싯티 등이 기록되어 있다.

뒤이어 므 스라팻파디, 므 씨사오락, 므 사머짜이랏 등 관리들의 이름도 나온다.

명단은 루앙 랏차니쿤과 루앙 인트라피반으로 이어진다. 편집자는 이 명단이 실제로는 전체 명단이 아니며, 일부 인물이 빠져 있을 수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

이후에는 《졸라웃타간왕》 산문본의 첫 부분이 시작된다. 글은 왕에게 올리는 찬사와 기원으로 문을 연다. 왕의 공덕과 위업, 불교의 삼보에 대한 존경을 말하며, 왕의 은혜로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이 글의 사건과 인물에 관해 전해지는 내용이 모두 빠짐없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졸라웃타간왕》 산문본 — 앞부분

이 글은 옛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프라루앙 이야기》에는 자세하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으려 한다. 글쓴이는 평범한 사람이라 기억이 빠지거나 잘못 전할 수 있으니, 옛이야기를 잘 아는 학자가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로카나타

삼계의 중생들이 의지하는 분인 부처님을 ‘로카나타’라 한다. 부처님께서 처음 일체를 아는 지혜를 깨달으셨을 때,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셨다. 부처님은 마가다와 중인도 여러 곳의 불교 유적을 살펴보고, 불법을 널리 알릴 뜻을 세우셨다.

부처님은 자신의 뜻을 정하신 뒤 여러 성스러운 곳에 머무르셨다. 일곱 곳에서 각각 7 일씩 지내신 뒤 이시파타나의 사슴동산으로 가셨다. 그곳은 약 18 요자나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다. 이후 제자들에게 여러 지역으로 가서 가르침을 전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각지로 흩어져 법을 전했고, 부처님도 우루웰라 등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가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다. 스리랑카 등 먼 지역에도 불교가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네 달이 지나자 마하жат사빠가 아라한 500 명과 함께 라차쿠트라는 곳에서 모임을 열었다. 이후에도 승려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했다. 기록은 여러 차례의 결집과 승가의 활동, 불교가 각 나라로 전해진 일을 이어서 설명한다.

부처님의 사리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 모셔졌다. 기록은 사리를 작게 나누어 많은 곳에 봉안하고, 천상과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공양할 수 있게 했다고 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공덕을 쌓게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쿠시나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글은 부처님의 열반과 사리 봉안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뒤, 과거의 불교 역사와 여러 왕조의 이야기를 이어 간다.

수코타이의 옛이야기

어느 날 수코타이의 왕은 멀리 나가 구경하고 싶어 했다. 신하들과 함께 길을 나서 숲과 산을 지나며 주변을 살폈다. 왕은 그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아름답고 피부빛이 붉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왕은 그 여인의 정체에 궁금해졌다. 여인은 왕을 보고 놀라 자리를 피했고, 왕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그 여인은 왕에게 자신이 이곳에 머물게 된 사정을 설명했다. 왕은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은 그 여인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머무는지 물었다. 여인은 자신이 나가족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왕은 그녀가 사원과 주변 지역을 지켜 왔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머물게 된 경위를 더 자세히 들으셨다.

여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왕은 그녀에게 왜 이곳까지 왔는지,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 물었다.

기록은 여인의 설명과 함께 수코타이 왕이 그곳을 방문한 상황을 서술한다.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사정을 더 확인하려 했다.

여인은 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거듭 설명했다. 그녀는 왕의 방문에 놀라 몸을 숨겼으며, 이곳에서 지내며 사원과 주변을 보호해 왔다고 말했다.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일이 사실인지 살폈다. 여인은 왕에게 자신이 더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왕의 처분을 기다렸다.

왕은 여인에게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여인이 계속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여인은 왕의 명을 듣고 놀랐지만, 왕에게 자신을 해치려는 뜻은 없었다고 아뢰었다. 왕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여인은 왕에게 자신이 왕을 만나러 온 까닭을 설명했다. 왕이 이 지역을 지나가며 산과 숲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왔다는 내용이다. 그녀는 자신이 나가족의 후손이며, 이곳에 머무는 동안 사원과 지역을 지켜 왔다고 말했다.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사정을 이해했다. 기록은 수코타이 왕과 나가족 여인의 만남을 전설적인 이야기로 이어 간다.

나가 여인은 천상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하고 신비로운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수코타이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알맞은 자리에 앉아 왕에게 예를 올렸다.

수코타이 왕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는가?”

나가 여인은 숨김없이 사실을 말했다. 아버지가 예전에 자신에게 한 말을 기억해 그대로 전했다.

왕은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는 작은 나가 여인이었구나. 나가왕의 딸이구나. 아버지가 그대를 보내 나를 섬기게 했으니 잘된 일이다.”

두 사람은 함께 지냈다. 나가 여인은 매우 사랑스러웠고, 왕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로 시중을 들었다. 그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꽃과 장신구로 꾸몄다. 왕과 나가 여인은 함께 지내며 서로 사랑했고, 그렇게 일곱 밤을 보냈다.

스리탐마소카라차 왕은 나가 여인과 함께 지내는 일을 기뻐했다. 나가 여인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모습은 인간 세상에서는 보기 드물었다.

왕은 그녀를 궁궐로 데려가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그대여, 내가 그대를 궁궐로 데려가고 싶다. 나는 먼저 수도로 돌아가 정무를 볼 것이다. 이곳에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동안 수레와 많은 수행원을 마련해 그대를 수도로 맞이하러 오겠다. 여기서 편히 지내고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7일이 지나면 내가 직접 올 테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기다려라.”

왕은 궁으로 돌아갔다. 왕에게는 처리할 일이 많아 나가 여인을 잠시 잊고 지냈다. 약속한 7일이 지났지만 왕은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왕이 자신을 두고 돌아간 뒤 약속한 날이 지나자, 나가 여인은 외롭고 슬퍼했다. 그녀는 왕이 인간이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외딴곳에 홀로 남겨졌으며, 왕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나가 여인은 임신한 몸이었다. 뱃속의 아이를 나가의 나라로 데려가 다른 이들이 돌보게 할지 생각했지만, 결국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었다. 왕이 자신에게 준 붉은 천과 마음에 들었던 반지를 간직한 채,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 물가로 갔다.

나가 여인은 나가의 신통력으로 피 덩어리와 아이를 보호할 장소를 마련했다. 그곳에 아이를 두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했다. 숲과 물가에 사는 여러 신령에게도 아이를 지켜 달라고 빌었다.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그 물가를 돌아다니다가 피 덩어리를 발견했다. 피 냄새를 맡은 두꺼비는 그것을 먹이로 삼으려 했다. 두꺼비는 다가가 피 덩어리를 물었다. 그러나 그 피 덩어리에는 나가 여인의 신통력과 아이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두꺼비는 그 피 덩어리를 물고도 죽지 않았다. 그렇게 두꺼비의 모습으로 물가와 개울을 오가며 살았다.

스리탐마소카라차 왕은 7일이 지나서야 나가 여인을 떠올렸다. 왕은 많은 신하와 군사를 거느리고 수레를 준비해 그녀를 데리러 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가 여인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을 시켜 왕의 영토와 산 주변을 모두 찾아보게 했지만, 사흘 동안 찾아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왕은 몹시 슬퍼하고 후회했다. 나가 여인을 잃은 일이 마치 나라를 잃은 것처럼 가슴 아팠다.

한편 산기슭 반푸촌 마을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어느 날 부부는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이상한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노부부는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 두꺼비를 돌보았다. 그들은 두꺼비를 불쌍히 여기고 먹이를 주며 키웠다. 두꺼비는 보통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했다.

부부는 두꺼비에게 말을 걸고 정성껏 돌보았다. 두꺼비는 이따금 물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기도 했다. 노부부는 잡은 물고기를 보며 기뻐했고, 두꺼비를 가족처럼 아꼈다.

두 사람은 두꺼비에게 먹이를 주고, 집 안에 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두꺼비는 그 집에서 지내며 점점 자랐다.

두꺼비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부부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렀다. 노부부는 아이처럼 그를 사랑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키웠다.

어느 날 노부부가 집을 비우자, 차오루양은 두꺼비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여러 그릇에 담아 두었다. 그런 다음 다시 두꺼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부부가 집에 돌아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보고는 의아해했다.

“누군가 우리를 미워해 음식에 독을 넣어 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죽이려는 것일지도 모르니 먹지 말자.”

두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노부부는 숨어서 지켜보았다. 두꺼비가 두꺼비 모습에서 벗어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음식을 마련한 뒤 다시 두꺼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았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차오루앙이 자신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차오루앙은 두 사람을 부모처럼 공경했고, 노부부는 그를 친자식처럼 아꼈다.

그 뒤에도 차오루앙은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집안일을 돕고 음식을 마련했다. 부부는 그가 평범한 두꺼비가 아니라 신통한 힘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노부부는 차오루앙에게 자신들이 그를 아들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다. 차오루앙도 두 사람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며 효성을 다했다. 기록은 그가 **출라삭까랏 591**년에 태어났다고 전한다. 자라면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과 큰 신통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차오루앙은 자신을 돌봐 준 노부부를 도왔다. 글은 그가 나가의 혈통과 신비한 힘을 지녔으며, 부모를 사랑하고 섬긴 이야기를 들려주며 끝난다.

이 쪽은 본문이 아니라 책 뒤의 도서 소개입니다.

- **《인도 미술》 제1 권, 카사라짜리 흙짜오 수파트라딕쿤 저**
인도 문명 전반과 인도 미술의 아름다움 및 발달 과정을 다룬 책이다. 선사시대와 고대 인도 미술, 고대 건축, 불교와 힌두교 건축 등을 소개하며 고고학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 **《여러 관습과 풍속》 제1~2 권**
이산 지역의 통치 관습과 금전 문제, 결혼 풍속,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의 생활, 장례식에서 연주하는 악기 등을 다룬다. 제2 권은 왕실 의식과 행사, 행렬과 음악, 미얀마의 의례 관습 등을 소개한다.
- **《콘》, 나이 타넷 유포이 저**
태국 전통 가면극 콘의 기원과 발전, 공연에 쓰이는 라마끼엔 이야기, 가면 제작과 춤의 기본 동작, 음악과 희극적 장면, 예법과 세부 관습을 소개한다.
- **《땅속의 보물》 1~2 권, 산타시리 저**
펄 벅의 소설 《대지》(The Good Earth)를 번역한 책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펄 벅은 중국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농민의 생활과 관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특히 남편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중국 여성의 모습이 왕룡의 아내를 통해 잘 드러난다고 소개한다.
- **《예시 단편소설》, 쯔어 사파웨틴 저**
여러 외국 작가의 단편을 모은 책이다. 작품마다 줄거리 전개, 표현 방식, 문장과 문학적 기교가 다르며, 읽는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이란 왕도 이야기》 — 태국 미술국 편 《문헌집》 1~2 권**
외국에서 전해진 이야기로, 태국에서는 흔히 **《열두 모서리 이야기》**라고 부른다. 아유타야 시대에 태국어로 번역된 것으로, 왕의 도리와 통치 윤리를 다룬 교훈담이라 널리 읽혔다고 소개한다.
- **《루앙 위치안 팻타야콤의 강연 모음》**
시민의 의무와 일반인의 생활 문제를 다룬 강연집이다. 교육, 예절, 도덕, 결혼, 사회생활과 심리 등 여러 주제를 다루며, 짧은 글 15 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나이 사쿤 남마난힌의 글 모음》

여학생이 과학을 배우는 까닭, 태국인의 성향, 태국 문학과 풍속, 미신, 치앙통과 치앙룽 등 여러 주제의 글을 모은 책이다.



หอสมุดแห่งชาติ
สาขาวัดไทยชุมพลชนะสงคราม
จังหวัดกาญจนบุรี